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6월 24일(음력 윤5월 2일) 수요일(주간)

“죽비로 과오 고치자”

조계종 스님 1447명 정부 쇄신촉구

하안거 기간 MB를 깨우는 장군죽비가 내려졌다.

조계종 스님 1447명은 수행에 매진하는 하안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통해 MB정부 쇄신을 엄중히 촉구했다.

조계종 종회의원 및 각 교구본사 중진 스님, 실천불교승가회와 불교환경연대, 청정승가대중결사 등 각 단체 소속 스님 1447명은 6월 15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에는 법타 스님(前 은해사 주지)을 비롯해 법안 스님(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현각 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오 스님(청정승가대중결사 대표) 등 각 불교단체 수장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명진(봉은사 주지), 혜자(도선사 주지), 수경(화계사 주지) 등 주요사찰 주지, 종회의원 42명 등을 비롯한 스님들은 서명으로 동참했다.



조계종 스님 1447명은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국선언을 한 후, 정부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죽비를 삼존불에 봉안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날 조계종 스님들은 “독단과 거짓의 현정부를 선택한 어리석음이 2년도 되지 않아, 자유가 억압되는 참담한 현실을 불러왔다”며 “하안거 결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모인 우리는 수행자의 지혜와 양심의 목소리로 MB정부 쇄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노 前 대통령 서거 관련 이명박 대통령 및 집권여당 사과 △집회 언론자유 보장 △비정규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4대강 사업 중단 △자연공원법 개악 중지 △대북강경 노선 철회 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법타 스님은 여는 말에서 “MB정권 하에 불교는 ‘금치산자’로, 국민은 실험실 청개구리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과감히 죽비를 내려 지난 2년 간 현정부 과오를 바로잡고,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3년을 준비하겠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법안 스님은 “시국법회를 추진한 단체들을 묶어 대응에 나서고, 교계 각 단체들은 7월 2일 조계종 전국결의대회서 사회현안 문제가 다뤄지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며 향후 강경대응방침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참가 대중 일동은 정부 각성을 상징하는 ‘죽비’를 조계사 삼존불에 봉안했으며, 조계사 일주문 앞에 자리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농성장을 방문해 3000배 등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불교계 시국선언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천주교 사제 1000여명도 같은 날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시국토론회를 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도 18일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목회자 1000인 선언’을 했다.

이어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와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은 22일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부터 각 종교별 순차적으로 10~30일씩 ‘생명평화세상을 여는 종교인 100일 기도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숲길 걸으며 ‘나’를 만나자

트레킹 인기에 사찰림 걷기 등 숲 체험 프로그램 ‘주목’

휴대폰 배터리가 깜빡깜빡 방전을 알리듯 심신이 쳐질 때, 질푸른 신록 속을 거닐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녹색물결과 흙내음 속에 충전 막대기는 다시금 차오른다.

초록이 움트는 6월, 시민단체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숲’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숲의 종교’인 불교도 이에 맞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레킹 등 체험현장 봇물

산과 들을 따라 떠나는 사색여행, 트레킹(trekking)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오솔길과 생태탐방로를 걷는 트레킹은 각 지자체가 코스를 개발하는 등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는 6월 17일 북한산 등 서울을 감싸고 있는 8개 산을 이어 2011년까지 137km의 트레킹 코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이 직접 생태를 체험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성북 정릉동에 ‘북한산 숲 체험장’도 문을 열었다.

제주도도 최근 한라산 국유림을 통과하는 ‘사려니 숲길’을 생태관광 트레킹 코스로 개발했다. 15km에 달하는 ‘사려니 숲길’은 유채꽃과 돌담길이 200km 12개 트레킹 코스로 펼쳐진 ‘올레길’과 함께 많은 이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있다.

지리산에는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을 있는 30km 트레킹 코스가 지난해부터 열렸다. ‘산사람 길’ ‘백련사 오르는 길’ 등 2011년까지 300km에 걸쳐 지리산을 핏줄처럼 이을 계획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산행체험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도 열렸다. 지난 2일 북한산 숲유치원 개원에 이어 올해 안 인천 청량산에도 숲유치원이 개원된다. 현재 생태보전시민모임이 북한산에서 ‘숲동이 놀이터’, 숲연구소가 ‘숲유치원’을 열었으며 숲해설가협회는 일반인을 숲해설가로 키워내는 아카데미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불교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숲과 불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에 머무는 사람’이란 뜻의 ‘아란냐카(aranyaka)’로 불렸다. 숲인 ‘아란야’가 중국에서 ‘사(寺)’ ‘암(庵)’으로 바뀌었 듯 숲과 사찰은 둘이 아니었다. ‘출가’와 ‘입산(入山)’이 같은 의미기에 수행자들은 우리 산하를 지키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현재 지역 각 사찰은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 내소사 ‘변산반도 트레킹’, 예산 수덕사 ‘가야산 백제의 미소길 걷기’, 평창 월정사 ‘오대산 천년의 숲길 옛길 따라 걷기’, 제주 관음사 ‘제주 올레길 걷기’, 남원 실상사 ‘지리산 숲길 명상’, 밀양 표충사 ‘대나무 숲 참선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도 매분기 전국 명산에서 ‘생태풍수 산사기행’을 개최해 ‘숲’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나서고 있다.

교계에서는 산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생활 속에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해 역량을 배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흥사 어린이 숲속 마을’과 사찰생태연구소가 연 1회 진행하는 숲명상 지도자 양성교육이 좋은 예다. ‘어린이 숲속마을’은 약 한 달 간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산사생활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지도자양성교육’ 또한 사찰수행환경 보호까지 이끌어내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불교계는 현재 사찰환경이 크게 훼손당하는 각종 사회현안에 부딪쳐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교계가 사찰환경 보호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린이법회, 사찰 부속 각 학교와 연계한 생태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환경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노덕현 기자



부안 내소사의 변산 트레킹은 템플스테이와 연계된 인기 프로그램이다.

선운사 주지 ▶5 법만 스님

선지식을 찾아서 ▶14 기후 스님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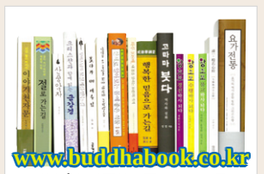
법구경

영혼이 잠깬 이는
눈 먼 무리 속에서
찬란한 지혜의 빛을 발한다.

현대불교 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 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참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公告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우리종단은 1968년 공원제도 시행 당시부터 사찰경내지의 공원 지정을 반대한 이래 1972년 해인사 법주사 등 주요사찰에서도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였습니다. 1986년 9·7 해인사승려대회에서도 공원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1996년 '환경보전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의 경제적 수준만큼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정치사회 여건에 비추어 문화유산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우리 본말사 주지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고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주지스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_ 불기2553(2009)년 7월 2일(목) 오전 11시
- 장 소 _ 제15교구본사 통도사 대웅전 앞
- 참 석 _ 조계종 본말사 주지
- 문 의 _ 진행실 (02)2011-1923~4 기획실(02)2011-1732

불기 2553(2009)년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불기 2553(2009)년도 전국본말사주지연수

우리 종단은 교육법 제105조와 제109조의 7항에 의거하여 불기 2553(2009)년도 본·말사주지연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전국의 본 종단 사찰주지스님께서는 무루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_ 본종 소속 사찰 주지스님
- 일 시 _ 2009년 7월 1일(수) ~ 2일(목) 1박2일
- 장 소 _ 제 15교구본사 통도사 설법전
- 도 착 _ 7월 1일(수) 오후 1시까지
- 참 가 비 _ 100,000원 (당일 교육장에서 납부)
- 준 비 물 _ 종단통일대가사, 장삼, 승려증, 세면도구
- 유의사항 _ ① 교통편은 본사에 1차 집결 후, 각 본사별 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올해 연수는 본말사주지결의대회와 연계해 1회만 진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_ 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9

불기 2553(2009)년도 6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법장

죽비와 목탁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직지사 영어캠프 '귀한 시작'

6월 15일. 김천 직지사 스님들이 서울 인사동을 찾았다. 스님들은 템플스테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전국 사찰에서 시행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 이제는 더 이상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다. 더군다나 직지사는 어린이 · 청소년 · 직장인 템플스테이 선두주자로 탄탄한 기반을 닦은 도량이다. 그런 직지사 스님들이 왜 상경했을까.

직지사 교무국장 정진 스님은 "오는 8월 불교계 최초로 직지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형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국장 장명 스님은 "지역 학생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간접적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게 예불과 발우공양 등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체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직지사는 행자교육원과 직지사 연수원을 갖춘 교육도량이다. 그동안 인재 불사에 집중한 노하우를 충분히 살려 어린이 포교에 원력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 첫 영어캠프인지라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 체험비 등 행사준비에 보통 애를 먹은 눈치가 아니었다.

사실 직지사는 김천시와 영어마을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이 사업 막바지에 발목을 잡았고 결국 독립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직지사 스님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음에도 어린이 포교의 원력 하나로 영어캠프형 템플스테이를 강행하기로 했다.

파주 영어마을조차 재정적자로 존폐기로에 직면했을 정도로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다. 때문에 성공한다면 직지사는 물론 불교계 전체에 큰 기회다.

직지사의 영어캠프형 템플스테이가 성공하려면 차별전략이 필요하다. 불교적인 내용을 최대한 줄여 거부감 없이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불교적 내용을 변형시켜 새로운 타이틀로 접근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첫 시작부터 수익창출에 대한 생각은 차후로 미루고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함은 분명하다.

간디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어린 시절 사원에서 노래를 잘했죠. 다른 애들처럼 가사 뜻도 모르고 그냥 노래를 했죠.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어린시절 직지사 풍경소리를 들으며 영어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어린이의 미래가 기다려진다.

"생생한 한국 느껴요"

조계종, '미주동포학생 한국문화체험' 개최

재미교포 2~3세들이 불교로 모국의 전통을 체험하는 장이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6월 26일~7월 2일 '미주동포학생 한국문화체험' 첫 번째 마당을 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공동주최하고 뉴욕사원연합회(회장 원영)와 미동부 불교신도회(회장 김정광)가 후원하는 이번 '미주동포학생 한국문화체험'은 원각사, 불광사 등 뉴욕 지역 8개 사찰, 불자 학생 21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 체험은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체험을 비롯해 문화유적 답사, 산업현장탐방 등이 진행돼 한국문화를 접하지 못한 교포 자녀들에게 고국의 전통과 발전상을 알리는 소중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또래 한국 청소년 불자와의 만남도 진행돼 양국 문화 · 인적교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 일정으로는 26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월정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28일 안동하회마을 △29일 석굴암 및 불국사, 통도사 참배, 현대자동차 견학 △30일 KBS 견학 및 토론회 △7월 1일 박물관 견학 및 조계종립 동대부고 학생과의 만남 △2일 명원다례 전수 및 다도 체험, 총무원 방문 등이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 자녀 22명을 초청 '제1회 고려인 한국문화체험'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 미주지역 교포 자녀 초청 행사를 통해 한인교포사회에 포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부 국제팀은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정신과 전통을 전 세계 교포들에게 심어주고 양국 교민 연대 강화로 한국불교 세계화 또한 이끌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미국 지역 한국불교 사찰은 100여개에 달하며, 현재 뉴욕 및 미동부지역에는 숭산 스님이 72년 설립한 프로비던스 젠센터를 비롯해 뉴욕 원각사, 불광사 보스턴 문수사, 서광사 등 40여 개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2)2011-1833

노덕현 기자

'성시화' 대처할 新 도심포교 전략 세워

조계종 포교원 25일 '종교편향과 도심포교에 대한 토론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이 개신교의 '성시화(聖市化) 운동'에 대응해 새로운 도심포교 전략을 세운다.

포교원은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 손안식)와 공동주최로 '종교편향과 도심포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성시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편향 행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도심포교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연찬회는 △정범 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이 '성시화 운동과 도심 전도전략' 을 주제 발표하고 정웅기 사무처장 (밝은세상), 서재영 선임연구원(조계종 교육원), 이찬수 원장(종교문화연구원)이 토론한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는 '불교 도심포교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 발표하고 남전 스님(용주사 기획국장), 김영일 포교차장(조계종 포교원)이 토론 발표한다.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개신교계 지역자치단체와 각급 기관장 등 공직자의 성시화 발언과 종교편향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의외로 불교계는 성시화 운동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시화 운동의 실상과 내막을 알아보고 도심포교에 대한 집중 조명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종교 갈등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수도·교화승 역할분담 현실화해야"

태고종 첫 종책토론회 열고 의견 수렴



19일 열린 태고종의 제1회 종책토론회에서 종책기획위원장 도산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신규탁 교수. 사진=박재완 기자

"수도승(독신)과 교화승(결혼)의 역할분담을 현실화해 미래지향적인 새 불교운동의 역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태고종이 처음으로 종책토론회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태고종 종책기획위원회(위원장 도산)는 6월 19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종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연세대 철학과 신규탁 교수는 '태고종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이란 발제를 통해 수도승과 교화승의 양 체계를 주장하는 태고종은 △종헌상의 '대승계'에 대한 연구와 계목 확립 △비구교단과 차별화된 '대승보살운동'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입장 표명 △보다 많은 공찰의 확보 △동방불교대학 등 교육기관 활성화 △일정 교육을 통한 사회인사의 교직자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태고종조인 태고보우 선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고 선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책기획위원장 도산 스님의 인사말과 국회 정각회 부회장 강창일 의원의 기조연설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로 시작된 토론회는 운경 스님의 '근현대불교사와 태고종의 탄생'발제와 김경집 교수(진각대 교수), 법담 스님(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장), 이학종 대표(미디어붓다), 능해 스님(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도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의 새로운 위상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종단 발전을 위해 이번 토론회와 아울러 전국 각 지역의 사찰 주지회의, 소임자별 워크샵, 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 종무행정 쇄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불교저널' 창간

선학원 인터넷신문 오픈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6월 22일 인터넷 신문 '불교저널(THE BUDDHISM JOURNAL)'을 창간했다.

서현욱 편집장은 "불교저널은 일본강점기 아래 한국불교의 등불이 된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계승한다. 올바른 종교관의 확립과 사부대중의 화합, 선풍의 현대적 진작을 통해 21세기 한국불교를 선양함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www.buddhismjournal.com

조동섭 기자

'비구니스님의 수행'

전국비구니회 24일 포럼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포럼이 열린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6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구니회관 대강당에서 '제2차 한국비구니 수행전통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선재 스님 등 각계에서 활동 중인 16인 비구니스님들의 수행담을 중심으로 사찰음식, 사회복지, 꽃꽂이 예술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02)3411-8103

조동섭 기자

'희망드림 꿈드림' 캠페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본지와 지구촌공생회가 공동 진행하는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드림 꿈드림' 캠페인 후원 명단입니다. 6월 19일 현재 성금 1442만 500원이 모금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30일까지 후원자 명단

3월 19일 김장수 불자님 100만원 /4월 3일 '보이차는 내친구' 8만원 /4월 15일 이어진, 유보미 불자님 10만원 한익수 불자님 10만원 /4월 23일 박은정 불자님 50만원 /5월 2일 유정용 불자님 52만원 /5월 4일 신정희 불자님 2만원 장순남 불자님 1만원 /5월 5일 이복임 불자님 1만원 /5월 7일 김종하 불자님 10만원 김태윤 불자님 100만원 /5월 11일 모미숙 불자님 1만원 전영임 불자님 2만원 김종승 불자님 12만원 /5월 12일 최순애 불자님 10만원 이은목 불자님 5만원 하혜지 불자님 1만원 하승민 불자님 1만원 강계남 불자님 2만원 /5월 13일 정미순 불자님 10만원 곽준호 불자님 1만원 이용헌 불자님 3만원 생명요가문화원 1만원 /5월 14일 정종명 불자님 1만원 이달숙 불자님 50만원 /5월 15일 순금사 불자님 30만원 박경임 불자님 1만원 /5월 18일 대동세무고일동 6만원 양혜순 불자님 10만원 서 용 불자님 2만원 황규덕 불자님 3만원 김경자 불자님 1만원 /5월 20일 정경자 불자님 1만원 최경숙 불자님 1만원 최문자 불자님 4만원 /5월 22일 임동분 불자님 1만원 김옥수 불자님 10만원 /5월 25일 이숙희 불자님 3만원 반운병 불자님 3만원 이재덕 불자님 5만원 /5월 26일 이용헌 불자님 10만원 차상환 불자님 2만원 /5월 27일 이순조 불자님 5만원 우혜진 불자님 2만원 박상환 불자님 5만원 /5월 28일 차동호 불자님 1만원 김혜경 불자님 1만원 서은경 불자님 1만원 김은아 불자님 1만원 /5월 29일 조윤정 불자님 10만원 박상희 불자님 3만원 이연우 불자님 1만원 /5월 30일 김희옥 불자님 1만원

이밖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광주 '나눔의 집'에서 200만원, 화성 신흥사에서 60만원, 금산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모금액 45만원,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10만원, 한성포교원 법농 스님 20만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외 익명의 후원금 310만원이 답도했습니다.

※ 부처님 사리 이운식 및 친견법회는 6월 27일(토) 오전 10시 익산 미륵사지에서 열립니다.
www.mireuksa.org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 1370년의 시공을 넘어 우리곁에 다가 오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부처님 사리 친견법회 및 윤달 삼사순례

2009. 6월 27일(토) ▸ 7월 26일(일) 한 달간

•장 소 : 전북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호남고속도로 익산 IC에서 15분)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본·말사(전북사암승가회)
•문 의 : 금산사 063) 548-4441~2, 전북불교회관 063) 251-4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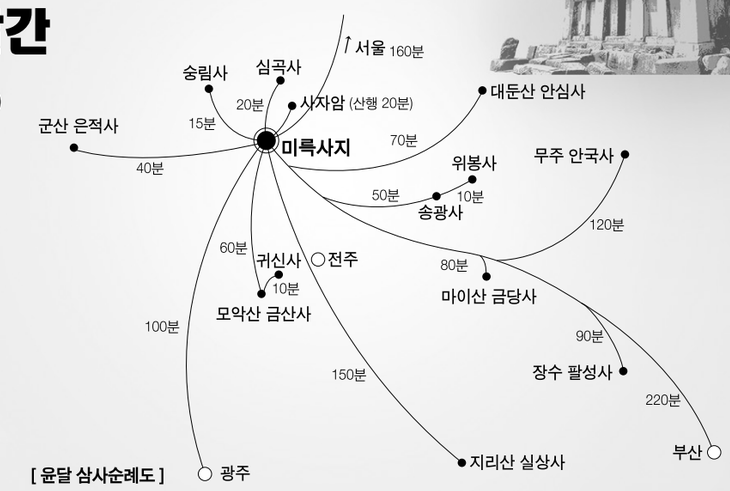






[불사리12과]





[윤달 삼사순례도]

【 미륵사지 부처님 사리장엄기 중에서 】 가만히 생각하건대, 法王(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감응하시고, (중생들의) 바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왕궁에 태어나셔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斛)의 사리를 남겨 삼천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그러니) 마침내 오색으로 빛나는 사리를 7번 요잡(오른쪽으로 돌면서 경의를 표함)하면 그 신통변화는 불가사의할 것이다. …〈하략〉

세종도로 약사사 등 관통

"보상문제 때문에 힘없는 사찰 쪽으로 변경" 강경대응

세종도로(제2 경부고속도로)가 남한산성과 지역사찰을 관통해 파문이 일고 있다.

6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입구에 자리한 약사사(주지 혜안) 앞에는 '전통사찰 파괴하는 도로사업 중지하라, 대웅전 250m거리 설치 결사반대 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세종도로 성남구간이 남한산성 위로 지나가는데 대한 약사사(여래종 본찰) 측 항의 표시다.

세종도로는 서울 동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까지 건립되는 왕복 6차선 도로. 총 6조 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6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고, 7월 중 기본조사를 거쳐 노선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남한산성 구간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된다. 문제는 남한산성 뿐만 아니라 각 사찰 인근을 지나 수행환경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이다. 약사사 대웅전에서 불과 250m 거리에 들어서 만덕 계곡, 남한산성 유원지와 약사사를 양분할 뿐만 아니라 영도사 50m, 백련사 150m, 덕운사 100m 등 사찰 주변도 관통한다.

약사사 측은 "도로공사는 1차 조사 때와 다르게 보상문제가 일자, 노선을 힘없는 사찰 쪽으로 변경했다. 5월 15일 생각지도 않은 교각설치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주지 혜안 스님은 "대웅전 750m 밖 성남외곽순환도로의 소음도 심한데 고가도로가 들어서면 더욱 피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각 사찰 뿐만 아니라 성남시, 여야 지역구의원, 주민 등도 반대하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은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도로공사 구간을 터널로 만들면 약 8km길이에 달하게 된다"며 "화재나 응급상황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 가급적 터널 구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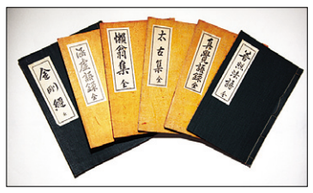
이에 대해 성남시와 지역구 의원들은 "계획안이 사실상 90%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유원지 입구 순환도로도 소음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시민이 많이 다니는 유원지, 등산로 한복판의 고가도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약사사의 서명운동과 더불어 남한산성이 자리한 수정구 지역위원회도 13일 유원지 방문객을 상대로 설치반대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보조법어' 등 월정사로 귀환

이철교씨 기증으로 고향찾아


70여 년 만에 월정사로 돌아온 불교전적들.

1930년대 오대산 월정사에서 펴낸 <보조법어> <진각어록> <함허어록> 등 불교전적 6권이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돌아왔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보조법어> 등 1937년과 1940년 월정사가 발간했던 불교전적 6책을 동국대도서관 前 사서과장 이철교 선생님이 6월 13일 기증해 왔다"고 6월 18일 밝혔다.

기증된 책들은 일본강점기 월정사가 출간한 책들로, <보조법어> <금강경>은 상원사 주지였던 보산 스님을 발행자로 한성의 창문사 인쇄소에서 1937년 간행됐다. <진각어록> <태고집>은 1940년 7월과 8월 월정사 주지였던 이종욱 스님을 발행자로 동산리 월정사 보제사(普濟社)를 발행소로 표기했다. <함허어록> <나옹집>은 1940년 5월 한성도서에서 인쇄해 월정사에서 발행한 책이다.

월정사 관계자는 "보제사를 발행소로 표기한 <진각어록> <태고집>은 월정사수련원의 결사를 가늠케 한다"며 "보조 국사의 수선사(修禪社), 보조사상의 정혜결사 등의 법맥을 잇는 근간으로서의 월정사의 위상을 제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책을 기증한 이철교 동국대도서관 前 사서과장은 인사동 고서점과 헌책방 등에서 구입, 소장한 고서 등 1만3000여 장서를 동국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교도소 첫 생전예수재 '화제'

대구교도소서 6월 16일 봉행


대구교도소에서 열린 재소자 생전예수재에서 스님들이 천수바라춤을 추고 있다. 원내는 용연사 주지 상원 스님.

3년 만에 찾아온 음력 5월 윤달. 전국 사찰에서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가 봉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씻고 바른 삶과 수행의지를 다지는 생전예수재가 교도소에서 국내 최초로 열려 화제다.

대구교도소(소장 한재준) 불교분과(위원장 상원)는 6월 16일 '제1회 참다운 나로 거듭나는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교도소에서 일반적인 법회나 위문공연 외에 처음으로 열린 예수재는 500여 재소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진행됐다.

대구교도소 불교분과 위원장인 용연사 주지 상원 스님의 원력으로 결실을 맺은 이날 예수재는 법요식에 이어 관음의식, 발원문 낭독, 천수바라, 회심곡 탑돌이, 사찰학춤 순으로 진행됐다.

상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소자 교화활동을 하면서 수감 중인 재소자를 위한 생전예수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중 한재준 소장님의 법회 허락으로 열게 됐다"며 "재소자들이 예수재를 통해 살아 있을 때 참회의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와 보시로 한층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교도소 불심회 채형두 회장은 "재소자들이 예수재를 계기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서 나가 올바른 행동과 남을 위한 배려로 열심히 살아가리라 믿는다"고 축사했다.

이상언 기자
손법천 대구지사장

박승숙 인천구청장 "개인 신앙생활일 뿐"

인불총 · 종평위 항의에도 발뺌

"언론의 뭇매를 맞아도 기독교 정신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등 종교편향 발언을 일삼아 온 박승숙 인천구청장(인천중부교회 장로)이 6월 13일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선일, 이하 인불총) 항의방문에서도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청장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 손안식)에 9일 공문을 보내 "특정종교 신봉 이유로 역차별 받는 결과"라고 사과하지 않은 바 있다.

항의방문에서 선일 스님은 "인천지역에서만 유독 종교편향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 자연인으로 개인적 종교신념은 인정하지만 그럴려면 구청장직을 포기하고 신행에 전념하라"고 비판하며 공개사과 및 공식사과문서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할아버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며 "5월 2일 있었던 성시화축전 초청행사 발언은 개인적 신앙생활 연속선상에서 한 발언"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구정방안을 개선해 관내 종교단체 행사시 적극 협조하고, 종교차별예방교육과 주요 사찰 문화재 발굴 및 사찰방문으로 인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노덕현 기자

"오체투지순례단 방북 불허는 폭거"

北 조선종교인協 6월 16일 비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월 16일 "조선종교인협의회는 묘향산까지 순례예정이던 오체투지 순례단의 방북을 남한 정부가 불허한 것은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수경 스님과 문유현 · 정종훈 신부 등 오체투지순례단은 6월 1일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지만 대북관계 악화로 방북 허가를 받지 못했다. 6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2차 순례를 회향한 순례단은 13일부터 북한 묘향산 보현사 통일기도법회를 시작으로 3차 순례를 계획 중이었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대웅전 등 문화재 지정 신청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6월 16일 경주 불국사 경내의 대웅전과 극락전, 석등 등 건조물 7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토록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기념물인 성주 옥천서원과 문화재 자료인 안동 생담정사, 영덕 만송당은 도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지정 문화재는 1763점으로 늘어났다.

조동섭 기자

"어린이포교법 알려주세요"

운문사 승가대학 요청으로 교육 열려


운문사 승가대학 어린이포교교육에서 특강하는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200여 학인 스님들의 자발적 요청으로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영유아 ·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지도자 양성교육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6월 15일 오전 7시부터 운문사 선열당에서 '제1회 승가대학 어린이포교 교육'을 실시했다.

동련 어린이청소년법회 교육지원팀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7시 입재식에 이어 포교부장 계성 스님과 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의 특강, 동련 사업부 동련 사업부 정일훈 팀장, 최미선 사무국장 등이 현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과 불교레크리에이션 찬불동요 율동 강습, 특강 등을 진행했다.

지현 스님은 특강에서 "탐 · 진 · 치 삼독을 버리고 계 · 정 · 해 삼학을 공부해 아이들에게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참불자로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운문사 승가대학에 이어 김천 청암사, 봉녕사, 동학사 스님들이 전문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손법천 대구지사장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 조직 발족

전국 450개 종교시민단체 · 민주당 등 동참

불교계가 참여하는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 조직이 발족됐다.

불교환경연대 등 전국 450개 종교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야 4당이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6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범국민대책위는 "4대강 사업은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이라며 "지난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고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6월 27일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족식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돈을 주워 모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대책위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 특위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一鵬尊者圓寂十三週忌追慕

일붕 서경보 존자 탄신 96주년 열반 13주기 추모 대제 만등불사


※ 1992년 세계불교 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초대법왕으로 추대되어 온 세계 중생들을 제도하시면서 세계 최다 박사학위 세계 최다 저서와 세계 최다 통일기원시비 건립과 세계 최다 선필휘호로서 기네스북에 5관왕의 기록으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계평화 남북통일 기원대법회
·
봉행위원회
·
법왕청 장학금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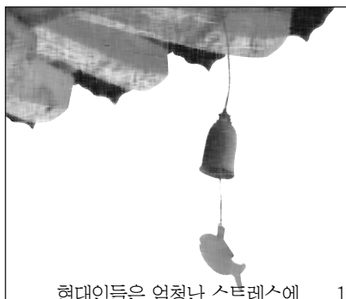
불기2553년 (서기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음. 윤 5월 3일)
증명 (부산 대각사) 고불 경우 큰스님

대 법 주 한국대승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법 주 법왕청 최고위원 동봉
고 문 IAEWP총재 찰스메르시에카 박사
봉행위원장 세계불교법왕청 최고위원 원각
집행위원장 재단이사장 담화
동원분과위원장 연합불교방송 사장 김소부
사 무 처 정지만, 이인애, 이정인

• 박사학위 : 전 세계 각국 유명대학에서 126개 학위취득
• 세계평화 남북통일 기원시비 758개소 건립
• 저서 : 문학, 철학, 종교, 한시 등 1,042종류 서적 50여만권 발행
• 157개국 5,300여 단체에서 세계법왕추대
• 112개국 1,044개 단체에서 존자칭호 추대

□주 최 : 일붕존자 탄신 96주년 및 원적 13주기 추모 대법회 봉행위원회
□주 관 :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일붕법왕문도회, 세계불교 고승총연합회
□후 원 : 법왕청신문, 법왕승가대학, 법왕청 문화복지재단, 불교일보, 법왕청장학회 CBC108TV.연합불교방송, 영문외교저널, 서울불교방송, 경기매일 서울불교방송, 경기매일, (주)동광인터네셔널
□일 시 : 불기2553년(서기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음. 윤 5월 3일)
□시 간 : 추모제 오전 10시 ~ 12시 30분까지
□장 소 :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제2 담화정사
□주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 7-1번지 **법왕청담화정사**
□연락처 : 043)296-1081 / 총무원 02)3217-3217

※ 일붕 큰스님 원적 13주기에 참석하는 모든 불자님들에게는 푸짐한 경품을 추첨합니다.



템플스테이에 가면?

영어교육도 있고~ 실직자 희망도 있고~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벗어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쉽지 않다. 보다 가치 있는 건강한 삶, 웰빙, 로하스의 삶을 살고 추구한다.

최근 한국관광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템플스테이가 특화 · 진화를 거듭하며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전국 100여 사찰은 '참 나'를 찾고 싶은 사람부터 어린이, 실직자 가정, 전역을 앞둔 군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방학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육이 눈에 띈다.

김천 직지사(054-436-6084)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의 영어캠프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MIT 출신의 원어민 교사가 교육을 맡았다.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8월 1~10일, 12~2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인당 50만원으로 특별한 영어캠프를 다녀올 수 있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02-6012-1731)은 8월 7일 충남 공주 마곡사 경내에서 '어린이 영어 담마 캠프'를 실시한다. 영어 참선지도, 물놀이, 영어 법회 등 간단한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생태의 보고 지리산 **남원 실상사**(063-636-3191)는 '생명평화 100배 서원 절 명상' '실상사 농장체험' '지리산 숲길 명상'등을 진행한다. 7월 15~18일, 23~25일(어린이), 29일~8월 1일, 8월 5~8일 실시한다. 화엄학림 학장 법인 스님, 연구원장 혜강 스님, 도법 스님 등의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실직자와 실직가족, 청년실업자, 이주노동자가 용기와 희망을 재충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템플스테이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제주 약천사는 '희망 일터강좌' '한라산 등반' 등으로 실직자들의 새 출발에 기반을 다져준다. 그 밖에 천연감물염색, 제주생태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구 동화사(053-985-4406)는 실직자와 이주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6월 19~21일 시작으로 3개월간 실직자를 위해 희망과 용기를 준다. 6월 28일에는 다문화 가정을 초대해 사찰예절과 순례, 다도체험, 한시 배우기 등 전통문화와 불교를 알리는 템플스테이를 연다.

밀양 표충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대나무 숲 참선, 어린이를 위한 <부모은중경>, 승마, 활쏘기, 땅짚고 일어서기 등 수련형, 휴식형, 승병학교 형식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템플스테이도 있다.

영월 법흥사는 '아빠 미안해하지마' '꿈주머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고창 선운사**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 소리 배우기' '소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화합에 초점을 맞췄다.

인제 백담사는 6월 19~21일 군 전역을 앞둔 군장병을 위한 '아름다운 병역 희망찬 전역', 실직자를 위한 '실업극복 직장 찾기'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단기출가 형태도 있다.

평창 월정사(033-332-6661)와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053-474-8228) 단기출가학교는 수계식과 삭발식을 시작으로 행자 경험을 한다. 월정사는 7월 1~23일, 대관음사는 1~15일 속세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본래의 나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찰은 1년 365일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다. 1인부터 직장인 단체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변경도 가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02)2031-2000, www.templestay.com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붓다 메디테이션 스쿨 개원

지운 스님 "불법 따라 명상 지도하고파"



붓다 메디테이션 스쿨 개원식에서 점안의식을 진행하는 스님들. 왼쪽이 지운 스님.

불교 명상이 붐을 일으키며 명상센터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수행법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이가 많다. 이에 前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이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붓다 메디테이션 스쿨 명상센터를 개원하고 올바른 수행법 알리기에 나섰다.

6월 16일 열린 개원식에서는 前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증명 법사로 모시고 포항 천곡사 주지 정오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지운 스님은 봉행사에서 "경전에 의거해 제대로 된 법에 따라 명상을 지도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자비의 불성으로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아픔과 슬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운 스님의 자비선 수행은 자비손(手)으로 몸의 현상을 관찰하는 자비수관(慈悲手觀), 자비수관(慈悲水觀), 자비향관(慈悲香觀) 수행과 차(茶)마심을 통해 내적 관찰을 하는 자비다선(慈悲茶禪) 수행이 있다. 자비선 수행은 내면에 내재돼 있는 자비심을 발현시킨다. 서로가 자비의 마음을 나누며 복잡하고 긴장된 사회생활로 몸과 마음이 불편해진 문제의 원인을 직관하도록 한다. 자비심으로 불평등과 불만족, 긴장과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이다.

붓다 메디테이션 스쿨은 2010년부터 2년 과정으로 자비수관, 자비다선, 유식, 중론 등의 경전 강좌와 자비선 실참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070)7724-8824

이상언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연꽃어린이 연합캠프

불레협, 7월 25 · 27일

참가인원이 적거나 운영이 어려워 여름불교학교를 하지 못하는 사찰을 위한 어린이 캠프가 열린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 이하 불레협)는 법회 참가인원이 30명 이하의 어린이 법회 사찰과 여름불교학교 운영이 어려운 사찰을 대상으로 7월 25~27일, 7월 27~29일 2차례 '연꽃 어린이 연합 캠프'를 개최한다.

전국 사찰 어린이 200여 명이 함께 하는 이번 캠프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진행되며 체계적이고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1인당 참가비는 숙식비, 기념품, 교통비 포함해 4만원이다.

불레협 관계자는 "연꽃 연합캠프는 어린이들에게 각 지역 어린이 법회 어린이를 만나 교류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며 "많은 사찰의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38-7860

이상언 기자

여성불자 108인 진솔한 신행담 담아

불교여성개발원, '마음의 빛으로' 출판기념회

여성불자 108인의 불교와 삶에 관한 이야기 <마음의 빛으로>가 출판됐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은 6월 16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제3차 여성불자 108인 <마음의 빛으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방송인 선우용녀 · 전원주씨, 혜총 스님, 정덕 스님, 이은영 원장이 출판기념회 축하공연을 경청하고 있다.

출판기념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원교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前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여성불자 108인 탤런트 전원주 · 선우용녀씨 등 150여 사부대중이 자리했다.

불교방송 이선희 아나운서(제3차 여성불자 108인)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인사말, 격려사, 축사, 축하공연, 불교여성개발원 바자 현장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여성불자 108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탈하고 생생하면서도 진실성 있게 담아 더욱 빛난다"며 "부처님의 지혜로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삶,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은영 원장은 "각 분야에서 보살행을 하고 있는 우바이들의 이야기가 어려운 이들에게 격려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의 빛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여성불자 108인들의 진솔한 신행과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6월 16~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지하 갤러리에서 불교와 여성의 발전을 위한 사업기금마련 바자도 열었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Wow~ 아름다워요 한국"

국제포교사회, 이주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6월 14일 외국인 이주 근로자 100여 명과 서울 문화유적을 돌아보며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몽골, 방글라데시 스님과 100여 명의 근로자들은 서울 조계사, 불교중앙박물관, 길상사, 창경궁, 국립서울과학관, 운현궁 등을 관람했다.

국제포교사와 각 나라 스님들은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합장의 의미와 하는 법, 사찰이나 법당에서의 예법, 탱화, 불상, 경전, 목판인쇄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자연과학 전시물, 과학의 발전 과정, 인체의 신비 등을 볼 수 있었던 국립서울과학관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밖에도 참가자들은 창경궁에서 영조대왕 오순생일 잔치(어연례) 재현 관람, 전통 의상과 혼례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방글라데시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는 제14기 기초불교영어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7월 11일부터 9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열리며 불교교리, 역사, 부처님의 생애, 문화 등 불교 전반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 (02)722-2206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금정 스님 무료 불교 선요가= 대원불교문화대학이 네팔에서 10년간 전통 선요가를 수행한 금정 스님의 무료 불교 선요가 특강을 마련했다. '선요가' 강의와 함께 '유식 30송'에 대한 강의도 진행된다. 강의는 7월 2일~8월 28일 매주 목, 금 오후 3~5시, 오후7~9시 대원불교문화대학 3층 다보원법당에서 열린다. (02)707-1072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 진행= 상좌불교 한국명상원(구 한국위빠사나 선원)은 7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2시 제 20차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을 진행한다. 한국위빠사나선원 이종숙씨가 지도하며 수행에 대한 이론 60분, 경행 30분, 좌선60분, 면담의 순으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15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한편, 7월 5일 오후 2시 대구 구도회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회를 봉행한다. (02)512-5258

●'위빠사나 아나빠나삿띠' 집중수행= 위빠사나붓다선원은 6월 25~29일 오후 4시 충남 전동면 붓다라마(구 지장사)에서 '위빠사나 아나빠나삿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수행자 개인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일상에서도 수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김열권 법사가 지도한다. 참가비는 10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41)868-3119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1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대한불교 금강종

봉행 나라안정 기원 및 합동 보살 수계 대법회

삼보님 전에 지심 귀의하옵고,
본 종단의 종지종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에 따라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전미개오(轉迷開悟)하여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하며 마침내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반야지혜(般若智慧)를 깨달아 정법(正法)을 구현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행동하는 데 신구의(身口意)를 떠난 것이 없기에 신구의로써 모든 악행(惡行)을 안하고 선행(善行)을 한다면 이보다 완전한 것은 없으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망경은 대승(大乘)의 계본으로 보살이라면 꼭 지켜야 할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가 나옵니다. 기축년 윤 5월을 맞아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고 보살의 신심을 더욱 돈독히 하여 불교의 중흥과 나라경제의 안정을 성취코져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뜻 있는 여러 강호의 불자들께서는 종단을 초월해서 일불제자(一佛弟子)라는 근본으로 수희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7월 2일 (음력 윤5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456번지 (인각사)
■ 전 화 : 053)985-8118 / 011-406-8538 (사무총장)
■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
■ 대 법 주 : 종정 무학 송천 대종사
■ 증명법사 : 덕인, 법산, 무중, 월서, 무상, 법천, 법화, 법일, 도공 합장
■ 준비위원장 : 학산 정대 ■ 추진위원장 : 법천 지산 ■ 봉행위원장 : 법산 영봉

(사) 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

“수행·복지·포교에 지역민 위한 마음까지 담았죠”

최대·최고·최초 수식 붙으며 고창 선운사 변모… “아직 할 일 많아”

선운사 주지 취임 2년 법만 스님

전북 최대의 복지관 운영, 교계 최초의 승려노후수행관 설립,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사회와의 연대 등.

고창 선운사에 최대 · 최초 · 최고의 수식어를 붙게 한 주지 법만 스님. 스님 역시 주지선출 당시 세랍 45세로 최연소 교구본사주지였다. 최연소로 당선된 것 만큼이나 법만 스님의 경력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스님은 30여 년 승랍 중 산중에서 25년, 선방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수좌다. 20여 년 전 선운사 총무직과 산내 암자 참당암 선원장을 역임했을 뿐 그 흔한 말사 주지 한번 한 적이 없었다.

선운사는 가장 낙후된(?) 조계종 교구본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서해안고속도로로 길이 뚫리면서 외지였던 전북 고창에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람이 오가며 활기를 더한 선운사에 2007년 법만 스님이 제15대 주지로 취임한 이래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진정성 바탕, 수행과 포교에 매진

“<보왕삼매론>의 ‘일이 잘 풀릴수록 항상 경계하라’는 말씀을 늘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뷰 요청이 더러 있었지만 사양했습니다. 넘치고 쌓여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자와 마주 앉은 만세루도 법만 스님의 말처럼 저절로 드러난 공간. 만세루는 그동안 창고처럼 쓰이던 공간이었다. 법만 스님은 취임 후 만세루를 비우고 다탁을 놓았다. 창고로 쓰이던 만세루가 지금은 누구나 차담을 나누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주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스님의 본사운영 기조는 ‘강학(講學)과 수선(修禪)의 도량’이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된다.

출가자로, 무엇보다 20여 년을 선방에서 수행한 수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수행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선운사를 이끌어왔다.

넉넉하지 않은 절 살림에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승가대학과 내소사, 월명암, 참당암 등 교구 내 선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법만 스님은 “제방선원과 각 교육기관에서 수행정진 중인 문도들에게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문도로서의 자긍심과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수행에만 치우치지도 않았다. 스님은 “포교는 불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법만 스님은 취임 후 만세루를 개방해 신행 상담과 불교문화 체험 공간으로 확보했다. 다도 등 선운사만의 독특한 소재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계간지 <선운> 등을 통해 문서포교에 힘쓰는 한편, 신도회 및 공무원 불자회 등 신행단체를 구성 · 복원했다.

#지역사회 선도하는 교구본사

특히 올해 중 고창 읍내에 불교회관 및 체육시설이 착공되면 선운사는 고창지역 복지는 물론 사회체육까지도 선도하게 된다.

선운사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등 4곳의 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만 40억, 종사자 120여 명의 전북지역 최대 복지관으로 농촌지역 지역복지 모델로 평가 받는다.

복지관장 무공 스님은 “매일 300여 어르신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민들의 성원이 크다”며 “소박하게 운영을 시작했는데 복지관을 통해 선운사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지역 어르신 행복지수도 함께 높아졌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2010년 고창군종합복지관을 통해 전통음식체험관을 건립한다.

전통음식체험관은 전라도 손맛과 사찰음식의 장점을 살려 폐백 · 잔치 음식을 갖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에 나서게 된다.

교계 최초의 승려노후수행관 ‘석상마을’은 법만 스님이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사업이다.

스님은 “평생을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하더라도 노후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며 “노스님들이 반농반선(半農半禪)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 법만 스님은 창고로 쓰이며 방치되다시피한 이곳을 차담공간으로 바꿔놨다.

#선운사만의 문화콘텐츠 강화

이와 함께 법만 스님은 문화와 생명 환경 등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선운사만의 문화 아이콘을 고민했던 스님은 보은염 이운과 석전 스님에 주목했다.

“선운사 하면 동백숲이나 가을 단풍을 떠올립니다. 수동적 볼거리를 탈피해 선운사 역사와 인물을 홍보하고 선양하기 위해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1500년 전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스님에게서 비롯된 보은염 설화를 재현해 정기적으로 보은염제를 열었다. 또 근현대 불교선구자 석전 박한영 스님의 기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석전 스님 기념사업은 자료집 발간과 9월 20일 열릴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이에 앞서 7월 중에는 석전 스님이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독립유공자로서 선정될 예정이다.

법만 스님은 “금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백파사상연구소 설립과 조사전 준공을 완수하고, 2011년에는 석전 스님의 저술을 한글화 하고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만 스님의 실용적인 사고는 소비지향적인 행사로 변질됐던 산사음악회를 불교와 대중이 불교예술과 사상으로 만나는 소통의 자리로 탈바꿈시켰다.

9월 19~20일 선운사가 ‘선운사 1500년, 그 역사의 향기를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제2회 선운문화제는 지역민들과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이 될 예정이다.



조계종 제24 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주민 외면하면 사찰도 외면 받아

선운문화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선운사 행사에는 지역주민 직거래장터가 마련돼 고창특산물과 친환경 먹거리 등이 판매된다.

이는 “주민을 외면하면 사찰도 외면 받는다”는 법만 스님의 마인드 때문.

스님은 절집 안 행사였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지역어울림마당으로 확 바꿨다. 또 정기적으로 선운사 인근 마을 이장들을 초청해 이장단 회의를 열고 주민의 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해소하는데 힘써 온 법만 스님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의료봉사 및 문화공연과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2000여 전북지역 청소년이 함께 하는 동백연 축제를 진행해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미당시문학관 이사장인 스님은 선운사와 시문학관을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구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스님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선운사를 만들고자 선운문화공동체를 건립할 계획이다. 선운문화공동체에는 웰빙 사찰음식 체험관과 차문화체험관, 근대문학기념관 등이 갖춰지게 된다.

법만 스님은 “당대도 아니고 언제일지 모를 후손을 위해 바닷가에 향을 묻는 침향제를 복원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열린 경영, 투명한 재정 공개가 믿음의 시작

법만 스님이 지난 2년 여 동안 선운사에 몰고 온 변화가 있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스님은 “주지 취임부터 지금까지 문중 어른스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선운사를 투명하고 열린 구조로 운영하고 싶다는 원력에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무행정의 시스템화에 주력했다. 교구 스님이 174명에 불과한 작은 본사인 까닭에 7직 중 교무국장과 호법국장도 비어있다. 법만 스님은 부족한 출가자를 23명의 재가종무원으로 대신했다.



기증 받아 채워지고 있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의 도서관에는 아직도 책이 많이 부족하다.

매주 종무회의를 통해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고, 시간을 내 말사를 돌며 교구본사 곳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했다.

스님은 취임 후 종무원 수를 7명 늘리는 한편, 종무원들의 급여를 50% 가까이 올렸다. 재가종무원을 ‘신심으로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여긴 법만 스님의 배려 때문이었다.

말사주지 인사도 계파나 계열을 초월해 포교와 불사, 복지, 문화, 지역사회와의 연대 등에 능력과 원력을 가진 스님들을 기준으로 단행했다.

#초심 잊지 않으려 취임사 항상 머리 맡에

법만 스님은 취임사를 머리맡에 두고 산다. “원융살림으로 부처님 정법이 살아 숨쉬는 수행과 교화의 도량을 가꾸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스님은 “수좌의 삶에 있어 주지 소임은 외도 중이다. 지금 행복한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다”며 “4년 임기 동안 열심히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만 스님은 “선운사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혼자 단시간에는 어렵다. 사부대중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주지로서 선운사를 대중과 함께 하는 열린 운영을 했다는, 선운사의 틀과 흐름을 바꿨다는 소리만 듣는다면 내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三耳室 圓學 스님
招待展

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에서는 南宗畵의 전통을 계승한 三耳室 圓學(총무원 총무부장)스님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94년에 이어 15년만에 작품전을 여는 원학스님의 그림은 淡白한 水墨과 俗氣없는 맑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禪畵一體를 간직한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梵 河

개막식 _ 2009년 6월 29일(월) 오후 4시

2009. 6. 29.(월) ~ 7. 6.(월)

전시장소 _ 불교중앙박물관 나무 갤러리



불교중앙박물관 나무 갤러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의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실 02)2011-1960~9

이웃 종교 RELIGION

해외 단기선교철 세미나 개최

피랍인 사망소식에 위기대책 논의

예멘에서 피랍된 한국인 엄 모 씨(34 · 여)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신교계는 단기선교철을 앞두고 위기대책에 나서고 있다.

개신교계는 해마다 7~9월 여름 휴가철에 단기로 해외 선교 또는 봉사 여행을 떠나는 단기선교팀을 단체 · 교회별로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는 2007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 샘물교회 신자 23명이 납치돼 국민적 반감을 샀던 것을 비롯해 2009년 1월에는 개신교 봉사단체 '인터콥'이 정부가 여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국가로 봉사활동 및 단기선교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전례들을 감안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7월 2~3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단기팀을 위한 위기 대처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KWMA 관계자는 "한국인 여성피랍, 사망과 관련해 교계 안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며 "여름 단기팀의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시점이고 테러를 비롯한 위기상황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한국교회의 단기팀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KWMA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지원을 받아 단기팀의 위기 유형과 상황별 대처방안을 정리한 '단기팀 위기관리 이렇게 대처하라'는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인천세계도시축전 성시화운동

개신교계의 '선교의 장' 될까 우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개신교계의 선교의 장(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2009년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준비하고 있다. 8월 7일~10월 25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박람회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삼열, 이하 인기총)는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에 맞춰 체계적으로 성시축전 준비활동을 하고 있어 전국을 성시화하려는 의도가 내비춰지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박삼열(송월장로교회) 목사는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6~8일 인천에서 열리는 성시화 대회를 앞두고 6월 15일부터 4일간 인천지역 227개 교회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전도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목사는 "인천시민의 자긍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지금이 인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서 성시화운동에 맞춰 구체적인 활동 지침 사항까지 만들었다. 인기총은 6월 국제기드온대회, 7월 CCC 전도요원 1만 명 인천 투입 등을 통해 10월 인천 세계성시축전을 준비하면서 개신교 자원을 총동원해 식량 · 청년진로 · 사이버폭력 · 일부다처제 · 미혼모 · 마약 · 동성애 등에 대처하는 등 지역사회에 개신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종교편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계종종교차별위원회는 6월 6일 은해사에서 종교차별 권역별 교육을 첫 실시했다. 이어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2차 교육을 실시, 지역 종교편향 감시 네트워크를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이나은 기자

'독거노인 100만 시대'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이어져

외로움과 가난의 현실로 개종 선택… 불교계의 체계적인 복지포교 필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어르신들이 한 사찰 복지센터에 모여 밑반찬꾸러미들을 챙기더니 하나 둘씩 어디론가 사라진다. 아직 재개발되지 않은 달동네 지역이어서인지 골목길이 걷기에는 가파르지만 밑반찬 배달 봉사를 3년째 해온 임경호 어르신(80 · 북아현동)에게는 식은 죽 먹기다. 임 어르신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니 생각한 것 보다 참담한 곳도 많았고 사회적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성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매주 우리를 기다리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있는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함께 배달봉사 하는 이재삼 어르신(67 · 북아현동)은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월 2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용돈 벌이도 되고 보람도 있다"고 흐뭇해했다.





서대문구 수효사 효림원의 어르신 봉사자가 독거어르신에게 밑반찬배달 봉사를 하는 모습. 효림원은 20여 년 동안 독거어르신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을 위해 자비행을 베풀어오고 있다.

이들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효사 효림원(원장 무구)에 소속된 봉사자들. 60세 이상인 65명의 어르신들은 매주 화, 금요일 108가구의 독거노인에게 밑반찬배달 및 반찬조리봉사 활동을 해왔다. 이 밖에도 어르신잔치, 독거어르신 가정방문 안부 묻기 등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독거노인 수는 98만 명, 전체 노인인구의 18.8%를 차지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0년 독거노인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로 미뤄볼 때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만 17만 명에 달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독거노인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효림원이 펼치는 밑반찬배달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받는 김영주(75 · 여) 어르신은 "반찬이 참 맛있다. 시장에 안 가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 되고 좋다"고 말했다. 한은생(82 · 여) 어르신은 "다리가 불편해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반찬도 주고 도와줘서 너무 좋고 봉사자들이 수고가 많다"며 고마워했다.

효림원 황경자 주임은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일거리가 없는 분들인데 배달봉사활동으로 월 20만원을 벌 수 있어 용돈도 되고 다들 좋아한다"며 "어르신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만족감도 크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 ·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의 소득 보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불만사항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효림원의 봉사자 어르신은 "노인일자리를 등록하면 1년 동안 복지부에 등록되는데 7개월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은 자원봉사를 해야한다"며 "용돈벌이보다 생계를 위해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아쉽기 때문에 급여 지급기간을 더 늘렸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불교계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포교활동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독거노인 7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구 지역은 개신교가 타 지역보다 오래전에 뿌리내린 곳이기도 하다. 이곳 일대가 대부분의 개신교 복지계가 장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대문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불교계 복지시설인 효림원이 주2회 배달봉사를 한다면 개신교 복지단체들은 주5회를 하는 식이다.

효림원 관계자는 "목사님과 신도들이 조직을 만들어 직접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지역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개신교 신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교계의 관심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효림원 관계자는 "노령인구 중 상당수가 불교를 종교로 여기고 있지만 사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신행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자연스레 조직적으로 왕성하게 선교활동하는 이웃종교로 개종하게 된다"며 "사찰에서 외형적인 불사나 행사보다는 외롭고 힘든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찾아가 모셔오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가난이라는 현실로 개종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님과 신도가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포교가 필요할 때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실버문화벨트 노인문화 사업 본격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전문상담센터 개소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 · 이하 복지센터)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문화벨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노인문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센터는 서울시 新 노인정책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르신 전문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상담센터는 노인 인권 보호 및 노년의 다양한 고민해결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상담(02-723-9988)을 실시하며 상담내용으로는 △생활지원상담(노년기 경제적 생활안정) △심리상담(우울 · 불안 · 자살생각) △성상담(부부생활 및 성관련) △학대 상담 △소비자피해사례 상담과 같은 전문가 연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가섭 스님은 "노인문화의 중심인 종로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어르신 전문 상담센터를 개소해 어르신 중심의 편안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열린 상담센터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복지센터는 노인문화사업의 일환으로 6월 13일 교동초등학교에서 '9988 추억의 운동회'를 16일에는 종로 운현궁에서 '노락당(老樂堂) 과거제'를 열었다.

이 밖에도 복지센터 부설기관인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02-6911-9583)에서는 6월 17일~7월 3일 2주간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나은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불자연예인 김병조, 김혜옥씨 위촉

코미디언 김병조 씨와 탤런트 김혜옥 씨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생명나눔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6월 18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3년 동안 홍보활동에 전념하게 될 두 사람은 홍보대사 승낙서에 서명을 한 뒤 장기기증 신청서를 작성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이나은기자



왼편부터 김혜옥 씨, 일면 스님, 김병조 씨.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百超歸藏術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720면/정가 각120,000
십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애국·생활·대중불교'로 지상불국 실현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천태종단의 3대 지표' 학술대회

천태종이 상월 스님(1911~1974)에 의해 중흥된 지 40여 년이 지났다. 짧은 역사에도 천태종은 신도 수 200여 만명으로 조계종, 태고종과 한국불교 3대종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상월 스님은 천태종을 세우며 실천강령으로 천태종 3대지표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강조했다. 스님은 천태종 3대지표를 통해 지상불국의 실현을 발원했고, 지상불국을 위한 천태종도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이 6월 13일 우면산 관문사에서 '천태종단의 3대 지표'를 주제로 2009년도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행사에서는 권기종 원장을 비롯해 김상현 · 정병조 동국대 교수, 이필원 청주대 외래강사, 박소령(동국대 박사과정)씨, 이길주 제주대 외래강사 등이 발표했다.

#진리 수호가 호국 · 애국의 길



김상현 교수(사진)는 주제발표 '애국불교의 이념과 성격'에서 "애민애족은 불교의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또 다른 표현"이라 주장했다.

상월 스님은 교시문에서 "불교는 국가 민족과 흥패의 운명을 같이해 교운이 융성할 적엔 국운도 융성했고 교운이 쇠퇴할 적엔 국운도 쇠퇴했다"라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호국적 성격은 <인왕경(仁王經)> <금광명경(金光明經)> <법화경(法華經)> 등 호국삼부경과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봉행됐던 수많은 법회, 의승병의 활약에서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의 호국불교사상은 삼국통일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됐다. 고려시대에는 거란과 몽고의 외침을 물리치기 위한 대장경 조판과 항마군으로 불리는 의병의 활약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당시 서산 · 사명 등 의승장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 교수는 "애국불교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한다"며 "애국불교는 (호국불교)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애국불교는 "일언일구(一言一句)의 은혜나 일사일물(一事一物)의 은덕도 잊지 말고 보사(報謝)하라"는 상월 스님의 지은보은(知恩報恩)의 가르침에서 시작됐다.

김상현 교수는 "상월 스님은 국가사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을 걱정했다"며 "애국불교의 실천과제로 도의 재건, 사회 정화, 복지사회 건설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애국불교의 실천과제는 당시의 새마을 운동 등 사회적 운동과 반공정신에 바탕한 자주국방의식과 맞물려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김 교수는 "상월 스님이 '불교도는 반공정신으로 무장하고 총력안보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한 것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로부터 불교를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현 교수는 "<금광명경>의 '호국은 4제의 경계를 지키는 것(護四諦境名護國)'이라는 말은 호국이 진리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의미"라며 "호국의 '국(國)'은 어떤 한 국가나 국토만을 의미하지 않고 내 몸과 가정 사회 국가 등이 모두 나라이고 국토"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은 자기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요, 국가를 위해 진췌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위함"이라며 "애국불교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생활과 불교적 이상 소통



정병조 교수(사진)는 '생활불교의 이념과 실천'을 통해 "생활불교는 불교가 생활문화진흥의 주체로서 그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상월 스님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500년의 억불로 불교계가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점복 등이 만연했던 모습에서 상월 스님은 기도 예참에 주목해 생활 속에 불교의 진리를 실행하고자 했다.

정 교수는 "생활불교는 불교가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는 현실과 유리됐던 기성 불교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라고 말했다.

생활불교의 실천덕목은 △기복불교에서 작복(作福)불교의 지향 △유한(遊閑)불교에서 생산불교의 지향 △우상불교에서 실천불교의 지향 △생활 즉 불교의 이념 실천이다.

<천태종약전>은 이를 다시 지혜복덕 창조, 주경야선 정진, 생산불교 개척으로 요약했다.

정병조 교수는 "생활불교의 실천덕목은 생활 그 자체가 곧바로 불교적 이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라며 "생활불교의 핵심은 생산불교 즉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 복을 바라는 믿음에서 복을 짓는 인연을 쌓은 불교로의 질적인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관념불교에서의 탈피는 생활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상월 스님은 올바른 삶의 방편으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열가지 죄업을 소멸하는 삶인 십선업을 강조했다.

십선업은 △산 목숨을 해치지 않는 일 △주어지지 않은 물건을 빼앗지 않는 일 △그릇된 이성관계의 근절 △망령된 말을 멀리하기 △속이는 말 하지 않기 △이간질시키는 말 삼가기 △악담이나 욕 하지 않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 없애기 △원한이나 성내는 마음 품지 않기 △그릇된 견해 버리기 등이다.

상월 스님은 올바른 생활의 완성은 부모 · 자식간의 윤리, 정당한 남녀관계, 스승과 제자의 윤리, 국가 · 사회의 도의 등 윤리 재건에 있다고 여겼다.

정 교수는 "생활불교는 인간복귀 운동"이라며 "현재의 도덕적 공동현상에 한국대표 종교인 불교와 개신교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병조 교수는 문화의식 고양의 장으로서 사찰을 개방할 것과 불교의례의 개선, 불교단체의 상업화 경향을 불식시킬 것 등을 주장하며, 사찰단위의 생산적 사업을 장려하자고 제안했다.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권기종 원장(사진)은 주제발표 '21세기 새불교운동으로서의 대중불교'를 발표했다.

대중불교는 사부대중의 불교를 뜻하는 말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종단 운영도 함께 하는 불교다.

권 원장은 "한국불교는 출가자중심의 산중불교다. 사회가 불교를 위해 존재하며, 신도가 절을 위해 있는 것으로 전도돼 왔다"며 "상월 스님은 전통적인 승가중심의 출가불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불교를 모색하던 중 대중불교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상월 스님은 대중불교의 수행법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염불수행을 채택했다. 또 계율을 재해석해 승단의 중심계율을 십선계(十善戒)로 한정하고 번쇄한 계목(戒目)들을 축소했다.

권기종 원장은 "대중의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출가자는 담을 낮춰야 하고 재가자도 출가자와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했다"면서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보편적 불교가 되기 위해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벗어난 십선계 중심의 교단이 탄생됐다"고 설명했다.

천태종은 대중불교를 위해 사원의 도시화 · 개방화 등을 이뤘다. 신도가 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이 신도를 찾아 도심에 자리 잡았고, 신도교육 비용은 모두 종단이 부담하고 있다. 또 천태종 사찰을 1년 365일 24시간 개방해 누구나 수행공간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원장은 "상월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천태종에서는 출 · 재가자가 함께 수행하고 종단 운영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미래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천태종의 3대 지표는 오직 구제중생이라는 근본서원을 바탕으로 자리이타의 대승불교를 구현하는 실천수행"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차마교역 이끈 마방의 삶을 보다

국립중앙博 8월 16일까지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특별전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관심을 끌었던 동서교역로 '차마고도(茶馬古道)'와 관련한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6월 16일~ 8월 16일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차마고도'라는 이름은 대표적인 교역품의 명칭을 빌린 것이다. '차마고도'는 서남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 티베트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유목문화권과 중국 남부 원난 · 쓰촨성을 잇는 교역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해 화정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 대원사 티벳박물관, 실크로드박물관, 티베트박물관 등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차마교역의 카라반을 이끈 마방(馬幇)의 인생 여정에 맞춰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으로 구성됐다. 여섯 개의 주제에 따라 △'희망의 길, 차마고도를 향해 떠나다' △'차의 고향, 운남과 사천에 도착하다' △'행복한 발걸음, 집으로 돌아오다', △'소금교역,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가다' △'오체투지, 샹글리라를 찾아가다' △'죽음 그리고 환생, 자연에 순응하다'의 순으로 이뤄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차마고도 특별전 전시물 중 '만다라'.

전시 마지막 부분에는 스웨덴 탐험가 스벤 헤딘(Sven Hedin, 1865~1952)이 1906~1908년 촬영한 티베트 사진이 전시된다. 사진들은 스웨덴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최초 공개한 자료로 100년 전 티베트 인근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기존의 티베트 관련 전시가 밀교예술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전시는 종교예술 이외에도 차마고도상의 다양한 민족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차마고도인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차마고도 상의 다양한 민족에 의해 영위되었던 예술세계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 기간 중에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을 총괄한 KBS 김무관 PD의 강연회 및 초등학생을 위한 전시실 활동지 배포 그리고 룽다 깃발 만들어보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 연계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체험가방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go.kr) 참조. 선착순 접수. (02)2077-9552

조동섭 기자

'종교예술'이란?

고려화불학술硏

계태사 고려화불 학술연구소(소장 혜담)는 6월 12~15일 '예술, 치료 그리고 영성'을 주제로 양양 낙산 비치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혜담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혜원 스님을 비롯해 당 티란 베트남 국립대 교수, 윙관람 중국 칭화대 교수, 스티븐 페스마이어 일본 교토대 박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혜담 스님은 "이번 행사는 종교예술이 표현하는 궁극적 지향성과 치유적 성격을 조망하고 오늘날 요구되는 영성적 가치와의 합일을 논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삼국유사' 심층 연구 우선돼야"

군위군, '21C 문화코드 삼국유사' 세미나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학제간 연구 등 심층적이며 종합적인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



6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맨 왼쪽이 김상영 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발표 '<삼국유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에서 "삼국유사학이라는 영역이 가능할 정도로 <삼국유사> 연구는 종합학문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강조했다.

미래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이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적 문화유산 원형으로 <삼국유사>가 주목받고 있다. <삼국유사>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한국판 <해리포터>를 꿈꾸는 자리에서 <삼국유사> 연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경북 군위군은 6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1세기 문화코드로 바라보는 삼국유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교수는 "저자 일연 스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삼국유사> 판본 수집과 정리를 바탕으로 학제간, 학자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삼국유사> 연구를 위해 (가칭)삼국유사학회나 삼국유사연구원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訃 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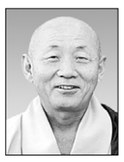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예천 연꽃마을 이사장이신
정안당 흥법 대선사께서 세연 이진하여
2009년 6월 17일 0시 41분 열반에 드셨습니다.

■ 49제 일시 : 2009년 8월 4일 오전 10시 (음력 6월 14일)
■ 49제 장소 :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234번지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
대한불교조계종 법흥사

•상좌 : 수진스님
•이사 : 이양우. 송균호. 정막동. 지오식
•감사 : 고성기. 서영환
•유발상좌 : 박재성. 백상현. 박대수. 김민우. 김동원
•재가유족 : 서경석. 서민석. 서남석. 서윤하

연락처 : 054)653-7714

일주문



진불선원서 초청법사로 법문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은 6월 28일 부산 동구 범일동 시민회관 뒤에 자리한 진불선원 봉안법회에서 초청법사로 법문한다.



인드라망, 2009화엄광장 개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7월 3일 서울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新대승불교운동을 제안한다'로 1차 화엄광장을 연다.(02)576-1886



진각종 제62주년 창교절 기념불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6월 14일 제62주년 창교절을 맞아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창립 13주년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 영담 스님은 6월 23일 오후 6시 서강대에서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조계사, 故 노 前 대통령 5재 봉행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6월 26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노 前 대통령 장남 노건호씨가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 5재를 봉행한다.



제1회 나혜석 생가거리미술제

수원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은 6월 30일~7월 4일 '나혜석 생가거리 미술제 기념 지역 중견작가전'을 연다.(031)245-9670



불교미래사회硏, 불교미래사회포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6월 26일 전법회관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초청, 제5차 불교미래사회포럼을 개최한다.(02)725-4277



마주협, 재한몽골인 위한 나담축제

마주협 회장 보림 스님은 7월 5일 몽골근로자 500여 명과 함께 동대문 몽골포교당에서 재한몽골인을 위한 '제1회 나담축제'를 개최한다.



'연 소비자 모임' 발족식 열어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강화군에 이어 6월 15일 김포시에서 '연소비자 모임 발족식'을 열고 연 소비시장 확대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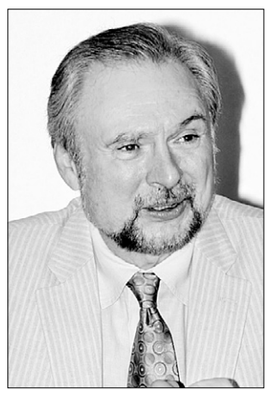


불교방송 철야정진 5주년 기념법회

불교방송 포교사업단 안병록 단장은 7월 4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BBS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2)705-5308

"한국불교학자 업적 알리기가 최우선 과제"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대원장 로버트 버스웰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대원장에 푸른 눈의 불교학자가 임명됐다. 불교학술원은 동국대 산하 불교학술기관인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연구소, 동국역경원, 종책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한 교책 연구기관이다.

"동국대가 세계 속의 한국불교학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교학술원과 외국 대학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UCLA · 사진)는 6월 15일 오영교 총장에게 사령장을 받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불교학의 석학인 버스웰 교수는 1974년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출가해 '혜명'이란 법명을 받고 5년간 수행했다. 1985년 UCLA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을 비롯해 지눌 스님 전집을 번역하는 등 한국불교 소개에 앞장서 왔다. 이런 공로로 1994년에는 불이상을, 2008년에는 만해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버스웰 교수는 최근 불교학자이자 한국학 전공자로는 처음 아시아연구협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회장 취임 후 첫 행사를 한국불교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AAS 소개 브로셔 표지에 송광사를 싣는 등 지한파(知韓派)를 넘어선 애한파(愛韓派) 학자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외국인 학자로서 동국대와 외국 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이 나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외국의 불교학자와 한국 내 학자의 교류에 힘쓰는 것이 내 역할이고, 그것이 한국불교학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학의 최우선 과제는 외국에 한국학자의 업적을 알리는 것"이라며, 한국불교 주제의 국제학술행사 개최, 한국불교학자의 해외 학술행사 등 참여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비롯해 UCLA 교수, AAS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동국대에는 여름방학 3개월, 겨울방학 1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소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명쾌하게 말하는 버스웰 교수가 동국학술원과 한국불교학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크다.

조동섭 기자

"지역민과 상생 도모할 것"

재임 중간보고한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임기 반환점을 앞둔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사진)은 6월 16일 재임활동 중간보고를 통해 남은 임기 보다 활발히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노현 스님은 "법주사는 지역사회 속에 역할을 극대화해 위상을 재정립하는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찰 생태 및 경내 보존개발 계획도 실시해 지역불자들과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주사는 현재 관내 26개 초 · 중 · 고교생 60여 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초청행사 △보은 어르신 한마당 개최 △충북도민 안녕 기원법회 △보은 유등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노현 스님 임기 2년 동안 보수불사도 대거 진행됐다.

팔상전 계단 보수를 비롯해 대웅전에 방연제 도포작업이 이뤄졌으며 무이당 교량이 개축됐다.

노현 스님은 남은 임기동안 △템플스테이 문화관 건립 △달천하도준설 및 정비 △탈골암~세심정 포장공사 △원통보전 · 진해당 보수 △소방방제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현 스님은 "사찰은 불교 수행 · 신행처 일뿐만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역할까지 지니고 있다. 현재 고립돼 있는 각 사찰, 특히 대형 사찰들이 지역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 때 불교의 미래는 보다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동국대, 신승훈씨와 손잡아

6월 10일 60억 규모 MOU 체결



왼쪽 세 번째부터 신승훈씨, 오영교 동국대 총장.

동국대와 가수 신승훈씨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선도를 위해 손을 잡았다.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가수 신승훈씨가 설립한 도로시컴퍼니(대표 김용태)는 6월 10일 60억원 규모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콘서트 뮤지컬 제작 △한류콘텐츠 개발사업 △글로벌 OSMU콘텐츠 공동개발 △에듀테인먼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실무진행은 동국대 학교기업인 '동국아트컴퍼니'가 맡는다.

우선 가수 신승훈의 국내콘서트를 비롯해 연극 · 뮤지컬 등 공동제작과 연극 '햄릿'의 일본공연, 전래동화 DVD전집(한국어 · 영어 · 일본어) 공동제작, 예술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사업 등이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배도용·구현옥 교수, 삼광한글학술상





배도용 부산외대 교수(사진 왼쪽)와 구현옥 동아대 외래교수(오른쪽)가 제22회 삼광한글학술상을 수상했다. 삼광한글학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화산)는 6월 13일 부산 삼광사에서 제22회 삼광한글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배도용 교수는 한국어 어휘 의미의 지평을 한 단계 넓혔고 한국어 교육법 연구 등에 이바지 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어 "구현옥 외래교수는 지속적인 지역 말 연구와 다년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해 한국어의 위상을 널리 알려왔다"라고 수상 사유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선학원 법진 스님 자비나눔에 1000만원 전달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6월 18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조계종 행사에 언제든 마음을 내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민불협, 호국영령 천도재 봉행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는 6월 13일 경남 양산 서창고 강당에서 제3회 호국영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오근선 양산시장, 정재환 양산시의회의장 등 기관장과 보훈가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임연태 기자

호국광명사, 일면 스님 초청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6월 12일 28사단 호국광명사에서 교구장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초청법회에는 일면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원광사 주지 종오 스님과 성보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낙산사, 양양군에 지원금 전달



낙산사(주지 정념)는 6월 17일 양양군을 방문해 이진호 군수에게 태백도민체전에 임원으로 참가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광석씨 치료비 500만원 등 양양군 지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운문사 강원서 '자기 긍정명상' 특강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은 6월 12~13일 운문사 강원 학인 스님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 긍정명상' 특강을 진행했다. 마가 스님은 이날 상담을 접목시킨 강의를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자살영가천도재(무료)

우리 곁을 스스로 떠난 노무현대통령님. 연예인들 및 기업인 그 외 많은 분들, OECD중 일등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은 누구의 책임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이 많아 다음 생에도 과보는 계속 이어 집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법한 스님의 법력에 의한 천도와 유족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자살한 영가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위기자라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창건한 사찰 '묵언마을'에서는 한 많고 불쌍한 자살영가 천도를 다음과 같이 무료 봉행하오니 자살영가와 인연이 있는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종교에 관계없이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많은 동참 서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53년(2009년) 6월 27일 10시 30분 ~ 14시까지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1
주 최 : 한국불교태고종 묵언마을
집 전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상진스님
신 청 : 031)672-3108. 카페(다음.네이버) "묵언마을"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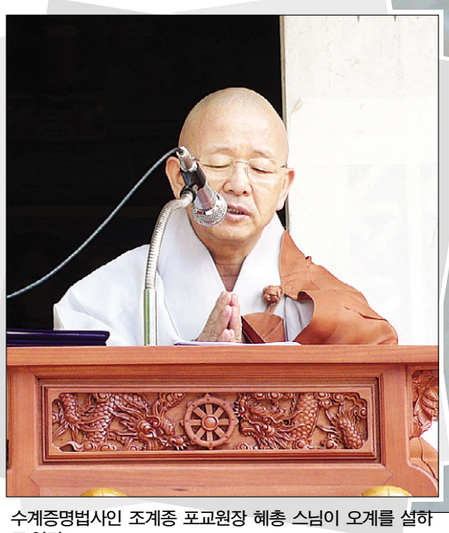
"나라와 국민 위해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공불련, 전통불교문화원서 제9차 합동수계법회



조계종 신도국장 정무 스님이 공무원 불자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수계증명법사인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오계를 설하고 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

깊은 밤 적막한 새벽 산사를 깨우는 염불소리다.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소리가 충남 공주 태화산 새벽 공기에 운치를 더한다. 11일 개원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첫 손님으로 방문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 가족들의 서원을 발하는 기도 소리다. 다음 날 있을 수계식에 앞서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약속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예사롭지 않다.

공불련은 6월 13~14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국 300여 공무원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9차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했다. 나랏일과 국민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불법을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공무원불자들은 13일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 이중원 공주시장, 공불련 김진해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재식을 진행했다.

법용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요 정진"이라며 "초발심으로 부처님 법, 자비행을 행하는 공무원이 되라"고 당부했다.

하복동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해 김진해 공불련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하 회장은 "합동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더 가까이 하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준비된 강좌와 수행정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심신을 청정히 하고 좋은 인연을 짓길 바란다"고 전했다.

입제식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스님들의 강의가 이어졌다.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 명상치료학 교수)은 명상 강의에서 녹록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위로했다. 스님은 "많은 직장인들은 직무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현재의 삶을 놓치고 불안, 우울, 초조한 삶을 살고 있다"며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에 대해 매일 3분간 관찰하며 현재의 삶, 지금이 행복한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은 '참선' 강의에서 참선과 참나, 깨달음과 행복이 가부좌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일감 스님은 "자유롭기 위해 하는 참선에 스스로가 얽매이고 고착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식의 전환과 함께 세상과 내가 직면한 고통을 바라보고 변화를 꾀하는 삶이 진짜 참선"이라고 설명했다.

강의가 끝나자 공불련 회원들은 천년고찰 마곡사 대광보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감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수행으로 신심을 북돋으며 무명의 밤을 밝혔다.

수계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수계 증명법사로, 포교원 신도국장 정무 스님을 인례법사로 모시고 14일 마곡사 도량에서 봉행됐다. 수계식에는 전통불교문화원 사무국장 우봉 스님, 동학사 스님, 이완구 충청남도 지사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혜총 스님은 오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삶, 부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라"며 "오계를 지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공불련 회원들의 신심은 남달랐다. 매년 공불련 수계법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하남시청 신은정(53) 불자는 "흐트러진 마음을 정기 수계법회를 통해서 다지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며 신행과 어우러진 수계법회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300여 공무원 모여 참 불자 될 것 다짐… 대다라니 독송수행

혜총 스님 "부처님 뜻 이웃에 전하는 향기로운 삶 살라" 법문

수계를 받은 300여 공무원불자들은 부처님 · 가르침 · 스님 삼보에 귀의할 것을 맹세하고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婬),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의 오계를 지킬 것을 맹세하며 회향했다.

수계는 부처님과의 약속이지만 곧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공무도 마찬가지다. 나라와 국민과의 약속이고 곧 나와의 약속이다. 각계의 시국선언으로 시끄러운 요즘 겸허한 수행과 깊은 불심,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서원하고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공무원 불자들의 약속이 신성함 그 자체로 더욱 빛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희망의 디딤돌, 화합의 선율

혜원정사 제1회 혜원문화축제 열어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혜원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위), 경내를 가득 메운 신도들(아래).

한여름 밤 희망의 야단법석이 도심 속 산사에서 펼쳐졌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6월 12~13일 양일간 경내와 묘봉산 일원에서 혜원문화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혜원백일장과 혜원음악회, 성우원생 초청 피자파티 등을 하나의 축제로 통합해, 명실공히 도시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누는 기쁨, 하나 된 축제'를 슬로건으로 첫날인 12일 오전 10시 30분 만불전 및 예식장 강당에서 제12회 혜원백일장, 오전 11시 육화전에서는 성우원생 초청 피자파티가 마련됐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오전 10시 제1회 다인회 초청 차문화체험 이벤트를 열고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 초청 강연 및 묘봉산 야생차밭 견학, 차 따기, 덖음 시연, 헌다례 및 접빈다례 시연 등이 이어졌다. 오후 4시부터 일주문에서 각종 먹거리 장터를 비롯한 연등 만들기, 떡판치기, 염주 만들기, 투호던지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장을 마련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특설무대에서 불교방송 '행복한 미소' 공개방송이 성전 스님(남해 용문사 주지)의 사회로 박현빈, 정수라, 그룹 캔, 이범학, 한서경 등 인기가수가 출연해 축제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열두 돌을 맞은 혜원백일장은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이 신설돼,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참여도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년도 혜원백일장의 전체 참가자가 150여 명 안팎이었는데,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의 영향으로 고등학생만 130여 명이 참여했다"며 "내년에는 입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이 상을 목표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내다본다"고 밝혔다.

주지 원허 스님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회향하는 당연한 역할"이라며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혜원정사가 흥겨운 축제의 마당을 여는 빛의 전령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생명나눔 교육

17~18일 개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6월 17~18일 제2회 생명나눔 강좌 '자원봉사자 및 생명나눔 활동가를 위한 교육'을 부산불교신도회관 5층에서 개최했다.

첫날인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참가자 등록 및 본부장 원범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의 '자원봉사의 중요성 및 자세'와 김재성 교수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18일에는 하나병원 정철수 원장의 '조직기증 및 이식',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박동범 사무국장의 '장기기증 등록 및 홍보방법' 등의 강좌가 이어졌다.

이번 강좌는 2009년 부산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들과 함께 생명나눔의 숭고함과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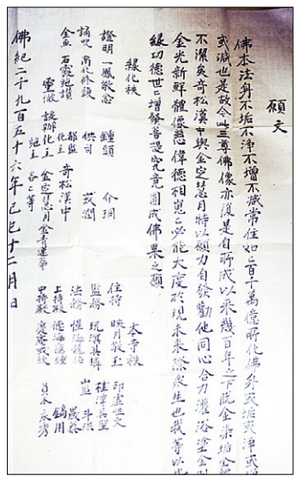
이에 앞서 13일 해동고(교장 김진구)에서 난치병 환우 돕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해동고 학생들이 모은 저금통 304개로 총 345만9520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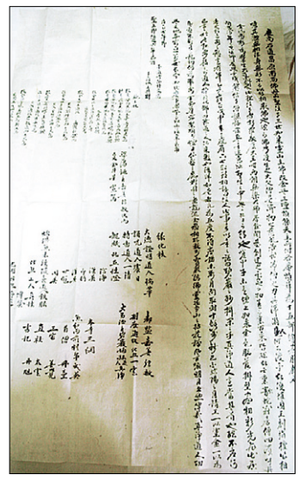
박지원 기자

성주사 불사에 어사 박문수 '출두'

석가모니부처님 복장유물서 밝혀져


창원 성주사 전경.


성주사 석가모니부처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영조 5년 개금불사를 하며 쓴 복장문에는 박문수 어사가 개금불사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 대웅전 주존불 석가모니부처님의 조성 연대와 함께 암행어사 박문수(1691~1756)가 불사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주사 석가모니부처님 복장(腹藏)에서 조선 효종 5년(1655) 불상 조성 당시 작성한 시주기(施主記)와 영조 5년(1729) 개금불사를 하며 쓴 복장문, 1929년 개금불사 때 지은 발원문 등이 발견됐다.

복장물은 5월 28일 개금불사 입재법회 후 26일 사중스님 및 관계자, 학술적 공인을 위해 경상남도문화재위원 이용현 교수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성주사 안심료 염화실에 옮겨 모신 부처님 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많은 기록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1655년 부처님을 만들어 모신 '신조불상시주기(新造佛像施主記)', 1729년 '개금불사 등에 관한 복장문(腹藏文)'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개금 복장문에 등장하는 경상우도관찰사 박문수와 연관된 여러 불교설화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기록에 따르면 "1727년 영조대왕으로부터 '영남 암행어사'를 제수받아 활약하고, 1년 후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경상우도 관찰사'로 봉직하게 되는데, 이듬해 성주사 개금불사에 동참한다"는 내용은 박문수가 경상우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불상 개금을 하는데 재물을 보탰다는 것으로 당시 숭유억불의 시대상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개금불사는 7월 2일 오전 10시 회향법회를 갖는다. 개금된 불상은 원래 자리에 다시 모셔질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괌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 '10년'

7월 17~21일 개산 10주년 개산대제 개최

남태평양 괌도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주지 도휘)가 산문을 연지 10주년을 맞았다.

보타산 낙가사는 개산 10주년을 맞아 7월 17~21일 4일간 개산대제를 개최하고, 수륙재와 생전예수재를 함께 봉행한다.

개산일인 7월 19일 오전 9시 낙가사 대웅전에서 개산 법요식을 갖고, 오전 10시부터 아산비치에서 조고조상 및 유주무주 고혼영가를 위한 수륙재를 봉행한다. 이어 오후에는 강성인 단장이 이끄는 10인의 국악인이 펼치는 산사음악회가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산사의 밤을 수놓는다. 또 생전예수재는 지난 5월 31일 입재해, 개산대제 기간 중인 7월 18일 오후 6시 기도회향법회를 끝으로 회향한다.

특히 이번 개산대제 기간 중에는 월봉 스님과 종호 스님 등 대덕스님들을 초청해 우리 교민과 현지 외국인을 위한 법문을 설하는 법석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괌에는 한국 교민 약 3000명이 거주하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회는 20여 곳이 있지만, 사찰은 단 2곳뿐이다.

주지 도휘 스님은 "낙가사 외 1곳은 대만 불광산사가 지원하는 중국 사찰로, 한국의 불교 사찰은 우리절뿐"이라며 "조계종단 차원에서 한국의 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경투어에서는 낙가사 개산대제 기간인 7월 17~21일까지 4박5일간 항공권을 할인판매한다. 또 한국에서 참가하는 불자들을 위해 사찰에서는 괌 현지 콘도에서 무료숙박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051) 667-0841

박지원 기자

44명에 장학금

경봉 스님 추모법회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선원장 명정) 무량수전에서 6월 19일 오전 10시 경봉 대종사의 제27기 추모법회와 2009학년도 경봉장학회(이사장 원명)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장학생은 박사 과정 2명, 석사 과정 4명, 학사 과정 30명, 통도사 강원 8명 등 총 44명의 스님과 선원 3개소, 율원 1개소 등이 선정됐다.

이어 제5회 경봉문도회(회장 원산)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박지원 기자

"범죄 없는 부산 함께 만들자"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불교연합회 · 신도회 대표단과 간담



왼쪽에서부터 부산지방경찰청 김영식 차장, 김중학 청장,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설동근 회장.

부산 불교계 지도자와 부산지방경찰청 지휘부, 재가불자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중학)은 6월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7층 중회의실에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대표단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경찰청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김중학 청장, 정여 스님, 설동근 회장의 인사말, 자유토론 간담회, 청사 투어 등의 순으로 2시간 여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모든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하는 일을 스님들이 열심히 돕는 것"이라며 "불교수도 부산이 범죄없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중학 청장도 "정국이 혼란한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사회 지도자인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치안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미륭사 회주) 등 임원 스님 15명과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설동근(부산시교육감) 회장, 김동렬 상임부회장 등 임원단 재가불자 15명, 부산지방경찰청 김중학 청장, 김영식 차장 등 지휘부 14명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공개'

국립문화재硏, 7월 26일까지 '사리장엄 특별전'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일체가 불교계의 이운법회와 함께 일반에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전북도·익산시와 공동으로 6월 27일~7월 26일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금제 사리봉안기.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1월 14일 미륵사지석탑 해체 조사 중 1층 심주석 중간에서 수습된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를 비롯해 내호와 연주, 유리구슬류 등 사리장엄구가 보존처리 등을 마치고 공개된다. 직물류, 도자(칼), 사리병편 등 일부 유물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제외됐다.

특별전 개막식은 6월 27일 오전 10시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앞에서 김제 금산사 등 익산지역 불교계의 이운법회와 사리친견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개최된다.

기념법회에는 영산작법(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8호)과 생전예수재, 사리친견, 탑돌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는 미륵사의 창건 배경과 시주자가 명문으로 기록돼 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유물"이라며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백제시대 사리공양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따고 덖고 비비고 말리고

금산사·선운사 '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김제 금산사 '우리 차 만들기'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차를 덖고 있다.

차 만들기 철을 맞아 도내 각 사찰에서 차만들기 템플스테이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와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6월 18일부터 매 주말 각각 2박3일 일정으로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를 진행중이다.

금산사는 서래선원 주변의 자생 녹차밭에서 녹차를 따고 뜨거운 불에 아홉번을 덖고 비비고 말리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 향기로운 차의 참맛을 느끼는 수행의 한 단면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즈넉한 산사의 맑은 공기아래 냇물소리와 함께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며 스님과의 대화, 명상체험 프로그램은 티백차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겨졌다.

한국의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라 특별히 참가했다는 스위스 국적의 탐씨는 "차나무도 처음 보았고 산사에서의 다도체험과 발우공양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차를 덖고 비비는 제다 과정을 함께 하며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도현 시인 등과 '글쓰기' 대회

실상사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개최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와 한생명은 6월 12일 실상사에서 지리산 인근 700여 초중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6월 12일 실상사에서 열린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운봉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산내초교의 오카리나 연주, 인월중고생들의 팝송부르기 등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

글쓰기 한마당은 전북작가회의에서 심사를 맡아 주먹, 맨발, 자전거, 강, 씨앗, 밥상, 우리형, 흙 등의 글감으로 500여 편 작품이 출품됐다. 이와 함께 이미 4월부터 제출된 76종의 도서에 대한 독후감과 함께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정령치 등 지리산과 관련된 지명이름으로 160여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

글쓰기를 마친 학생들은 안도현 시인,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널뛰기, 긴줄넘기 등 전래놀이를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또 지리산 반달곰 사진과 곤충표본감상, 칼라스톤 모자이크 만들기, 야생동물 발자국 찍기, 연꽃등 만들기, 108배 체험, 자연해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마당을 즐겼다.

이번 지리산 글쓰기 한마당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농촌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의 각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되살리며, 청소년들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글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넘어 사회운동으로…

생명나눔 광주본부 '생명나눔 콘서트'

생명나눔운동의 새로운 10년을 알차게 준비하고 실천하기 위해 후원 회원들이 하나 된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6월 17일 광주 상무지구 5·18기념문화관 대극장에서 '주권기의 생명나눔 콘서트 2' 음악회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후원 회원과 환우어린이, 신행단체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운동이 불교 신행단체로서의 활동을 넘어 범시민적이고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행사에서 가수 주권기와 에꼴드플루트앙상블의 플루트 연주, 시립국극단원 윤채형의 판소리, 소리노리 대표 김용철의 축하 공연이 무대에 올려져 관객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광주생명나눔 주권기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현지 스님의 생명나눔 이야기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식도 열렸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행사의 수익금과 생명나눔 캠페인 전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을 소아암·백혈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연 염색손수건 직접 만들어 봐~

고창복지관 놀토 프로그램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6월 13일 쉬는 토요일(놀토)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천연염색 체험장 자연애(愛)에서 '천연비누 만들기'와 '천연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천연 염색체험 김영남 원장의 지도로 진행된 천연염색체험은 청소년들이 직접 고른 천연 향으로 장미모양 등 다양한 틀에 비누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천연재료로 만든 염색물에 하얀 손수건을 담가 손수건 물들이기 체험을 했다.

또 자연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고창사회복지관은 다음 놀토인 27일에는 임실 치즈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경운기 타기, 치즈 만들기 체험, 초지 썰매타기 등의 농촌문화체험 그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 재소자들의 어머니 내원암 자인 스님

교도소 교화 20년… 가정 편해야 나라 편해져



기독교 복음화 비율이 31%가 넘는 군산시. 인구대비 교회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는 군산시 나운동 중심에 작은 포교당을 내고 포교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내원암 자인 스님(사진)을 찾았다.

요즘 들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월명산의 나운동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내원암은 항상 문이 열려있는 '열린 도량'이다.

누구나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려 쉬어가며 물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편안한 도량 내원암. 내원암은 1986년 나운동이 개발되기 전 허허벌판인 나운동이 군산의 중심이 될 것이란 확신으로 불사를 시작한 자인 스님의 안목이 있어 가능했다.

처음 내원암을 창건할 당시의 초심처럼 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지역의 신도회, 청년회 등 지역 신도, 포교단체들의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찍이 사찰의 모든 종무를 전산화해서 빠른 일처리와 함께 신도들 집안의 제삿날까지 잊지 않고 챙길 정도로 신도들 가정의 모든 일상사를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는 스님은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

자인 스님 하면 교도소 교정교화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군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군산교도소를 출입하기 시작한 것이 벌서 20년을 훌쩍 넘겼다. 스님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매월 2번씩 한번도 빼놓지 않고 교도소 법회를 진행했다.

처음 군산교도소에 법당도 없이 복도 한 켠에서 법회를 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80평이 넘는 여법한 법당으로 탄생한 것도 자인 스님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다.

교도소법회를 위해 연간 8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스님은 초파일이면 재소자들의 수계법회를 통해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군산교도소 곳곳이 연등으로 장엄될 수 있게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연등 장엄만 해도 자인 스님이 일일이 교도소에 연등재료를 넣어주고 불자재소자들을 독려한 덕분이다.

스님은 이러한 공로로 1991년에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1996년도에는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재소자들이 출소한 후 한순간의 실수에서 벗어나 참회의 삶을 살아가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며 가끔 '어머니'하며 안부전화를 해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스님은 평소에도 불자 재소자와의 자매결연, 출소예정자의 사회체험과 불교용품 지원등 재소자들의 교정교화에 누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타종교 교세가 하늘을 찌르고 자고나면 교회의 십자가가 높아만 가는 군산에서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자인 스님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원력보살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벚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리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협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잃어버린 아쉬움 너머 빛나는 '남은 것'에 대한 외경심

⑮ 고달사지, 우뚝하여 슬픔이 큰 도량





'고달사 부도'의 중대석 조각(사진 위)은 고려시대 부도의 백미다. 아래 사진은 원종대사 혜진탑비의 귀부와 이수. 1915년 깨진 탑신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 중이다.

서기 958년 8월 20일. 고달원(高達院) 선당(禪堂)에 대중들이 몰려들었다. 스승이신 원종 대사가 열반에 들 때가 됐음을 알고 목욕한 다음 방 앞으로 제자들을 모은 것이다. 대사가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다.

"만법은 모두 공(空)한 것, 나는 곧 떠나려 하니 일심으로 근본을 삼아 너희들은 힘써 정진하라. 마음이 일어나면 곧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도 따라서 멸하나니 인심이 곧 부처님이거늘 어찌 별다른 종류가 있겠는가? 여래의 정계(正戒)를 힘써 보호하라."

대사는 유훈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엄연하게 가부좌를 맺고 입적했다. 나이 90세, 법랍은 69세다.

임금께서 부음을 들으시고 선월(禪月)이 너무 일찍 빠짐을 개탄하고, 각화(覺花)가 먼저 떨어짐을 슬프다 하시고 사람을 보내 조의를 표하고 시호를 원종 대사(元宗大師) 탑호를 혜진(慧眞)이라 추증했다. 그리고 진영을 조성하고 국공(國工)으로 하여금 돌을 다듬어 층총(層塚)을 만들어 문인들이 호곡하면서 색신을 받들어 혜목산 서북쪽 산기슭에 탑을 세웠다.

이후 제자들이 대사의 행적을 새긴 비석을 건립하고자 임금께 간청하니 임금은 "가(可)하다"하며 한림학사 김정언(金廷彦)에게 명했다. "혜목대사(慧目大師)는 덕행이 높아 구름 위에 있고 복덕은 넓어 모든 인간을 윤택하게 했으니, 그대는 마땅히 훌륭한 문장으로 국사의 공훈을 적어 비석에 그 무성한 업적을 기록하도록 하라"고 했다.

여주 고달사지로 가기 전에 원종 국사 찬유(燦幽 868~958) 스님의 비문을 읽습니다. 비문은 한 사람의 일생이 가장 아름답고 간결하고 투명하게 새겨진 정성스러운 글입니다. 다소 비약이 있고 과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주인의 인덕과 공적이 수승하고 커서 언어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지 거짓으로 꾸민 것은 아닙니다. 비문의 문장은 아름답습니다. 그 주인공의 덕화와 향기로운 언행을 미려하고 장중한 언사(言辭)로 기록하는데 지은이의 문장력이 비문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대개 왕명에 의해 지어지는 비문은 당대 최고 문장가의 문자향을 맛보게 합니다.

비문에는 기본적으로 그 주인공의 출생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 부모와 가계(家系)를 기록하고 태몽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특이한 행적 등을 밝힘으로써 비범한 인물상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는 수학기(修學期)의 행적과 스승 동학(同學)의 도반, 제자 등을 기록하고 임금이나 특별한 인사와의 교류 관계도 찬찬히 올립니다. 스님의 경우 거처하고 수행하던 장소와 일화 대화록이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입적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 둠으로 그 주인공의 수행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입적 이후 주변 인물들의 슬퍼하는 상황과 천지만물이 애석해 하는 모습을 비감(悲感)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부도탑을 짓는 경위와 비문을 짓고 탑비를 세우게 된 경위도 빠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비문의 말미에는 그 주인공의 권속들과 산중 인물들을 낱낱이 기록하는데 비문은 후세 사람들에게 당대의 족보가 되기도 합니다.

고려 초기의 우뚝한 선걸(禪杰) 원종 대사의 혜진탑비 비문에는 대사의 출생에서 입적 이후의 상황까지 매우 소상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 비문이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달사라는 절의 규모와 당대 스님들의 면면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비문은 역사 속의 스승을 오늘의 스승으로 만나게 하는 또 하나의 경전인 것입니다. 부도밭 기행을 떠나기 전날 밤, 비문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그 고즈넉한 부도밭으로 달려가곤 합니다.

6월의 뜨거운 햇살을 피해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차를 세우고 나오니 황토색 너른 들판이 눈을 가득 채웁니다. 고달사지입니다. 이 유적지 또한 논밭이었던 곳을 경기도박물관이 발굴조사를 하면서 고려대의 호방한 선풍이 스민 절터의 흔적을 들춰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절터는 허허롭습니다. 넓이에 비해 그 옥토에 드러난 성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지로 들어서는 순간, '양 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속설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을 압도하는 것은 석불대좌(보물 제8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잘생겼다는 수식이 필요 없습니다. 한 눈에 이 대좌의 풍모를 가늠하게 되고 그 위에 당당하게 올라앉았던 부처님을 그리게 됩니다. 대좌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동안 석불이건 철불이건 그 대좌 위에 앉아 있었을 부처님이 그리워집니다. 그 부처님을 잃어버린 세월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우뚝하여 슬픔이 큰 사지가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마는, 이 아름다운 조형 앞에서는 6월의 뜨거운 햇살이 슬픈 마음을 더 달구어 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발길을 돌리면 더 큰 슬픔이 밀려듭니다. 20m 남짓 올라간 곳에 당장이라도 바다로 뛰어들 것 같은 돌거북이 용의 머리를 쑥 내밀고 탄탄한 발톱으로 땅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바로 원종대사 혜진탑비를 얹었던 귀부와 탑신을 덮었던 이수(보물 제6호)입니다. 그 위에 올려놓은 이수는 또 한 번 상실의 슬픔을 솟구치게 합니다. 깊은 조각과 꿈틀거리는 용의 몸통 그리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얼굴과 구름문양이 이룬 조화는 그대로 하늘의 서기(瑞氣)를 땅에 드리우는 것 같습니다. 혜진탑비 위쪽에 놓인 또 하나의 돌거북은 몸통이 둥글고 자세가

원종대사 탑비 귀부·이수 크기와 조각 솜씨 '백미'

부도 옆 개인 비림 조성 관리 허술 드러내… "문화재보호사찰 지정 필요"

비문은 역사 속 스승의 생애·가르침 전하는 '경전'

탑과 땅을 경계 짓는 기능 말고도 탑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 찬란한 부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원종대사의 할아버지뻘인 고달선원의 개산조 원감(圓鑑) 대사의 것이란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원종 대사 부도(보물 제7호)는 고달사 부도에서 동쪽으로 200m 쯤 떨어져 있습니다. 훼손된 흔적이 없이 대체로 잘 보존된 이 부도 역시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따랐고 중대석에 화려한 용과 구름문양을 조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각 수법이나 균형미 등 전체적인 면에서 고달사 부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종대사 부도가 위치한 곳에서 불과 20여 m 되는 곳에 축대가 있고 그 위로 요즘 세워진 비석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각의 받침에 갓을 쓰고서 있는 이 비석들은 최근에 세워진 흔적이 역력한데 모두 20기가 넘습니다.

유연한데 머리를 잃어 버렸습니다.

발굴조사가 멈춰진 고달사지에서 만날 수 있는 성보는 두 개의 수조(水槽)와 석불대좌 그리고 혜진탑비의 귀부와 이수 또 하나의 이름 없는 돌거북이 전부입니다. 사방 30리가 전부 고달사 땅이었다고 전하지만 지금 그 터에 남은 성보가 수적으로는 빈약하지만 낱낱이 장중하고 아름다우니 이나마 친경하는 인연이 감사할 뿐입니다. 고달사지에서 만나는 성보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남은 것에 대한 외경심으로 바꿔 줍니다.

발굴조사가 이뤄진 영역을 벗어나 뒤편 숲길을 따라가면 언설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과 문장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장엄함으로 서 있는 두 기의 부도를 만납니다.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고달사부도(국보 제4호)입니다.

발굴된 사역 뒤편 고달사 마당을 지나 밤나무 숲길을 따라 간 곳에 높이 3.4m의 웅장한 부도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충실히 따랐지만 중대석의 조각이 고려시대 석물조형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귀부의 머리처럼 툭 불거져 나온 용두도 놀랍고 양 쪽으로 두 마리씩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을 새겨 놓은 힘차고 섬세한 솜씨는 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몸돌의 문비와 사천왕상의 조각도 아주 섬세하고 옥개석의 귀꽃은 다소 육중해 보이는 옥개석의 무게를 하늘로 흩어버리는 묘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팔각으로 둘러진 지대석 또한 부도

원종 대사 부도가 보물인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개인의 비가 들어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땅이 개인 소유일 수는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은 그렇게 지근거리에 새로운 조형을 설치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독기관이 눈길을 피해 좋은 터에 비를 세우려는 민심을 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사역의 후미에 자리하고 있는 고달사를 찾아갑니다. 점심 공양을 하던 주지 스님이 자리를 양보하며 "공양 하시라"고 권합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절이 자리 잡은 것은 오래 됐습니다. 요즘도 군청에서 종종 나오지요. 철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성지를 문화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행과 수행이 있는 성역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지 인근의 사찰을 '문화재보호사찰'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달사 주지 도윤 스님의 말입니다. 스님은 고달사에서 매년 원종 대사의 탄신과 입적일에 제사를 모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오신날에는 신도들과 등을 켜 들고 사지를 돌며 봉축을 하고 신도들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지 인근의 사찰들을 '불법(不法)'의 사슬로 묶기 보다는 '불법(佛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고달사 주지는 고달프다"는 도윤 스님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화재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1

남김 없는 깨달음을 얻은이여…

[원문]

사향사과조원성(四向四果早圓成)
삼명육통실구족(三明六通悉具足)
밀승아불정녕촉(密承我佛丁寧囑)
주세항위진복전(住世恒爲眞福田)
–수종사 응진전

[번역]

사향과 사과를 일찌기 원만히 이루시고
삼명과 육신통을 모두 갖추셨네
은밀하게 우리 부처님의 고구정녕하신 부촉을 받으시어
세상에 머무르시며 항상 참된 복전이 되시네.

[선해(禪解)]

얼마 전, 내가 거처 하고 있는 봉국사 공양 간에 노숙자 몇이 밥을 얻어 먹으로 온 적이 있었다. 공양주 보살은 때 마침 대중과 신도들이 공양 중이라 그들에게 식사를 다 마친 뒤에 오라고 했다. 노숙자들은 대낮인데도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거리면서 공양주의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댔다. 자신들을 일반 신도들과 차별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나는 이를 지켜보다가 공양주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했다. 국과 밥을 손에 쥔 그들은 이내 조용해졌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가슴이 못내 아려왔다.

절에서 공양주를 하는 보살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날마다 끼니때가 되면 찾아오는 노숙자에게 한 그릇의 국과 밥을 퍼주는 일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다. 수많은 대중과 신도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더구나 공양 시간을 맞추어 음식을 지어야 하는 공양주의 소임은 절에서 가장 고달픈 직책이라 할 수 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지어 먹여 주는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사람이 깨달음의 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공덕이 없는 사람이 도를 깨치려면 마장(魔障)에 시달려야 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마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먼저 공양주를 자처하는 스님들도 있다. 함께 지내는 도반들의 밥을 퍼주다가 보면 그 공덕으로 인해 도(道)도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큰 절이 아니고는 공양주를 자처하는 스님들을 보기가 힘들어 공양주를 주로 신도나 보살들이 대신한다.

그런데 사찰의 공양주가 때 아닌 노숙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더구나 도심에 가까운 사찰일수록 끼니때가 되면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 노숙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 한 그릇을 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빨리 사회 속으로 되돌아 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구석진 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귀와 눈을 닫아 놓고 탁상공론만 펼치는 그들에게 노숙자들이 먹는 따뜻한 한 그릇의 밥과 국의 의미를 이야기 한다면 어불성설이 될까? 그들의 행정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사찰에 있는 공양주의 힘든 마음도 들어 주기를 간절히 빌어 본다.

오늘의 사찰 주련 여행은 운길산 수종사의 응진전이다. 이곳 주련 속에 담긴 오백 아라한님의 이야기는 바로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는 공양주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수종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운길산 꼭대기에 구름처럼 앉아 있는 사찰로서 신라 시대 때 세워진 절이다. 고려를 세운 왕건이 상서로운 기운을 쫓다가 이곳에 이르러 동종(銅鐘)을 얻어 마침내 고려를 건국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세종의 여섯 째 아들인 금성대군이 정의옹주의 부도를 세운 사찰이기도 하다.

수행 완성해 번뇌와 윤회 벗어난 아라한 경지
남 위해 헌신하는 보시의 공덕 있어야 도달

다산 정약용은 "수종사는 신라 때 지은 고찰인데 절에는 샘이 있어 돌 틈으로 물이 흘러나와 땅에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낸다. 그래서 수종사라고 불렀다"고 <수종사기>에서 밝히고 있다. 당시 다성(茶聖)으로 추앙받은 초의 선사는 양주에 낙향해 있었던 다산을 찾아가 수종사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고 한다. '보성들녘에서 자란 차로 수종에서 향을 내다'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또, 세조가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강원도 오대산에 갔다가 남한강을 따라 환궁하는 도중, 용진강 이수두(지금의 양수리)에서 밤을 맞아 야경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때 운길산 쪽에서 문득 종소리가 들려 그 연유를 신하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원래, 천년고찰이 있었던 자리로 암굴(暗窟)에는 18나한이 앉아 있고, 바위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조는 절을 다시 짓고 수종사라 이름 지었던 것이다. 이밖에 수종사에는 오층석탑이 있다. 이 탑은 고려시대에 성행하던 팔각다층석탑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조선초기의 석탑으로 안정된 균형미를 자랑한다. 특히 이 탑은 한강을 통한 문화전파의 경로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팔각형의 평면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석의 각 모서리에는 원형의 우주가 있고 각 면에는 사다리꼴의 액이 조성되어 있으며 옥개석의 하단에는 매 층 각형 3단의 받침이 있다. 정상에는 삼각형의 문양이 시문된 복발과 보주가 있다.

그럼 응진전의 주련속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사향사과조원성 삼명육통실구족: 사향과 사과를 원만히 이루시고 삼명과 육신통을 모두 갖추셨네.'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 아라한을 찬양하는 게송이다. 성문사과(聲聞四果)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말하는데 수행자가 도달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아라한과이다. 수행을 완수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다시 생사의 세계로 윤회하지 않는 자리로서 소승 불교의 궁극에 이른 진리에 대한 의심 따위를 버리고 성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성문(聲聞)의 첫 번째 지위가 바로 아라한인데 사향(四向), 사과(四果), 삼명(三明)을 남김 없이 구족한 분이다.

사향이란 소승불교에서 수도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네 가지 품계를 말하는데 수행의 기초단계인 견도향(見道向), 불교의 근본진리를 명료하게 지켜보는 눈을 얻는 단계인 정류향(頂流向), 육계의 모든 미혹함을 끊는 단계 일래향(一來向), 육계의 9품 수품 가운데 7품을 끊었지만 아직 1품이 남아 있는 단계를 말한다.

삼명이란 부처님과 아라한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천이통(귀로 못 듣는 것을 들음), 타심통(타인의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신통), 신족통(경계를 변신하여 출몰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신통), 숙명통(과거 세상의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하는 신통), 천안통(육안으로 못 보는 것을 보는 신통), 누진통(자유자재하게 번뇌를 끊는 신통)중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말하는데 과거의 업상과 인연을 알아 내세의 상을 명확히 하며 현재의 상을 깨달아 일체의 번뇌를 끊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을 원만히 구족한 이가 바로 아라한들이라는 말이다.

'밀승아불정녕촉 주세항위진복전: 은밀하게 부처님의 고구정녕하신 부촉을 받아 세상에 머물러 항상 참된 복전이 되시네.'

이러한 오백 아라한들에게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도록 아무도 몰래 간절하게 입이 쓰도록 정녕촉(丁寧囑:신신당부)하셨던 것이다.

그 덕택으로 오늘날에도 오백 아라한님들은 우리 주변에서 중생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바로 공양주이며, 절 마당을 쓸고 있는 저 사미승인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1

본심은 나고 죽음이 없다

[원문]

問曰 心旣見在 何故不見 師云 汝曾作夢否 答曰 曾作夢 問曰 汝作夢之時 是汝本身否 答曰 是本身 又問曰 汝言語施爲運動 以汝 別 不別 答曰 不別 師云 旣若不別 卽此身 是汝本法身 卽此法身 是汝本心 此心 從無始廣大劫來 與如今不別 未曾有生死 不生不滅 不增不惑 不垢不淨 不好不惡 不來不去 亦無是非 亦無男女相 亦無僧俗老少 無聖無凡 亦無佛亦無衆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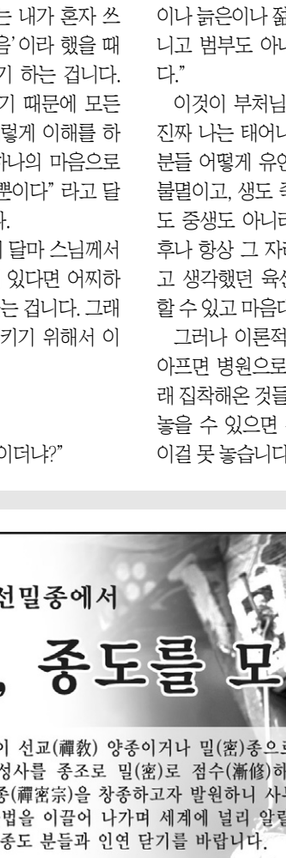
"본심이 앞에 있다면 어찌하여 보지 못합니까?"하니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느냐?"하셨다.

"예, 있습니다"하니 "꿈을 꿀 때의 그대는 본래의 몸이더냐?" 고 물으셨다.

"예, 본래의 몸이었습니다"하니 다시 물으시기를, "그대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였을텐데 그대와 다르던가, 다르지 않던가?" 하셨다.

"다르지 않았습니다."하니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다르지 않았다면, 그 몸이 곧 그대의 본래 법신이며 그 법신이 그대의 본심이니라. 그 마음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과 조금도 다른 적이 없으며, 생사가 없어서 태어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든 적이 없으며, 더럽거나 깨끗한 적이 없으며, 좋거나 나쁜 적이 없으며, 가거나 온 적이 없으며, 옳거나 그른 적이 없으며, 남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모습도 아니며, 스님이나 속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의 모습도 아니며,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송(宋)나라 때 달마상(작자 미상).

[해설]

본심(本心)이란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 있고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 했을 때는 내가 혼자 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 했을 때는 우주 그대로의 한마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어리석어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 하고 계신 겁니다.

본심은 본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달마 스님께서 설명을 해도 모르니 "본심이 앞에 있다면 어찌하여 보지를 못합니까?"하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달마 스님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꿈을 꿀 때의 그대는 본래의 몸이더냐?"

"예, 본래의 몸이었습니다."

마음의 도리를 모르니 꿈 속에서 보았던 것을 자기 몸으로 생각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본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본래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였을텐데 그대와 다르던가, 다르지 않던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았다면, 그 몸이 곧 그대의 본래 법신이며 그 법신이 그대의 본심이니라."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경계에 끄달려 작용하다 꿈에서 깨고 나면 허망함을 느끼지만, 그 또한 본래 마음이더라 이렇게 일러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과 조금도 다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나 태어났을 때나 항상 그 자리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칠십이 됐을 때도 그 마음은 본래 그 자리예요.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인연 따라 변하는 몸뚱아리만 생각합니다.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태양을 받으면 수증기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슬이 되고 비가 되고 인연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만 물의 성질은 그대로이듯이 본래 마음자리는 물질이 아니니 변할 수 없습니다.

"생사가 없어서 태어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든 적이 없으며, 더럽거나 깨끗한 적이 없으며, 좋거나 나쁜 적이 없으며, 가거나 온 적이 없으며, 옳거나 그른 적이 없으며, 남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모습도 아니며, 스님이나 속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의 모습도 아니며,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짜 나는 태어나고 죽는 것도 아닌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유언 하시겠습니까? 진짜 나는 불생불멸이고, 생도 죽음도 없고, 성인도 아니고, 부처도 중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이고 생사가 없는 것이니, 나라고 생각했던 육신은 진정 내가 아니므로 기증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막상 어디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무시(無始)이래 집착해온 것들을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놓을 수 있으면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못 놓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불교 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연수안내

불기 2553년 탄트라레크리에이션 문화협회에서는 21세기 FUN 레크리에이션 2급 불교전문지도자 과정 연수회를 개강 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을 불교에 접목시켜 대중들이 밝고 활기차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갈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2009. 7. 4(토) ~ 8. 29 (토)
2. 교육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오후 6시까지
3. 교육장소 : 대전광역시 여진 불교미술관內 전수회관 1층
4. 교육내용 : 불교기초교리 및 예절, 레크리에이션개론 및 지도자론, 手氣法, 교육마술, 음악줄넘기, 찬불댄스 및 율동, 포크댄스, 레크리에이션 댄스, 21세기형 리더십, 실내 · 외 게임, 불교학교 프로그램, 공동체 인간관계훈련, 이미지메이킹, 스피치, 오리엔티어링, 캠핑의 실제, 프로그램 작성법 및 모임진행법, 수예공예(비즈공예,종이접기), 노래율동 등
5. 특 전 : 이번 연수기수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특전을 시범 운영합니다. 단) 검정응시료는 별도입니다.
   ☞ 타 단체 자격증 소지자는 전환비와 재료비 및 검정료 포함하여 50%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선입금 하신분께는 10%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단체10인 이상은 10%이며 선입금시 5%로 추가 할인 혜택
   ☞ 군법당의 군종병은 단체 할인에 준한 혜택을 드립니다.
   ☞ 학인 스님 및 포교사분들도 단체요금에 준한 혜택을 받습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국민은행 402401-04-268689 예금주 : 이 연재

탄트라레크리에이션 문화협회
대표전화 : 서울, 경기도 : 032-349-6525 010-8829-8255
대전광역시 : 042-935-7889



대한불교선밀종에서
임원,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禪敎) 양종이거나 밀(密)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에 해동대선사인 원효성사를 종조로 밀(密)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지향하는 선밀종(禪密宗)을 창종하고자 발원하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임원, 대덕스님, 각 지역을 이끌어 나아갈 종도 분들과 인연 닫기를 바랍니다.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포교소 등록)신청서
■ 서약서, 승려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지사 및 대리점 모집
■ 식품사업부 국제/국내 특허제품(숙취해소제, 마가목차) 보유
■ 출판사업부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 및 사부대중
■ 복지사업부 자비실천모임(복지에 관심을 둔 자원봉사단 모집)

연 락 처
■ 총 무 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태남빌딩2~3F)
■ 전 화 053)311-2675~7 / FAX : 053)311-2634
■ 사업상담 053)311-2675~6 / 010-3134-8484
■ 입종상담 053)311-2677 / 010-3134-8484 (원묵)

비영리종교단체 등록번호 (37451-00292) / 비영리종교단체 고유번호 (513-82-65714)
大韓佛教禪密宗 總務院
http://www.sunmiljong.or.kr

“하나됨의 평등성 보면 언제 어디서도 행복해”

선지식을 찾아서 기후

축서사 북암 기후 스님

나는 왜 천연두 앓았을까?

어떤 인연으로 승려가 됐을까?

어쩌다 위암에 걸렸을까?

세 개의 화두 들고 사는 ‘별빛방장’



기후 스님은 1943년 안동에서 출생. 1965년 범어사로 출가하여 69년 통도사에서 사미계 수지.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 통도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강사 역임. 용화사, 봉암사, 통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여러 안거 성만. 경주 기림사 북암에서 6년간 묵언 정진. 1991년 호주 시드니 ‘정법사’ 창건해 15년간 해외포교에 주력. 지금은 축서사 북암에서 안거 중이다. 저서로는 구도소설 〈꿈속의 인연들〉이 있다.

축서사를 지나 개울에 걸쳐진 작은 다리를 건너니 산으로 통하는 오솔길이 나온다. 질은 그늘이 드리워진 산길을 따라 걸었다. 뻐꾹새와 휘파람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숲의 고요를 깨운다. 암자라기보다는 토굴이라는 명칭이 더 잘 어울리는 북암 초입에 들어서자, 다듬지 않은 통나무를 잘라 울타리 삼고 나지막한 출입문 앞에는 ‘면담 가능 시간 12~2시’라는 팻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수행자의 치열한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팻말이다.

기후 스님은 새벽 3시면 일어나 가사 장삼 수하고 축서사 대웅전에서 예불 올리고, 참선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요즈음은 거처 앞뒤로 풀이 하도 우거져서 도라지를 심으려고 풀을 베고 땅 고르는 일을 한다고 했다. 도라지가 피어 올리는 보라와 흰색의 꽃 위로 밤이면 별빛들이 쏟아질 터이고, 기후 스님은 별빛방장 노릇을 하겠지. 천년만년을 달려 온 별빛과 도라지꽃과 기후 스님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궁금해진다.

1965년 늦가을, 수학여행을 간 인연 밖에 없는 범어사를 묻고 또 물어 찾아갔다. 범어사의 어산교에 이르자 저녁노을은 붉게 불타고 저녁 예불을 알리는 대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바의 울혈이 저절로 녹아내리면서, 내가 살 곳은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들더란다.

“고인의 말씀에 화두는 하나로서 족하다고 하셨는데 나는 세 개를 갖고 지내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지요.” 첫째는 나는 왜 천연두를 앓게 되었을까? 둘째는 어떤 인연으로 승려가 되었을까? 셋째는 내가 어쩌다 위암에 걸렸을까? 이 세 가지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깊어져서 출가를 하신 것처럼 기후 스님 또한 자신의 삶을 화두 삼아 깊이 천착한 공부였음을 알 수 있다.

기후 스님은 한 살 때 천연두를 앓았는데, 온 몸을 녹이는 듯 한 고열은 얼굴에 흉터를 남기고 말았다. 얼굴의 흉터로 인해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그것은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만들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사춘기라 콤플렉스도 많았지.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으로 진학하여 교단에 서고 싶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데요.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이런 얼굴로는 결혼하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살아야한다는 조건아래 나를 받아줄 곳은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니 스님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빳빳하게 풀 먹인 승복을 입은 스님이 지나가는데 향내가 나는 것이 참 멋있어 보이더란다. 그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막연하게 스님과 불교를 연모했고, 고등학교 때 그 한 생각으로 스님이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천 가닥의 실버들도 때가 되면 가버리는 봄기운을 붙잡지 못하듯 인연 따라 떠나가는 왕래의 길 또한 막지 못한다고 했던가. 출가의 인연 또한 그러하리라.

행자생활을 마치고 기후 스님은 월하 스님의 상좌가 되고 싶어 두루마기를 잘 차려입고 찾아갔다. 월하 스님께 상좌가 되겠다고 했더니 “근래에는 상좌를 안 받는데…” 라면서 점잖게 거절을 하시더란다. 그때 기후 스님은 내 주제도 모르고 앞서갔구나 하면서 자책을 했단다. 이때까지도 기후 스님에게는 ‘나는 왜 천연두를 앓게 되었을까?’ 이것이 화두였다.

“불가에 들어오면 모든 허물을 감싸줄 것이라 믿었는데 스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에 실망했고, 승가대학을 다닐 때도 소임배치라던가 인물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을 은연중 알게 되었어요. 자비문중이라 해도 사람 사는 데라 별 차이가 없음을 느꼈지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공부가 부족한 탓이지요.”

통도사 승가대학에서 〈초심〉부터 해서 〈서장〉 〈도서〉 〈절요〉 〈능엄경〉 〈기신론〉 〈화엄경〉까지 홍법 스님께 배웠다. 홍법 스님이 강사준비를 하라고 해도 이런 얼굴로 어떻게 대중에 설 수 있을까 하고 많이 망설였을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승가대학에서 중강 소임을 보면서도 자신의 콤플렉스를 진정으로 극복하지는 못했다. “어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이때였다. 하심과 진실을 추구하는 한편 부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했다. 진실하게 사는 것만이 전부라 생각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경전을 독송했지만 끝내 답을 구하지 못했다. ‘내가 있다’는 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마음이 모양이 있나? 무게가 있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툭하면 ‘마음이 무겁다 괴롭다’고 하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이 마음인데, 별의별 감정을 느끼면서, 과거와 미래의 일로 인연해서 항상 얽매여 있어요. 얽매임을 끊으려 하지만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끊을 것이 없지요. 우리들의 마음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다만 망상이 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채는 것이 공부지. 이것을 모르니 괴로운 것이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불 후 쪽지를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걸망을 지고 통도사를 나왔다. 전강 큰스님이 계시던 용화사에 도착해 첫 철을 지냈다. 용화사에서 한 철을 지내면서 “그동안 찾아다녔던 감로수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면서 환희심을 삼키고 또 삼켰다”고 회고했다. 그 후 봉암사를 비롯한 여러 선원에서 정진했고 차별의 세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선원에서 나름 공부의 힘을 얻었다. 한 철 잘 지내고 해제 때는 내면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곤 해서 힘든 결단을 내렸다. 도반 세 명과 함께 기림사 북암에서 ‘6년 묵언’ 정진에 들어간 것이다. 바깥출입을 일

천년동안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계신 은진미륵 (보물 제 218호)

미륵성지 기도영험도량

은진미륵 관촉사로 초대합니다

일천년 동안 한 곳에 서서, 수많은 중생들을 안아준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서기968년 조성을 시작하여 장장 38년간 불사를 진행. 서기1006년(목종 9년) 완성하였는데 찬란한 서기가 삼칠일 동안 천지에 가득하여 찾아오는 사람으로 저잣거리를 이룰 만큼 북적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진미륵의 백호에서 나오는 황금빛이 너무 밝아 송나라의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배하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빛나는 미륵불이구나!”하고 감탄했다하여 사찰 이름이 관촉사(灌燭寺)로 명명됐다고〈관촉사사적비명〉은 적고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 생전 예수재 및 성지순례 안내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원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밤비사라’ 왕은 명부를 체험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무려 5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봉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관촉사에서는 생전 예수재 및 가사 불사를 봉행코저 하오니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 예수재와 가사불사를 통해 전생, 금생 인연 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가피 입으시길 바랍니다.

■ 생전 예수재
· 기도입재 : 2009년 6월 5일 (음, 5월 13일) / 천도재 봉행 : 매주 목요일 대웅보전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9년 7월 23일 (음, 6월 2일) / 동참금 : 예수재 1인 5만원 / 가사불사 성의껏 동참

■ 성지순례
· 일 정 : 2009년 6월 30일 (윤 5월 8일) / · 순례사찰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 출발장소 : 관촉사 주차장 오전 7시 / · 동 참 금 : 1인 3만원 (점심 제공)
· 입금계좌 : 우체국 310086-01-000089 / 국민은행 453201-04-164635 (예금주 : 관촉사)

■ 1029일 영가 천도 12번째 회향
· 기도일정 : 2009년 6월 7일 (음, 5월 15일)

■ 2009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2009년 8월 4일 (음, 6월 14일)

* 관촉사 은진미륵 부처님께 좋은 성적 성취 발원 수능 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대중스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축원 및 기도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산 관촉사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 041)736-5700~2 / 팩스 041)733-4169

수행과 정진이 삶의 버팀목

체 하지 않았으니 무문관 정진이나 다름없다.

"묵언 정진을 하는 3년 동안은 지금까지 살면서 잠재돼 있던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 괴롭히데요. 3년 정진이 지나니 업력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데요. 그런데 망념이 줄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부터는 그 상태에 머물고 싶은 무기(無記)에 빠져들어 한동안 힘들었지요. 그 후 3년 동안은 안 보고 안 듣고 반연을 쉬면서 정진하다보니 내면의 힘이 길러집디다. 그동안 내가 허상에 끄달려서 참으로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나 자신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것이지요."

기후 스님은 당신의 공부는 드러낼 것이 없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모습이나 학문, 종교사상 등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화엄사상에서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 표현하지요."

기후 스님은 '크거나 작거나 하는 차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평등을 보라'고 했다. 그것이 진리적인 삶이고, 불법의 요체란다. 차별을 따르며 거기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매달리며 살다보면 항상 시비와 고뇌가 따르지만, 하나됨의 평등성을 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큰 회오리바람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아무리 완벽하고 오랜 인생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참 선지식은 처처에 널려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선지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한 사람이 그대로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리라. 이때 마루로 날아 들어온 꽃등에 한 마리가 출구를 찾지 못하여 출구도 없는 유리창에 부딪히기를 반복하고 있다. 안타깝게 바라보던 기후 스님은 신찬 대사의 말을 빌어 "세계가 이처럼 넓은데 나가지 못하고 창호만을 두드리니 언제나 나가려나"하고 한마디 했다. 그 한 마디 속에는 '열린 마음으로 보면 온 세상이 출구요, 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육년 묵언 정진을 회향하던 날 기림사에 큰 행사가 있어 불국사 조실이신 월산 스님이 오셨다. 일정에는 없었는데 월산 스님은 "육년 동안 묵언 정진한 공부를 대중들에게 내보여라"고 했다.



기후 스님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 번 호곡을 했다. 기후 스님의 호곡에 대해 월산 스님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공부꺼리를 던져주었을 것 같다. 스님은 선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체험이라면서 선은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했다. 화두 수행하는 데는 대혜 스님의 <서장>이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묵언 정진을 회향했지만 공부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처소보다 홀로 공부하고 싶어서 더 깊은 곳을 찾아 태백산의 구마동 계곡으로 들어갔다. 구마동 계곡에서 일 년을 지내다 호주 시드니로 가게 되었다. '그곳 신도들이 별나서 스님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자신감이 있었다.

"묵언 정진으로 내면의 고요를 얻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라, 어떤 경계에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호주로 떠날 때는 '육년 묵언정진 한 것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지요."

한 이삼 년은 수행한 대로 사람들을 제접했지만, 분에 넘치는 불사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나빠지고 점점 수행의 바탕에서 이탈하는 것을 느꼈다. 기후 스님은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시드니에서 정법사를 창건하여 15년 동안 포교활동을 했다. "시드니 생활을 돌아보면 내 능력껏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위암을 얻었으니 마음 경영을 잘못한 거지. 시드니에서 머물 때 나 자신을 또 다시 회광반조하게 되었어요."

기후 스님은 15년 동안의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위암 3기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스님은 수술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육 년째 잘 살아내고 있다. 위중한 병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어떻게 버티어내느냐고 했더니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사는 덕분"이라 했다. 아마도 그동안의 수행과 정진의 에너지가 버팀목이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시드니에서 찾아 온 불자들은 '우리들이 스님을 힘들게 해서 병이 났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해요. 설사 신도들이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수행력으로 받아들이고 잘 풀었어야 하는데 내 근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라면서 스스로를 견책했다. 스님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기에 이미 시신기증도 해놓았다.

그래도 출가한 자취라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얼마 전에 구도소설 <꿈속의 인연들>을 펴냈다. 스님은 "이것도 부질없는 욕심"이라 표현했다. 축서사 홈페이지 '별빛방장과 함께'에 틈틈이 올린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스님은 "남몰래 낙서하다 들켜 버린 것처럼 부끄럽고 우습다"고 하지만 이 책은 지금 사찰 안팎에서 인기가 높다.

"우리의 삶이 묘미가 있는 것은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변모시키려 애쓰며 살아가는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에게 완벽하게 맞는 조건은 없어요. 만일에 자기 생각에 맞는 조건이 이 세상에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다면 아마 염라대왕도 저승의 자리를 박차고 재빨리 이승으로 오고 말 것이라 생각해요. 무작정 자신에게 맞는 여건을 찾을게 아니라 스스로의 무게와 처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가꾸어나간다면 희망의 에너지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녁 공양시간이 되어 산길을 되짚어 내려왔다. 기후 스님은 저만치 앞서 걸어가시고, 객은 그 뒤를 따라 걸었다. 골이 깊어서 그런지 아직도 못다 핀 철쭉이 짙은 분홍빛을 흘뿌리고 있다. 저녁노을 아래 철쭉은 분홍빛으로 오가는 이에게 추파를 보내고, 딱따구리는 다 부질없는 일이라면서 딱딱딱 나무를 쪼으면서 혼자 걷는 노승의 발걸음에 장단 맞추어 준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9. 동산 대화상

혜일동산(慧日東山, 1890~1965) 스님은 1954년 종단분규 시 비구불교의 횃불이었다.

화래화거기다년(畵來畵去幾多年)이냐/ 필두낙처활묘아(筆頭落處活猫兒)로다/ 진일창전만면수(盡日窓前滿面睡)하니/ 야래의구착노서(夜來依舊捉老鼠)로다.

그리고 그린 것이 몇 해던가/ 붓 끝에 닿는 것이 살아 있는 고양이/ 하루 종일 창 앞에 늘어지게 잠자고/ 밤이 되면 예전처럼 늙은 쥐를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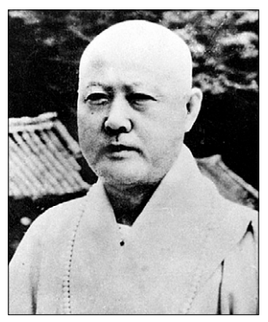
노란 장삼 가사에 법장을 들고 높이 무개차(無蓋車)위에 앉아 서울 안국동 네거리를 순회하던 모습이며, 청담 스님과 함께 조계사를 접수하러 가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스님은 1890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동규라 불렀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고 1908년 익명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고모부 오세향씨의 도움으로 중동중학교에 입학, 안창호 선생님이 운영하던 흥사단에서 국어를 연구했다. 1912년 의학전문학교를 나온 뒤 1913년 23세에 용성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계를 받았다. 이후 백양사 운문선원을 거쳐 평남 맹산군 우두암에서 한암 스님을 만나 <화엄경>을 보고, 다시 범어사 선원에 들러 선을 닦는다.

1919년 기미 독립선언으로 옥에 갇히자 2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면서 용맹정진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는 장좌불와(長坐不臥)했고 금강산 마하연, 속리산 복천암, 태백산 각화사, 한양 백운암에서 정진하다가 1924년 마지막으로 김천 직지사에 이르러 한 소식을 얻는다. 이것이 앞에서 소개한 오도송이다.

1929년 이후 40세가 되면서부터는 범어사 · 해인사 조실을 지내고 1954년 이후에는 종단분규에 앞장서서 세 번이나 종정을 역임, 수 많은 대중들에게 보살계와 구족계를 전수하고 WFB 제5차 대표대회에 다녀와서 전국 사찰을 24개 본사와 말사로 나누어 교구제도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수행승들이 "본사 여섯 개만 주면 싸우지 않고 공부하는데 주력하겠다" 하였는데 대처승들이 이를 반대하자, "대처승들은 씨를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하여 10년 동안 유혈사태를 겪었다. 이것이 잘 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어떻든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18개 종단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급기야 2000년 이후에는 100여 개 종단이 넘어 오합지졸을 이룸으로써 진가(眞假)를 구분할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놓여져있다.



스님은 정화 후 종정을 사임하고 범어사로 들어가 1965년 3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금어선원에서 정진한 뒤 오공을 마치고 입적하였다. 스님의 일과는 언제나 조왕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왕단, 칠성단, 산신단, 어떠한 법당도 빼지 않고 예불을 드려, 똑같이 불교정화운동을 하였어도 청담 스님과는 전혀 달랐다. 청담 스님은 산신 · 칠성 · 용왕 · 신장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또 아침예불이 끝나면 반드시 대중과 함께 마당 청소를 하였다.

조계사에 계실 때는 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가 젊은 스님들이 무엇이라 하면 빗자락을 들고 조계사 마당을 두 바퀴 세 바퀴씩을 돌며 쫓아 다니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악의(惡意)는 없었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쫓아 다니면서 대중 앞에서 참회시켰다.

나는 1962년 불교재건위원회가 구성되고 2월 12일 비구 · 대처 양측이 8년 만에 회동하여 통합종단을 이루기까지 한 달 반동안 조계사에 있었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청소를 같이 하였다.

미국에 갔을 때, 카멜에 있는 삼보사에서 이한상 거사님께 들은 이야기다.

"제가 아들이 없어 부인을 하나 얻었는데, 거기서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해 보자해 선학원을 찾아 갔더니 종정스님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부처님께 물어 보시오. 지금 종단이 두 쪽이 나서 재판중인데 제1차는 대처 쪽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돈이 없어 변호사도 선정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 필요한 기금을 은행에 신탁하겠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마지 한 불기 올리고 축원했습니다. '우리 비구들의 상황은 덕산 거사 내외에 달려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 불교가 어떻게 돼야 하겠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증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축원했는데, 그 뒤로 바로 아이가 들어서 종단은 정상화되고 집안일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부인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 두 아이를 낳으니, 양쪽이 분리돼 그래서 미국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스님의 신통력이다.

종단 화합에 앞장, 종정 세 번 역임… 모든 법당서 아침예불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3>

'보시'는 이익추구의 경제행위와는 달라

불우한 이웃 돕는 것이 참불교의 실행적 가치

불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활태도를 뒤돌아보고, 거기서 경제와의 관련된 원리를 찾아보아도 좋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기 전 젊은 시절의 싯다르타는 인생의 '고(苦)'에 대한 의문과 고민 속에서 장래의 국왕이 될 지위를 버리고 출가했다. 그리고 당시 수행자의 전례에 따라서 가르침을 구하여 여러 지역을 편력한 것이다.

그러나 선행 수행자들의 가르침을 깨달아감에 따라서 그 가르침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윽고 가혹한 단식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엄격한 수행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싯다르타는 죽음의 심연에까지 빠져든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음을 전폐한 단식 고행의 진행이 무의미함을 느끼게 된 싯다르타는 고행을 중지하고서 바로 옆에 흐르는 네란쟈다 강에서 목욕을 했다.

그는 오랜 단식으로 인해 체력이 매우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는데, 이때 인근마을의 처녀가 가져다 준 우유죽을 마시고는 드디어 체력을 회복하여 건강을 조절하게 된다. 그때 싯다르타와 함께 수행정진하고 있던 도반들은 그것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다!"고 비난하며, 그의 곁에서 멀리 떠나가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체력을 회복한 싯다르타는 여전히 보리수 나무 밑에 홀로 앉아 조용히 명상에 들어가 정진을 계속했다.

항마성도(降魔成道)상을 보면, 부처님의 득도(得道)를 훼방하기 위해 악마 '마아라'가 괴물의 무리로 위하(威?)하고, 요염한 미녀로 유혹해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활을 쏘면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고, 화염을 퍼부으면 천개(天蓋)가 되곤 했다. 이에 악마 '마아라'는 속세의 제왕(帝王)으로 받들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제발 제왕의 그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고 속삭이는 듯 작은 소리로 유혹했지만 거절했다.

마침내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치 예수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후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의 교조로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시아의 빛'으로 우러러 받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님과 경제에 관한 관련성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수행과정에서 단식에 의한 고행의 무의미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즉 음식의 부정이야말로 실제 도(道)를 닦는 생활에서 경제의 완전 부정이며, 이는 현실에서 불교수행을 할 때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한편, 명상을 할 때의 악마의 유혹에 의한 교훈은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지라도, 경제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불교의 본연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불교는 세속적인 경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양 극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교의 중도(中道)적 자세가 석가세존의 수행과정 속에 체험적인 이야기로 잘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인도는 이미 화폐경제가 번영하고 있었지만, 석가세존은 예수와 같이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로는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당시 왕성한 상업활동으로 대부호가 된 사람(長者)도 기쁘게 그의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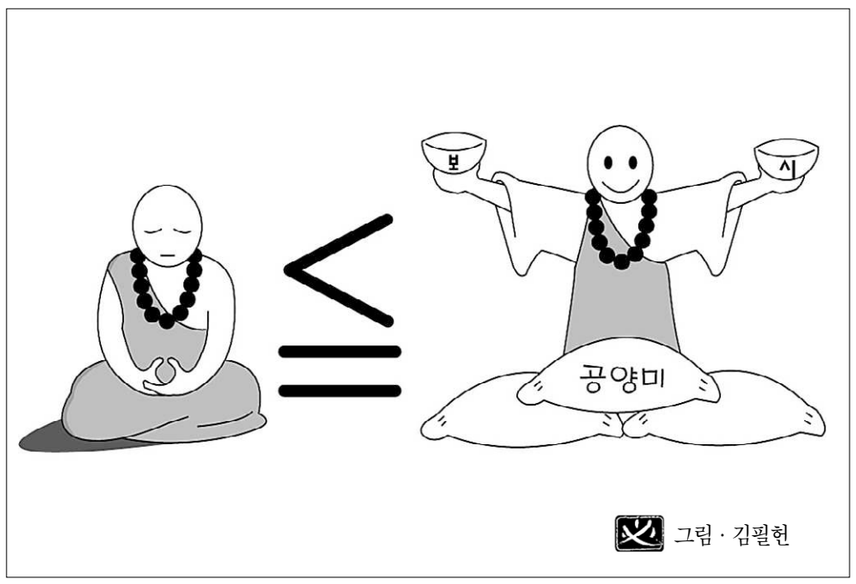


그림 · 김필헌

초기 불교경전에는 '우선 생계 유지를 해결한 다음 도(道)에 이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뒤에 대승불교 즉 출가자만을 구제하는 상좌불교(上座佛敎)에 대해 재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대중불교(북방불교)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교단이 출가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교단의 공유재산으로서 준비기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승불교 교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공유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불교행(行)의 출발이 보시(布施)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보시정신의 일례로서 일본에서 어떤 신심깊은 불자가 불교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근본경전을 출판하기 위해서 평생 고생을 해서 모은 귀중한 돈을 갑자기 닥친 기근에 고생하는 많은 서민의 구제에 보시했다는 얘기가 있다.

물론 불교에서 '보시'는 이익추구의 경제행위와는 다르다. 보시는 남에게 이익을 베푸는 마음가짐이다. 다만 남에게 이익을 베푸는 사람이 자기의 은혜베품을 계산하고 그 사람이 갚을 것을 따진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무슨 가치를 가지겠는가. 그런데 과연 가치 있는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엔 얼마나 될까? 양극화(兩極化) 사회로 깊어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익명의 독지가에 의한 불우이웃돕기 등의 소식은 한 줄기 밝은 빛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무 밑에 좌선수행하는 것보다도 우선 배고픈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참불교의 실행적 가치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는가?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허달의 불교와 코칭

③ 멈춤과 선택

즐겁고 의미 채우는 '주도적' 선택이 필요

우리는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인간에게만 자아인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이렇게 천부(天賦)의 네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오만한 서양 이론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프로그램 된 대로 외부에서 오는 신호와 자극에 대응한다. 다윈 학자는 이것이 인류인 우리를 살아남게 한 유전적 입력(入力)의 축적이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이 프로그램의 작동을 가끔은 멈추어 보자는 것이 자기리더십(Self-Leadership)의 시동(始動)이자 코칭의 기본적 접근방법이며, 주도성(Proactivity)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프로그램의 자동실행이 멈추어져야 우리는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인 프로그래머라는 진실에 생애 처음 마주치게 된다. 멈추어 바라보아서, 지금까지 실행되어 온 것 외에도, 준비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패키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삶이라는 것이 B로부터 D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C라는 과정이 있다는 서양 코치들의 말 장난이 있다. B는 태어남[Birth], D는 죽음[Death]. 그렇다면 C는 무엇인가, 'Choose', 즉 '선택'이라는 것이다.

"Stop, Think, Choose."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나 아닌 다른 존재 또는 환경에 의하여 내 삶의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기리더십 첫 번째의 습관이다.

뇌성마비로 생의 기로에 섰던 일곱 살의 한 경혜 양에게 성철 스님과 그녀의 어머니라는 두 분의 코치들은 하루 천 배(拜) 수행이라는 선택지(選擇枝)를 열어 보여 주었다. 당시 그녀가 힘겹게 절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회상이 그녀의 자전적 기록 <오체투지(五體投地)>에 실려있다.

2년 전쯤 내가 만났을 때, 말끝이 조금 어눌하고 악수하는 손가락 끝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 그녀는 환한 미소와 튼실한 신체를 지닌 33세의 동양화가였다. 그날 아침도 23년을 하루 같이 천 배의 일과를 수행하고 우리 앞에 서서, 하루 만 배 체험의 실화와 시각 장애자를 인도해 히말라야를 트랙킹 하던 이야기를 남의 얘기처럼 여유 있게 들려주었다. 뇌성마비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프로그램 된 것처럼 보였던 일상을 어느 날 멈추고, 그녀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룩한 놀라운 결과이다. 그녀는 '마음이 현상 세계를 만든다'는 법칙을 웅변으로 설파하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되었다.

2007년 8월 26일,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 당년 47세의 랜디 포시는 세 장의 MRI 사진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일년 전 췌장암을 수술하고 치료받고 있었으나, 암은 호전되지 않고 이미 여러 장기에 전이되어 있어, 그에게 남은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어도 몇 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선고였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도 자기를 동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택, 남은 기간을 불평과 절망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는 일로 채우겠다는 주도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가 카네기 멜론 대학의 400명 청중 앞에서 한 '마지막 강의(The Last Lecture)' 동영상이 UCC를 타고 전 세계에 유포되어 이미 수백만, 어쩌면 앞으로 올 세대를 포함하여 수천만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게 될 그의 위대한 유산(Legacy)으로 결실을 맺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저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 컨설턴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스티븐 코비 박사는 '낭비 없는 효과성 높은 삶이란 우리의 가치관이 원칙(또는 진리)에 접근해 이와 일체가 될 때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치관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적 패러다임에 근거해 선택한 신념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상(我相)에 의해 얼마간 비틀려져 있게 마련이다.

불 타는 집[火宅] 속에서 놀이에 빠져 놀고 있는 귀한 자식들을 안전하게 구해 내기 위해 <법화경> '비유품'에 등장하는 장자는, 아이들이 놀이를 멈추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세 대의 멋진 수레를 제시한다. 코칭의 뿌리를 보여주는 오래된 사례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심의필번호 제070605-중-336호
건선치료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이젠 긁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습진, 알레르기, 비염, 갑상선클리닉, 임파선클리닉
풍부한 치료 경험,
정통 한방 치료법을 바탕으로
자생초 한의원 아토피크리닉에서
아토피 환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자생초 한의원 JASAENGCHO ORIENTAL CLINIC
TEL 053)746-0075
위치 : 대구 지방노동청 옆, 아웃백(황금점)옆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 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찰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화제의 신간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득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전국 서점 판매중!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오쇼 라즈니쉬 지음 / 길연 옮김 신국판 / 242쪽 / 12,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스님 지음/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얼마나 많은 '욕심의 나뭇잎' 들을 달고 살았던가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25〉

제6장 동행 4


그림 · 최문정

염불암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산길은 풀숲과 산죽 사이로 희미하게 나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는 증거였다. 대연거사는 산길 초입을 좀 지나서부터 땀을 흘렸다. 앞서가던 현각거사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좀 쉬었다 가지요."

대연거사는 넘어져 있는 잣나무 고목 등걸에 앉았다. 잣나무 고목은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사람으로 치자면 나이 들어 골다공증을 앓다가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대연거사는 문득 허리가 잔뜩 구부러진 원당암의 노파를 떠올렸다. 그 노파는 현각거사의 어머니임이 분명했다.

"현각거사님, 원당암 공양간에 계신 분과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이 저의 어머님입니다."

"혜암 큰스님 속가 여동생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20년도 넘게 원당암 공양간 일을 보고 있습니다."

"원당암 원주스님께서는 매일 법당 부처님께 밥을 올리는 마지보살님이라고 부르더군요."

현각거사가 쑥스럽게 웃었다.

"어머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는 큰스님이 참 인간적으로 정이 많은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현각이 원당암에 살고 있을 때였다. 속가에 있는 어머니가 별세했다는 전보가 왔다. 현각은 황망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일단 혜암스님에게 보고하고 나서 고향으로 가려 했다. 현각은 혜암스님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쏟고 말았다. 현각에게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의지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주와 같은 존재였다. 어머니는 시집을 갔으나 아버지가 본처를 두고 있었으므로 잠깐 살다가 친정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후부터 현각의 가족 관계는 어머니와 외갓집으로 국한돼 버렸던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은 현각에게 우주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 큰스님께서는 오고감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것을 얘기해주시더군요. 우는 저를 보고는 어쩔 것이냐고 다독거리시는데 혈육의 정 같은 것을 느꼈지요. 큰스님께서도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정은 각별했습니다. 제삿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해인사 용탑전으로 가셔서 재를 지냈으니까요."

대연거사는 현각거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속가 조카인 현각에게 "어쩔 것이냐"고 위로하던 혜암스님의 자상한 모습도 상상이 갔다. 갑자기 현각거사가 배낭에서 책을 한 권 꺼내 권했다.

"염불암에서 대해서 어떤 작가가 쓴 글인데 참 좋아요. 한 번 읽어보시지요."

대연거사는 땀도 들일 겸 넘어진 고목에 앉아서 책장을 넘겼다. 책은 염불암 사진과 함께 편집돼 있어 시원한 느낌이 들었지만 계절은 벌써 가을로 가 있었다.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는 계절이다. 나도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인다. 생각 끝에 찾아온 곳이 강원도 오대산이다. 오대산에는 산 이름 그대로 오대가 있다.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가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나는 지금 서대 염불암으로 가는 산길을 걷고 있다.

물론 오대산에는 월정사, 상원사라는 큰절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왔다 간다. 기념사진 찍고 단풍 구경하고 낯선 절간을 기웃거리다가 쓰레기를 남기고 떠나간다. 하긴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라도 가벼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세상 밖으로 소풍 나와서 웃고 울고 떠들다가 추억을 몇 장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대는 공간에서 벗어나보라.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왜 헝클어져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구불구불한 산길은 잃어버린 탯줄을 연상시킨다.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줄이었지만 탄생 이후는 잘라버리는 것이 탯줄이다. 모태로부터 분리된 아픔과 외로움이 어찌 저 깊은 기억의 밑바닥에 남아 있지 않을까.

산길을 걷다보면 심연의 고독이 산죽의 이파리처럼 살갗을 찌를 듯 다가온다. 언젠가 달빛이 얹힌 산죽을 본 적이 있다. 산죽은 무서리처럼 차갑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 정경이 생생하다. 우리 의식도 그렇게 빛을 내며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낙엽을 떨구고 있는 나무들이 길 떠나는 수행자 같다. 나도 무언가를 미련 없이 떨구고 싶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욕심의 나뭇잎들을 달고 살았던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술만이 아니다. 욕심에도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알코올 성분이 있다. 감성과 이성, 주의와 사상, 통념과 관념 등도 집착하면 사람을 취하게 한다. 도취하면 마음은 닫혀지고 지혜는 멀어진다. 그러나 가을 산길에서는 자신의 헛된 나뭇잎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간다. 찬물을 들이켠 듯 자아도취와 마취 상태에서 차츰 깨어난다. 한 계단 한 계단 닦아 간다는 점수(漸修)란 이런 경계일 것이다. 깨달음이란 의미가 깨어남과 동의어란 생각이 든다.

차가운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린다. 소리들은 소쇄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지켜야 할 제자리에서 무심히 소리 낼 뿐 치사한 인간처럼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지 않는다. 화합을 내세운 적이 없지만 화합하는 자연의 선율에 마음이 충만해진다. 일찍이 나옹선사는 서대보다 높은 곳에 있는 북대 미륵암에서 살았다. 선사가 지어 부른 노래는 〈토굴가〉였다. 두런거려 보면 선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짐작이 간다.

서대 염불암 입구에는 우통수(于筒水)라는 정겨운 샘이 있다. 이 샘의 한 방울이 흘러넘쳐 도도한 남한강이 된다. 그러니 이 샘물을 한 모금 마신다면 한강물을 들이켜는 것과 다름없다. 나도 한 입에 한강 물을 삼킨다. 가파른 산길에서 땀을 흘린 자만이 마시는 축복의 물이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법이다. 우통수에서 다시 힘을 얻는다.

마침내 나는 서대 염불암 마당에 선다. 작년에 왔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너와집 암자이다. 투명한 햇살을 받아 빛나는 등신불 앞에 선 느낌이다. 누구라도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있는 너와집 암자 뜰에 서 보라. 무소유가 무언지 스스로 깨달으리라. 나옹스님이 환생한 듯 〈토굴가〉가 절절하게 들려올지 모른다. 욕망과 성냄의 짐을 얼마나 무겁게 지고 사는지 절로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꼭꼭 숨었던 '나 안의 나'가 보이게 될 터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머리가 무거워진다. 나로 인하여 산짐승의 발길이 잦았던 서대 염불암이 사람 떼로 몸살을 앓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무례한 잡인(雜人)의 발걸음이 두렵다.

대연거사는 글을 다 읽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탯줄 같은 산길 때문에 현각거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한 듯도 했다. 아무튼 글쓴이는 무례한 잡인의 발걸음을 경계했는데, 허락받지 않고 찾아가는 자신의 방문이 염치없이 느껴졌다. 그래도 현각거사는 염불암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 가볍게 골짜기를 건넜다.

골짜기를 건넌 다음 산등성이를 향해 오르자, 하늘이 손바닥 만하게 보였다. 잡인의 출입을 경고하듯 사립문도 나타났다. 사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현각거사가 사립문을 바로 세우고는 말했다.

"정진 중이라면 닫혀 있을 겁니다. 열려져 있어 다행입니다. 큰스님은 이 암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일타 큰스님과 함께 살았다고도 합니다."

"지족암에 사셨던 큰스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스님과는 도반이었지요. 탁마도 하고 때로는 분심을 일으키는 경쟁 관계였지요. 그런 사이라면 지금 종정스님이신 법전 큰스님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세 분이 탁마도 하고 분심을 일으키게 하는 도반이었다는 말씀이군요."

"해인사의 어떤 스님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더군요."

분심(憤心)이란 내 자신이 부처인데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해 하는 마음을 뜻했다. 경봉선사도 해인사 퇴설당의 안거 동안에 분심을 내어 '예전 성현들도 대장부요, 나도 대장부인데 나는 과거 몇 만 겁 동안 내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생사 윤회하여 온갖 고통을 받아왔구나!' 하고 퇴설당 기둥에 머리를 쿵쿵 찧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개울가로 나가 얼음을 입에 물고 용맹 정진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그런가 하면 망상과 졸음으로 화두를 곧잘 놓치고는, 그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장경각 뒷산으로 올라가 소리 내어 울었다고 한다. 구참 수좌들 앞에서는 차마 울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자책하고 분심을 내어 울었던 것이다. 가야산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흠뻑 맞으며 우는 날도 있었고, 뻐꾸기가 뻐꾹뻐꾹 청승맞게 우는 날 뻐꾸기와 함께 울고 산을 내려온 날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면 전생부터 쌓인 두터운 업장이 씻겨 내리는 느낌이 들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한 동안 화두가 역력하게 들릴 때도 있었다고 한다.

사립문을 지나자, 과연 책에 소개한 대로 조그만 샘이 보였다. 샘 옆에는 '우통수'라는 나무 표지판이 꽂혀 있었다. 이 샘이 남한강의 발원지라고 하니 성지에 온 듯도 했다.

"현각거사님, 방거사가 마조선사에게 '일체의 존재와 상관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묻자, 마조선사가 '서강의 물을 한입에 다 마시고 오면 말해주겠다' 고 했는데, 거사님은 제가 남한강의 발원지인 이 샘물을 마신다면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하하하."

"한 마디 할 수 있는 득력을 얻을 때까지 화두를 들고 있겠습니다."

대연거사는 장난스러웠고 현각거사는 진지했다. 그 바람에 대연거사는 말장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우통수에서 암자까지는 스무 걸음밖에 되지 않았다. 그때 마침 암자에서 한 스님이 큰 냄비를 들고 우통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스님이 두 사람을 보더니 말했다.

"점심공양은 했습니까."

"점심때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잘 됐네요. 아침에 삶아 놓은 국수가 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에게 암자에 먼저 가 있으라면서 주의를 주었다.

"앉을 때 조심하시오. 여긴 긴 놈들이 많아요."

"긴 놈이라뇨."

"습해서 그런지 긴 놈들이 많습니다. 긴 놈들이 산과 암자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 때나 돌아다니지요."

"아, 뱀을 말씀하시는군요."

"저야 뭐 같이 삽니다. 어제도 아궁이에 불을 때려고 하는데 긴 놈이 나와서 마당 밖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현각거사가 우통수에서 물을 떠온 스님에게 합장했다. 대연거사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들이 찾아와 수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많이 오면 그렇지만 한두 분은 괜찮습니다."

삶은 국수를 우통수 샘물에 타는 것으로 국수 세 그릇이 눈 깜작할 동안에 만들어졌다. 대연거사는 속으로 '이보다 더 간소한 식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스님이 작년 겨울에 담갔다는 배추김치 한 사발과 국수 세 그릇이 전부였다.

'혜암 큰스님도 이곳에서 이 스님처럼 살았으리라.'

국수를 단숨에 넘기고 나서 그런 상념에 잠겨 있는데, 스님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정진하려는 듯 작별하자고 눈인사를 했다.

"아쉽습니다. 며칠 전에만 오셨어도 하얗게 만개한 별꽃을 보셨을 텐데."<계속>

혜암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정 각별
매년 반드시 해인사 용탑에서 재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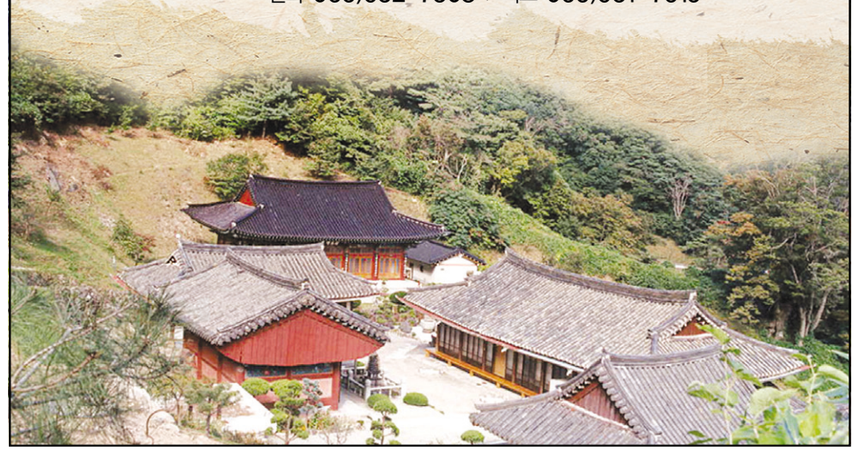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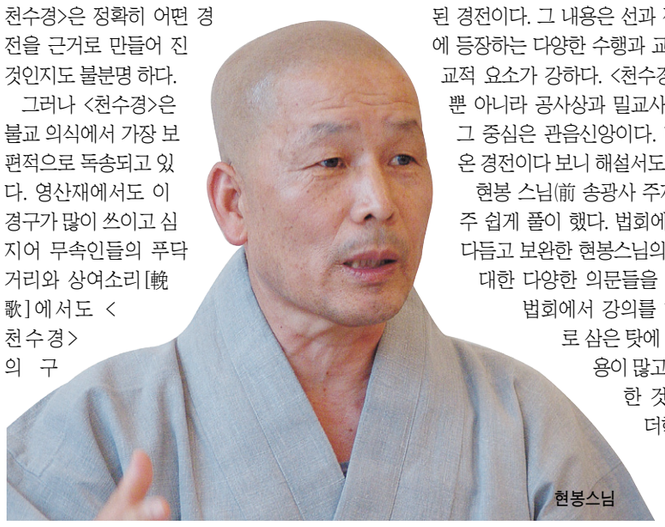


꽃과 연기로 읽는 천수경 '깊은 맛' 나네

현봉스님 천수경 강의 '너는 또다른 나'… 생활 수행의 길 전해

<천수경> 한 번 독송하지 않은 불자가 있을까? 법회에서 <반야심경>과 함께 필수적으로 봉독하는 <천수경>.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천수경>을 두고 의문을 갖는다. 다른 경전은 다 '여시아문'으로 시작 하는데 천수경은 그렇지 않다. 바로 '정구업진언'으로 시작된다. 경전을 이루는 여섯 가지 기본 요소(6성취)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천수경>을 경전으로 봐야 하는가? 대장경 목록에 조차 없는 <천수경>은 정확히 어떤 경전을 근거로 만들어 진 것인지도 불분명 하다.

그러나 <천수경>은 불교 의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독송되고 있다. 영산재에서도 이 경구가 많이 쓰이고 심지어 무속인들의 푸닥거리와 상여소리[輓歌]에서도 <천수경>의 구절들이 암송된다. 주문과 게송이 섞여 있는 이 <천수경>의 저본은 서기 7세기경 인도에서 당나라로 건너갔던 가범달마가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봉스님

오늘날 우리가 독송하는 <천수경>은 통일신라 이후 다소 내용적 변화를 보여 오다가 1969년에 형태를 완성 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수경>은 편집된 경전이다. 그 내용은 선과 정토 화엄 등 불교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수행과 교리를 포괄하는 통불교적 요소가 강하다. <천수경>안에는 화엄 정토뿐 아니라 공사상과 밀교사상까지 담겨 있지만 그 중심은 관음신앙이다. 대중적 사랑을 받아온 경전이다 보니 해설서도 10여종이 나왔다.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은 <천수경>을 아주 쉽게 풀이 했다. 법회에서 강의한 내용들을 다듬고 보완한 현봉스님의 해설은 <천수경>에 대한 다양한 의문들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법회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삼은 탓에 다른 경전 구절의 인용이 많고 다양한 예화를 가미한 것이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

주문에 해당하는 글들은 해석 하지 않은 것이 그간의 관례처럼 인식되어 왔지만 현봉 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자세하게 풀이하고 그 안팎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의 안목으로 <천수경>을 풀이 한 점이 경전을 이해하는 새로운 맛으로 다가온다. 경전에 들어 있는 상당수의 게송들이 선의 '한 경지'에 있음을 선사의 안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경전의 의미를 새기고 있는데, 책의 제목 '너는 또 다른 나' 역시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현봉 스님은 '무애대비심'을 이렇게 해설한다.

"너니 나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분별의 조각이 끼어들면 무애의 대비심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건지는 '나'가 있고 건져야 할 '너'가 있으면 무애가 아닙니다. 너는 바로 나의 다른 모습이며 너는 또 다른 나일뿐이니, 다른 모든 것이 같은 하나이고 한 몸인 동체대비심이 무애대비심입니다."

불광출판사 | 1만원 5000원

임연태 기자

부처님의 육성으로 '금강경' 이해

대승초기 경전인 <금강경>을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 육성이 묻어나는 초기 경전인 <아함경>을 본다는 발상이 신선하다. 저자는 <금강경>의 내용과 용어가 초기경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 천착해 <아함경>의 내용을 비춰 본 것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용어를 <아함경>의 설명으로 이해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의 개념을 <아함경> '사문법사문과경'의 내용으로 설하는 것이다. 아함부의 경전들이 부처님의 육성이란 점에서 보면 <금강경>을 부처님의 견해로 해석한 것이란 뜻이다.

책은 서론 부분에서 <아함경>과 <금강경>을 서지적으로 검토하고 부파불교의 성립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이어 <금강경> 32분 전체를 용어 해설과 의미풀이 등으로 강설한다.



아함경과 함께 보는 금강경
이상규 편저
선연 펴냄
1만5000원

원효를 만나면 원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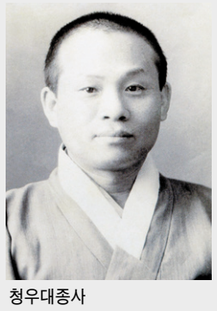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고영섭 지음
한길사 펴냄
1만4000원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이라는 부제가 설명하듯 원효의 가치를 현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왜 다시 원효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스스로 답한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無分別),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無執着), 내가 지니지 못한 것을 남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無所有) 지성인이 그립기 때문"이라고.

또 저자는 우리에게 원효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저자는 원효의 '보살적인 삶'에 방점을 찍는다. 그리고 원효를 "어떠한 경해에도 치우침이 없었지만 그의 견해가 없지 않았으며 타인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성인이었다. 통찰력(神)과 문장력(敎)의 화회를 통해 시대의삼장법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론에 밝았으면서도 실천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상기 시키고 있다.

수행 · 교단 중흥에 헌신 '큰 족적'


청우대종사

수행과 종단의 '정화운동' 그리고 조계사 대흥사 등 큰절의 불사를 주도했던 청우대종사의 문집이 나왔다. 청우문도회(대표 재덕)가 묶은 문집은 청우 대종사의 연보와 생애, 비문, 행장을 통해 본 사상, 법어, 편지글 등으로 편집됐다. 대덕 명사들이 기억하는 청우대종사에 대한 글과 문도들이 스승을 기리는 글, 법통을 이어준 선사(先師)들, 영호문도회와 사형제들 도반들에 대한 글도 각종 자료 사진들과 함께 수록됐다. 서문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격려사는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이 각각 썼다.

청우 대종사는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출생(1912년)해 12세에 전북 순창 구암사에서 영호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건봉사 불교전문강원을 거쳐 안변 석왕사 서울 개운사 강원 등에서 이력을 마쳤다. 보현사 유점사 백양사 등에서 안거 정진 했으며 '불교정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청우 대종사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하며 이사원융의 모범을 보였다.



나한님들 다 모이셨네!

경전의 앞 대목에서 '천이백오십인'이라는 숫자를 자주 보게 된다. 부처님의 상수제자 즉 부처님을 늘 따라 다니는 제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수행이 수승하여 아라한을 이룬 분들이었다. 이를 '1250 아라한'이라고 한다. 16나한이나 500나한 등에 비해 최대로 큰 개념의 나한군인 것이다. 목조각가 임영창씨가 1250 나한의 형상을 그림으로 현신시켰다. 목조각을 위한 초본이자 하나의 회화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임씨는 "불교미술은 철저하게 불교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소신이 이 작업을 하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천이백오십나한도
임영창 그림
성불사 펴냄
1십8만원

천배 올리는 정성으로

서울 금호동 금강선원에서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자훈 스님이 천불의 명호를 부르며 천배를 하는 참회발원 기도집을 묶었다. 절 수행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절이 아니라 참회와 발원을 함께 하는 절 수행의 길을 안내한다. "기도란 자신이 지은 업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참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자훈 스님은 "신구의 삼업을 참회하고 간절한 일념으로 공양예경 참회 염송 독경 진언 염불 절 기도를 종합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천불천배참회발원기도집
자훈 스님 편저
정우서적 펴냄
2만원

몸 · 마음 조화 만들기

'내 안의 또 다른 큰 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부처의 씨앗이라면? 저자는 먼저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내 안의 나'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다. 불성이다. 그러나 불성은 아무렇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황용하는 것도 아니다. 작복을 바탕으로 한 정진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저자는 '석가와 예수가 살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각종 수행법들의 가치를 조명한다. 특정 사상과 종교를 초월해 인간으로서 닦아야 할 근원적인 수행의 길을 안내한다.



행여, 깨달음을 얻으려거든
김성갑 지음
관음출판사 펴냄
1만2000원

www.hyunbul.com으로 오세요.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3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4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5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6	부처를 쏴라	현각	김영사
7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8	행복한 출근길	법륜	정토
9	승가의범	동주	홍원사
10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거장들의 '서권기' 만나자

동방대학원대 설립 주역 추모전… 6월 25일부터 백악미술관


영운 김용진.


일중 김충현.


여초 김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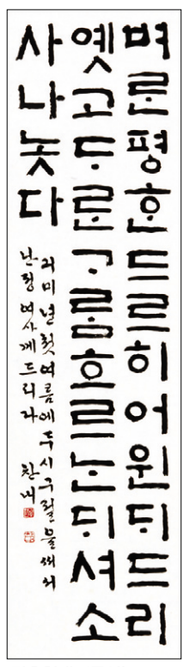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 한국 시서화의 맥을 잇고 1956년 '동방연서회(東方硏書會)'를 창립하며 근현대 한국 서단을 이끈 영운 김용진(1878~1968), 일중 김충현(1921~2006), 여초 김응현(1927~2007) 선생 3인의 작품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전시된다.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는 6월 25일 오후 5시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동방 창설 삼선생 추모전'을 개최한다.

한국 서단의 거목들이자 동방대학원대학교 창립에 기여한 3인의 서예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안동 김씨 후손과 동방연서회 후학들이 소장하고 있던 희귀 작품 105점이 선보인다. 영운 서생의 '목단(牧丹)'과 '풍운산림(風雲山林)', 일중 선생의 '두시(杜詩)'와 '의식분유(衣食分有)', 여초 선생의 '도각어(陶覺語)'와 '空山落木(공산낙목)' 등 대표작은 물론 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체의 작품이 망라돼 있다.

동방대학원대 이영철 교수(서화심미학과)는 "고매한 인품과 학문적 성취, 한국적 서예를 정립한 세 분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기란 흔치 않은 기회"라며 "한국 서화의 맥을 잇고자 했던 높은 뜻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세 선생의 작품전은 동방연서회 창립 50주년인 2007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김충현(2006), 김응현(2007년) 선생의 잇따른 타계로 미뤄지다 이번에 추모전 형태로 열리게 됐다.


김충현 作 '두시'.


김용진 作 '목단'(위)과 김응현 作 '절차탁마'.

당호인 '구룡산인(九龍山人)'으로 더 유명한 영운 선생은 일제강점 후 벼슬을 그만두고 초야에 묻혀 시·서·화로 망국의 한을 달랜 조선의 마지막 문인이다. 중국의 신문인화를 배웠지만 중봉 위주의 운필로 우리 정서와 감흥을 담아낸 서도를 후학에 전수해 오늘날 현대 문인화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일중 선생은 고전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해 '해서(楷書)'를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일중체(一中體)'를 완성시켰다. 옛 삼성그룹 로고 '三星', 현대그룹 로고 '現代', 태평양 '설록차' 등 휘호로 국민에게도 친숙한 글씨는 순천 송광사 대웅전, 완주 송광사 일주문 편액, 강남 봉은사 등 전국 사찰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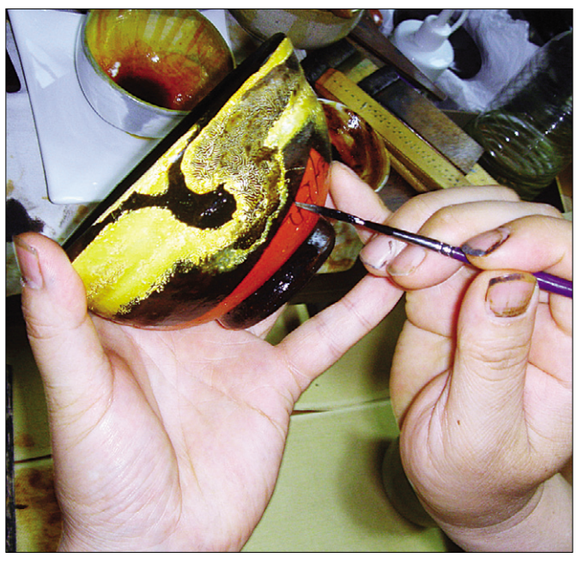
일중 선생의 친동생인 여초 선생은 동방연서회를 통해 한국 서단을 이끌어 왔다. 고고한 학을 연상시키는 기품과 웅훈함이 넘치는 필체는 중국 서단의 극찬을 받았다. 직지사, 길상사, 봉국사 등 전국 유명 사찰의 편액을 남겼다. 강원도 인제군은 지난해 4월 북면 용대리에 '여초 김응현 서예기념관' 착공식을 갖기도 했다.

한편, 동방대학원대학교는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심우장(서울기념물 제7호)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65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 (02) 3668-9824

김성우 기자

"황칠은 확실한 미래자원"

구영국 황칠공예 명인, 200년전 황칠 복원




찻그릇에 황칠을 칠하는 구영국 명인.

"옻칠이 천년 간다면 황칠은 만년을 간답니다. 그것은 황실과 왕실에서만 사용됐던 황칠의 뛰어난 기능과 효능 때문이지요."

'황칠(黃漆)'은 황금빛이 나는 천연 칠감(도료)으로 삼국시대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애용됐다. 황칠나무 수액에서 얻은 도료를 칠하면 금박을 입힌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은은한 금빛이 나고, 좀과 녹이 슬지 않는 황칠은 몇백년이 지나도 금빛이 유지된다. 그러나 황칠공예는 200여 년 전에 맥이 끊겼다. 백사 구영국(49·白士 具永國) 황칠공예 명인(127호)은 "세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만의 황칠공예 전통을 복원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아울러 황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인사동 한국공예문화진흥원내에 자리한 한국전통황칠연구소에서 만난 구영국 명인은 오랫동안 황칠공예가 사라졌던 이유 중 하나는 황칠의 수액 채취량이 극소량이었던데다 황칠 비법의 맥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고 끊어졌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황칠은 그 희귀함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 조선 왕실에서조차 사용이 금지되고 중국 베이징 자금성의 천장, 벽, 용상 등에 황제의 명예를 높이는 데만 사용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황칠을 바치기에도 공급량이 모자라서 치자 물에 들기름을 발라 황칠대용으로 사용했는데, '중국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황칠나무에 구멍을 뚫고 호초를 넣어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밤에 몰래 도끼로 아예 베어내 버리기도 했다'고 <목민심서> '산림' 편에 기록돼 있을 정도입니다."

황칠은 황칠나무 껍질에 상처를 입혀 뽑아낸 수액으로, 유백색이던 액이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서서히 황색으로 바뀌는데 이를 정제해 만든다. 황칠나무는 거제도, 완도, 보길도, 홍도 등 남서해안과 섬 지역에서 자란다. 그러나 수령 15년이 지나야 수액 채취가 가능하고, 채취량 또한 나무당 8.6g에 지나지 않는 귀한 천연도료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식향 성분이 황칠에서 추출된다'고 적혀있다. 금박이 눈부시어 요란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황칠은 은은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빛을 낸다는 게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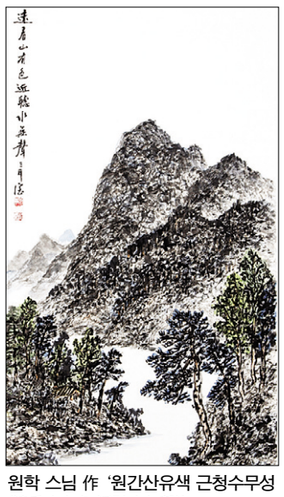
"1979년 전통공예에 입문, 1990년 이상호 선생에게 전통 칠공예를 사사해 디자인을 해오던 중 1985년 우연히 김제 금산사에서 철안 노스님이 건네주신 천연 황칠원액과의 숙명적 인연으로 인해 스님과의 약속대로 비밀리에 작업과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실패와 좌절, 단념과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황칠공예의 복원을 통해 민족의 얼을 되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울 곳도 없었고 전수받을 곳도 없었던 황칠공예는 구영국 명인의 피나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200년간 사라졌던 단절의 아픔을 뛰어넘어 다시 찬란한 황금빛을 발하고 있다.

구 명인의 작품은 청와대 대통령 영부인접견실 전통공예작품 제작과 MBC 드라마 '궁'의 황칠작품 제작 외에도 각종 작품 전시회를 통해 황칠공예의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2002년 신미술대전 대상과 2003년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특별상을 받은 바 있는 구 명인은 4월 4~10일 초대전에 이어 전국 순회 전시회를 준비중이며, 곧 <한국의 황칠공예>란 책도 펴낼 예정이다.

구 명인은 "지구상에서 1속1종의 황칠나무는 우리나라 밖에 없기에, 황칠은 우리의 보물이며 미래자원이기도 하다"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황칠공예가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17)233-7698

김성우 기자


원학 스님 作 '원간산유색 근청수무성(遠看山有色 近聽水無聲)'.

원학 스님 15년만에 개인전

추사 김정희의 맥을 이은 우계 오우선 선생에게 남종화(南宗畵)를 사사한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이 15년만에 개인전을 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6월 29일~7월 5일 나무갤러리에서 '삼이실(三耳室) 원학 스님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종화의 전통을 계승한 수묵화 56점의 선향(禪香)을 음미할 수 있다. 박물관측은 "남종화의 맥을 잇고 있는 원학 스님의 그림은 담백한 수묵(水墨)과 속기(俗氣) 없는 맑은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선화일체(禪畵一體)를 간직한 스님의 초대전을 통해 시·서·화의 전통을 새롭게 이해하고 바쁜 일상 속에 선심(禪心)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94년 10월 공평아트홀에서 불교신문 지령 1500호 기념초대전을 가진 이후 15년간의 공백을 깨고 6번째 개인전을 여는 원학 스님은 1977년 서울 중앙불교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 스님은 불교미술제 우수상(1974), 동아미술제 입선(1980) 등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수행 틈틈이 선화일여(禪畵一如)의 정진을 계속해 왔다. (02)2011-1960

김성우 기자


원학 스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과의 법거량도 실려 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암록 / 천부경 / 금강경 / 신심명
증도가 / 반야심경 / 선문염송 전30권 중 13권 / 환단고기 전5권
법융선사 심명 / 선가귀감 / 법성게 / 주머니 속의 심경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기우목동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신간! 초발심자경문

예로부터 한문 문장의 흐름을 알아 제대로 그 뜻을 새기는 힘인 문리(文理)를 터득하기 위해 화엄경을 본 사람도 초발심자경문을 새로이 독송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초발심자경문은 그 문장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구성이 치밀한 명문으로 꼽힌다. 그런데, 요즈음 출간되어 나온 초발심자경문은 대부분 의역을 위주로 해서 새겨져 있어 문리를 터득하는 데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 초발심자경문은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한문 문장을 새기는 순서에 의해 직역한 것이다. 또한 불도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체험을 통한 수행지침을 실어놓았으니 신심과 발심을 더하는 살아있는 수행지침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2 밥은 분쟁

'중국 냉면파'와 '자장면파'의 대결

여름의 문턱인 6월이면 전국의 대학이 일제히 방학을 맞는다. 한 학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오늘은 나를 비롯한 철학과의 만학도들이 교수님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도착한 곳은 학교근처에서 이십 여분 떨어진 중식당이었다. 한 학기의 마지막 모임인 만큼 오늘은 철학과 교수님들 세 분과 만학도들이 전원 참석했다. 한때 스님이기도 했다는 솔직담백한 배 교수님과, 겸손한 인품이 예수와도 같은 이 교수님, 그리고 세 시간을 내리 강의하면서도 물 한 모금 드시지 않는 정열의 장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학식과 인품과 개성을 떠올려보니, 하나같이 반 도인과도 같은 스승들이라 졸지에 아주 복 있는 학생이 됐다.



담백한 육수와 면발의 조화가 일품인 중국 냉면

고량주로 시작된 대화는 소주와 정종으로 이어져 동양의 술기행과 역사로 확대되고, 어쩌다가 북경올림픽과 경극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왕지사 중국집에까지 온 마당에 동양철학을 전공한 장 교수님은 중국의 경극과 무협지의 역사까지 훑어준다. 그러한 와중, 일명 '중국 냉면파'와 '자장면파'로 당파가 갈린 것은 전가복과 깐풍기가 바닥을 드러낼 즈음이다.

"중국집에 오면 자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어째 오늘은 자장면 구경을 못하겠네요."(웃음)

한 언니가 입을 떼기가 무섭게 부산아저씨는 "뭐니 뭐니 해도 마무리는 짬뽕이죠"라며 기다렸다는 듯 장단을 맞추고, "이 집은 중국식 냉면이 별미입니다"라며 장 교수님은 적극 추천메뉴를 내세운다.

"그래도 나는 자장면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더라고요."

가만히 정세를 살피던 이 교수님은 자장면을 강하게 옹호하고, 말이 없던 배 교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듯 "나는 자장면~"이라고 외친다.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혼란의 시간을 잠시 보낸 끝에 결국에는 이 교수님과 배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자장면파'와 장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중국 냉면파'로 파가 나뉘었다.

"그런데 이런 깨끗한 중국집은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로 자장면을 시키며 안됩니데이. 짜장이란 게 색깔이 시꺼메가 이건 뭐 손님이 먹다 남은 짜장을 갖다 부어가 그걸 다시 끓여가 내 온다 안합다니까."

한 일원의 활약에 힘입은 장 교수님은 그 여세를 몰아, 자장면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들추어내본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수타면을 하는 중국집엘 갔는데 주방장이 면을 치는데 얼마나 긴지 바닥에 막 닿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걸 먹어야 되나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걸 또 그냥 치나요. 손바닥에 침을 한 번씩 퉤퉤 뱉잖아요. 어떤 주방장은 운동삼아 반죽을 치는데, 어떨 때는 아예 웃통도 벗어 불고 던지고 때리고 하는데 이건 뭐 온몸에 땀이 번들번들해갖고 말도 마이소."

장교수님을 지지하는 한 만학도 아저씨의 동조에 한 언니는 "짜장면이 맛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땀이 들어가 짭쪼름하니 간이 되어가 맛있다 안합니까"라며 특유의 넉살까지 보탠다.

냉면파 일당들의 연이은 공격을 가만히 응시하던 이 교수님은 제발 그만좀 하라는 표정이 역력하고, 자장면을 말없이 계속 비벼대기만 하던 배 교수님은 "아이, 다른 걸로 바꿔줘!"라며 인내력의 한계를 드러내고야 만다. 하지만 달콤한 자장소스가 버무려진 자장면 한 젓가락에 그 마음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배교수님은 이내 평정심을 찾는다.

한편 냉면파의 일원인 나는 새로운 스타일의 중국식 냉면에 사로잡혀 "역시 줄을 잘 서야해"라며 내심 탁월한 선택에 대한 쾌재를 부른다. 깔끔하고 담백한 육수와 면발의 조화가 일품인 냉면과 '추억의 맛'의 대표주자인 자장면의 그 틋이 비워지는 동안에는 저절로 평화협정이 되어, 냉면파는 냉면파대로 자장면파는 자장면파대로 아쉬울 것이 없게 되었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무의미해진 화해의 모드 속에서 중립을 고수하던 만학도의 대표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방학 때는 어디 공기 좋고 물 맑은 데로 자리 정해 한 번 더 모이면 좋겠습니데이~"

다음에는 어떤 당파 분쟁이 생길는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8 소통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긍정적인 언어습관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재물과 물질을 베푸는 재시(財施), 진리를 가르쳐 주는 법시(法施),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무외시(無畏施)다. 그 중 법시(法施)나 무외시(無畏施)는 모두 '말(言語)'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듯 '말(言語)'은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고, 고통 받고 괴로운 사람도 한순간에 구해줄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위력을 지녔다.

말에는 반드시 그 파장의 에너지가 존재하므로 우리가 하는 말에 인생은 반응하게 돼있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의해 우리 삶의 미래가 결정되게 돼있다.

항상 '재수 없다'를 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로 재수가 없어지고, 늘 '다 잘 되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말을 입에서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은 파장의 에너지를 일으켜 우주에 그대로 고해지고 그 말을 전해들은 우주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반응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에 항상 아끼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되 분명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 뱉고, 어떤 말을 상대에게 해야 하는 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어떤 말을 내뱉을 것인가?

1. 격려의 언어를 사용한다.

나 자신은 물론 상대에게도 그 사람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김빠지게 하는 말보다는 "다 잘 될거야", "잘 하고 있어" 등의 격려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 같고, 위안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받아서 기운이 나고, 없던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 상대의 에너지는 그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한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상생되어 전달된다.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그 좋은 것을 어찌 안 할 수 있겠는가?

2. 축복의 언어를 사용한다.

누군가를 축복해준다는 것은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구원의 치유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지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환자에게 사망선고를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한 것으로 듣고 오해한 환자가 전혀 죽을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일화는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일깨워주는 이야기다.

3. 승리의 언어를 사용한다.

항상 걱정하고, 부정하고,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걱정스러운 일이 나에게 생길 뿐이다. 그러나 항상 긍정하고, 낙관적으로 해피한 언어를 사용하면 밝고 즐거운 일, 긍정적이며 행복한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 당기 듯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있는 그대로 현실세계에서 구현되기 마련이다.

<열반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부처님 목소리[一切聲是佛聲]"라고 했다. 부처님 목소리와도 같은 격려, 축복,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내뱉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일대일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필살토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계속)

(02)576-7575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12 <끝>

유익성분 다량함량 · 항상성 유지

태삼(太蔘) 즉, 천년초는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다양한 질환을 호전시키는데 효과가 좋다. 이유는 천년초가 지닌 성분들이 다른 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년초에는 다이어트에 좋고 장에 좋다는 식이섬유가 32.5% 함유돼있다. 과일의 경우 식이섬유가 보통 0.19~2.9%정도 함유됐는데 천년초는 이보다 최소 11배에서 최대 171배나 많이 들어있다. 채소와 비교 해보면 최대 33배 많은 양이 들어있으며 곡물과 비교해서도 최대치가 27배나 섬유질이 많이 함유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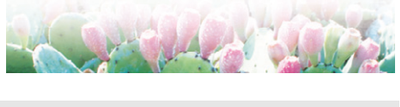
항암 · 항염 작용을 하고 인체 호르몬과 구성성분이 비슷한 플라노보이드 함량은 천년초 전체의 5%를 차지한다. 이수치는 피부노화를 막는 율무에 0.19%, 표고버섯에 0.21%, 칡뿌리에 2.21%가 함유돼있다. 천년초의 플라노보이드 양은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다.

비타민 C의 경우는 알로에의 5배나 함유되어있다. 칼슘의 함량은 칼슘의 왕인 멸치에 비교해서 8배가 들어있으며 뼈가 잘 붙게하는 유명한 홍화씨와 비교해서는 무려 24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다.

천년초와 타 식물과의 몇 가지 성분을 비교했을 때 천년초에는 엄청난 양의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천년초에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모두 다 들어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천년초의 유익성분의 함량은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있다는 대표적인 식물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천년초를 먹게되는 환자들이 겪게 되는 놀라운 항상성의 효과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세상 만물에 다 나름의 역할이 있다면 천년초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본다. 멸종의 위기까지 몰렸다가 최근 다시 세상에 알려지는 태삼 천년초는 큰 삼이란 표현처럼 성분들의 함량도 엄청나지만 위장병을 비롯하여 변비, 당뇨, 고혈압, 천식, 암 등 각종 질환에서 호전된 현상을 보이는 특별한 체험들을 알려준다.

앞으로 천년초의 역할을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겠지만 만물에 깃들여있는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들이 나름 배합되어있어 그 고유의 독특한 특성을 내는 것을 어찌 다 사람이 알 수 있을까? 아직도 과학자들은 항상성이 일어나는 이유조차 몰라 결과적인 현상으로 그 능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듯 천년초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인간에 이로움을 주는 자연의 대자대비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02)780-0098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 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 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 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 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129회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6월 27일(토) 저녁 9시~
2009년 6월 28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개,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 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분당 하얀마음선원
☞ 전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네비게이션에 하얀마음선원 치세요.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아주 특별한 선물 유기농 보이차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숙차 357g + 대나무보관통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용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혀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와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용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고가품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석 후진타오도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용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용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용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유기농 보이차 숙차
· 제 품 명 : 유기농보이차 숙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보이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제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찻잎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시면 훌륭한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주문 : 02)2004-8215~6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작명 1:1 개인지도 수강생 모집
여성, 35-45세
한자관심, PC가능자
"알기쉬운 양 원 준 표준이름사전" 저자
100년 노하우 전수
一法 合掌
011-365-0788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청암(靑巖)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5점이상 50% 할인)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경면주사 판매
수비 법제품 · 상등품
전화 019-254-6320
다음카페 대산물산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큰 법력으로 사물 · 바라 ·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십나는 천도재, 49재, 입종 시다림재 및 구병시식, 불상, 불화 점안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50세 미만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태고종 사찰
031)-585-5747
011-9651-5745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 바랍니다
(비구승)
010-6267-359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 천년고찰
010-6414-5600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1-551-1719

60대
비구승 입니다
부전소임
원합니다
010-3190-8192

기도스님 모시고
싶은 사찰, 포교당
참신한 기도 비구스님
연락 기다립니다
010-2068-0069

세수 70세 이상 승납
30년 이상 노스님 무보시로
10분만 모십니다
방부는 현대식으로 일인 일실입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세수 50세이상 승납 10년 이상)
경북 문경시 농암면 쌍룡사
054)541-675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시내
052)295-3775
011-595-1522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0-60대)
가족처럼 오래 계실 분
▷경남 김해
011-550-06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465-44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강원도 상운사
033)482-3382
011-764-3661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북 북부지방 소도시,
조용한 사찰. 가족처럼
편안하게 함께 지낼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60세 전후)
011-501-7870

신심있는 불자로서
유망한 불교사업에
10억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동업자를 모십니다
02)435-4992

사찰 경리(女) 모집
- PC 가능자
- 숙식 가능자
(대전)
042)282-9270
011-9990-0530

삼사순례는 문경새재 흥천사로 오세요!
생전예수재, 만등불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큰스님법문, 산사음악회, 문학인의 밤, 작은 열린음악회
지역웰빙 농산물직거래장터, 푸짐한 잔치국수 먹거리장터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흥천사카페 : daum.net/hcs5525
연락처 : 043-833-5525 / 011-9585-4908

한옥 / 사찰(寺) 건축 전문
-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일체 고(古)건축 전문 기술자, 기능인들이 완벽한 이론과 경험에 기초하여 책임시공.
- 기초, 토목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의 전문성 차별화된 시공 노-하우

031)581-2120 / 010-6405-2060

대체 의학 비법 전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야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 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 전수 (이론 강의 없이 실기만 가르침)
- ◆우울증, 화병, 변비, 관절염, 복수, 산후풍, 담결림, 기관지염, 신염, 대상포진 등 치료 비법전수 (이상 전수를 3시간에 완료)
- ◆대상 :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출장 방문 가능) ◆수강료 100만s원

010-7703-3825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재(에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 다음카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1일(수) ~ 7월 15일(수) 15일간
- 대구큰절, 갑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은혜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히 속성으로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등
사주 전과정 45만원 부터. 역학상담심리사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당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CD프로그램 재설치승인 및 교환구입 안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www.taotemple.net 051)908-8683

명당 탐지기



TM
심룡척!!

심룡척은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판매되는 기구.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며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 제0464294호)

* 심룡척은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배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 증정 한국역학협회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정체 평형 **일침요법**



주지 혜득 합장

전 문 과 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38개의 혈로 247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 :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 기 간 : 1개월 과정 수강생 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대한불교연합조계종 보 금 정 사
문의 : 053)474-5959 / 010-3535-9797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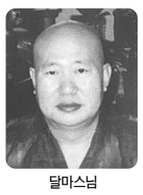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에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토 종 약 초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 (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98,000
-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 ₩98,000
-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98,000
-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 ₩98,000
-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98,000
-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98,000
-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98,000
- *각종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 *상황버섯 전통 항아리 된장 (3년 숙성) 1kg ₩20,000
- *산삼 항아리 된장 (3년 숙성) 1kg ₩100,000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성남시 모란시장 내 묘음정사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부지 : 3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급양도가 : 2억5천

- 위치 : 서울 시내
- 대지 : 40평
- 인법당 : 30평
- 시내요지
- 가액 :4억 5천

- 위치 : 서울
- 대지 : 25평
- 법당 : 25평
- 인법당
- 급양도가 : 1억 7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의령
- 법당 : 20평
- 요사 : 19평
- 부지 : 170평 (실사용 1,000평)
- 가액 : 3억

- 위치 : 마산
- 법당 : 17평
- 요사 : 5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 위치 : 강릉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400(국250)
- 가액 : 9500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정관 신도시 (부산시내)
- 총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 2동
- 앞산 뒷산 산세최고
- 차량진입(주차장완비)
- 지하암반수
- 가액: 7억 5천(개인사정으로 급매도)

- 아름다운 지리산 토굴
- 총대지: 1150평(터밭)
- 토굴(현대식): 30평
- 뒷산(30m 암반수)
- 사계절 계곡물 졸졸 천혜주변경관 및 풍광 최고
- 가액: 2억 2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인접 토굴 최고적지
- 법당 : 20평(30평)
- 요사 황토방2동
- 부지 : 84평
- 가액 : 2억5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 : 부산 바다가 보이는곳
- 법당 25평 목조건물
- 요사 2동
- 부지 117평
- 가액 : 2억9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마산진동
- 법당:2층건물
- 요사:50평
- 부지:120평
- 가액:2억6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사 찰 안 내 (전 세)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소재
- 부지 : 약500평(국유지포함)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80평(방10)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전세2억원(양도가능)
- 특징 :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도심사찰임

- 위치 : 포항시 신광면소재
- 부지 : 약 15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전세 500만원(양도가능)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기도,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조용한토굴(임법당)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277번지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4,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2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고서면 (광주댐부근)
- 평수 : 149평
- 삼존불(약사여래석불) 미륵불(지방문화재)
- 가액 : 8000만원

011-6858-8083

사 찰 안 내 (포교당)

- 경기도(서울외곽)23억
- 부산 3억 7천만원
- 안양 15억
- 포교당(보:700, 월50)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굴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뒤 야산 접 (1000평 이상 쓰고 있음)
- 가액 : 12억

011-286-51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약목역 앞
- 평수 : 약 45평 (시설 완비, 공기 청정) 법당,삼존불,방2,주방,화장실
- 2층건물 중 2층(옥상사용)
- 보증금 1,500만원 / 월10만원 시설비 1,600만원(약간절충)

054)974-0307
017-217-19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군포안양지역
-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 2층전체 80평, 방4칸, 화장실2개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1-685-674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5364-003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 방2, 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001-8476
055)243-375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86평(법당46평), 방3칸, 공양간,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
- 전세 3,500만원/월세 50만원 권리금 없음.
- 시설비 및 비품대는 상의 후결정

010-8011-74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앞
- 4층 건물중 2층 실평수 40평
- 법당 20평, 방2개 욕실, 공양간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고려불화)
- 보증금 1,000만원 8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외 총 2,500만원

010-2665-239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군
- 대지 :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영구건물) 신도실, 창고, 차고, 우물 (4동 조립건물)
- 석불, 금동불 기타 시설완비
- 가액: 3억원

016-417-474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6-850-1208

포 교 당 안 내

최고 시설! 최고 위치!

- 위치: 울산시 태화동 버스정류장앞
- 평수: 40평(법당1, 친견실, 방3칸),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1.0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6374-4446
052)248-4812

포교당 하실 분

현. 포교원(60평)인수하실 분

- 가격절충
- 장소 : 시장 입구 전망 좋음
- 부산시 북구 구포 2동 시장통 입구, 지하철 2호선 구명 · 구남역 에서 5분 거리

주간 051)338-8607
야간 051)338-860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충북 청주 봉명초등학교 옆
- 2층 32평. 법당1, 방2 주방, 샤워실, 화장실
- 삼존불,탱화,영단 갖추어져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 양도 즉시법회가능.역학 보살님도 가능

010-8283-52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사찰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기와법당1동, 기와요사채3동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상수도 사용, 창고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국유지 : 480평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11억 5천만원

051)862-0108
011-563-1545

사찰(급)안내

고급단독주택2동

- 위치 : 청주 상당구
- 1층 단동2동, 요사채35평, 방3개 큰방, 사무실,선방, 주방, 큰거실, 화장실및 욕실
- 법당지은지5년법당 22평 선방 1개 화장실 및 욕실, 마당넓음 법당삼존불, 장태화고불, 후부탱화, 신중탱화1자관세음보살원불100불 심야전기최신, 대지62평,
- 가액: 3억 1천만원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5883-2255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 대지 605평, 건평 130평(4동)
-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 요사채 30평(슬라브 건물)
- 창고 및 화장실 18평)
- 주택 12평(기와건물)
- 가액 : 2억 8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 교 당 (급) 안 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겸 주방 약15평, 옥탑방1
- 보증금800만원 월33만원
- 시설비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탱화 영가단 300만원 법회 가능 역학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30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금정구
- 자연녹지 281평(허가됨)
- 하천부지 약 300평~350평
- 무료 사용부지 약 300평 하천 위에 법당(스레트) 약 40년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람
- 부산 지하철 2분거리

010-6326-8870(법승)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동군 영동대학교에서 2분거리
- 바위와 나무가 어우러진 아늑하고 조용한 암자터
- 영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최고의 상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땅 주변 모두는 2만여평 군유림입니다.
- 토지: 300평
- 가액: 평당 55만원

010-9468-4235
010-4046-6637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전농동
- 법당1, 방1, 다락방1, 목욕탕1, 부엌1, 요사채1동
- 5층건물 5층,옥상전체사용
- 8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6천 2백만원

010-2069-0824

토굴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 대지 : 205평
- 건물: 56평(1층 33평, 2층 23평
- 황토방有, 6月초 신축완공)
- 뒷산 계곡 석축단장, 순수황토 벽돌 목조 기와지붕, 라운드형으로 예쁘고 웅장하게 잘 건축된 별장식
- 비구니스님 수행도량으로 적합하며 합의하여 조금 싸게 양도할 수 있음
- 가액 : 4억 3천

010-6438-3561

황토방 사찰하기 좋은 곳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통도사 5분거리, 국도에서 3분거리
- 소나무산 밑 하천 기와집정자
- 황토방(총 4개동) 7억

011-589-1928

시내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02-2번지
- 대지:150평 사찰운영
- 가액:1억 오천만원
- 시내안사찰로 포교당가능

017-371-8600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도개면
- 사찰 부지터 대지 68평
- 법당 14평(기초공사완료)
- 요사채 13평 완료 주차장 이용가능
- 가액 : 4천 5백만원

011-503-8989
010-8589-655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옛한옥 45평(마당포함)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886-308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 43평, 법당 : 10평
- 요사채 : 15평
- 지방도로 옆에 위치
- 가액: 4천만원

010-3805-352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시장 內)
- 법당 53평, 삼존불, 원불 108불, 신중탱화 104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평수 270평
- 80년 된 고사절입
- 법당 22평(현재공사중) 요사채 33평(완공) 산신각, 창고가 있음 (꼭 하실분만 연락)
- 가액: 1억

010-3553-789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 대지: 300평, 법당: 25평 산신각, 부처님 칠불상모심
- 주차장 시설완비,마을위 산쪽
- 보증금 1천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만원
- 확장이전 관계상 급 양도,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함

010-8829-11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 대지 605평, 건평 130평(4동)
-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 요사채 30평(슬라브 건물)
- 창고 및 화장실 18평)
- 주택 12평(기와건물)
- 가액 : 2억 8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신갈
- 2층 100평, 법당 40평(최고급시설)
- 방3, 주방별도
- 보증금 2천만원,월1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9027-1319

천하절경 명당터

영서북부지방 강원, 포천 경계자락인 화악산 자락에 창건 3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명당터 고찰을 뜻 있는분께 양도 하고자 합니다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강원, 포천-화악산 자락)
- 교통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춘천 30분거리, 가평40분
- 사찰연혁 : 300여년
- 전체면적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 전각 : 대웅전, 명부전, 무량수전, 산신각, 용왕각, 종각
- 부대시설 : 주지접견실, 요사채2, 요사채 및 공양실3, 석등6, 석탑1, 미륵석불1, 관음석불1
- 현사찰가액 : 현 싯가 30억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실제매도가액 : 17억
- 참고 : 현 사찰은 어떤종단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개인등기 입니다.

017-373-5998 (주지스님 직)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6억(절충가능)

011-816-9104
011-815-9104

(소백산 자락)사찰 · 선원 · 공부터 안내

- 소백산 자락(중앙고속도로 영주IC에서 20분 거리)
- 독립, 관리지역 5,300평, 산책로 등 실제 만평사용 효과
- 명당으로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소음없고 공부하기 좋음)
- 인근에 승마장 및 온천개발지, 숯가마체험장등 있음
- 차량진입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인입 완료
- 4개면 평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건립가능
- cafe.naver.com/ddajuki 에서 전경사진 보실 수 있음

016-573-2032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7년산 금강송 판매(그루 당 2 ~ 5만원)

사찰터안내

- 위치: 강원도 태백 태백산 자락 문수봉쪽
- 임야 1만 3천여평
- 토지: 955평, 산, 토지, 임야 연결
- 가액: 토지 평당 20만원, 임야 평당 1만5천원 공기좋은 맑은 곳에 위치

010-6224-3565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토지 : 5,800평 전 : 5000여평 대지 : 300여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태백산과 소백산 청양산 줄기가 합치는 회룡터로써 최고 명당자리 사찰 부처님 사리탑 조성되있음
- 가액 : 1억 5천만원

054)673-1859
010-2088-18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31)405-418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지 면적 : 약 400평 건물 : 법당13평(목조기와) 요사채 : 신축건물(약30평) (평당300만원소요) 토목 및 옹벽 6천만원소요
- 가액 : 1억3천 이나 1 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5천 확신)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불사 하려고 합니다

011-9329-4241

재가자들의 '수행경지' 인정… 책 · 서신으로 교류

<37> 대혜종고 선사 문하의 사대부 거사들

사대부들 선사와 교류는 명예 · 지위 확보하는 첩경
문자선의 폐해로 스승의 '벽암록' 불사른 일화 유명



그림 · 김흥인

송대는 유학 중심의 전형적인 관료사회지만, 대다수 관료 사대부가 불교에 귀의해 가히 거사불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사대부 거사들은 대부분 선종, 특히 남종선(南宗禪)에 귀의했다. 송대불교가 남종선의 오가칠종(五家七宗)을 주류로 이뤄졌던 까닭도 있지만, 유가의 이학(理學)에서 상당 부분 선학(禪學)의 심성론을 차용했고, 그 때문에 사대부들이 조사선에서 내재적 동질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사선에 귀의한 거사들은 선학을 이해하고, 다시 그들의 이학 이론에 삼투(滲透)시켜 더욱 발전시키는 순환고리를 형성했다. 당시 승가에서는 앞다퉈 사대부들과 교류를 원했는데, 사대부들과의 교류는 바로 선사의 명예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송대의 주류가 사대부였기 때문에 전체 민중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교화는 바로 사대부를 통하는 것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다.

선사들의 사대부들에 대한 교화는 필연적으로 유학과의 융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문(詩文)에 능한 사대부들과의 교류로 인해 선학의 성격에 변화가 초래됐다. 본래 선종은 '문자를 세우지 않음[不立文字]'에서 출발했지만, 송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사대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안(公案)'에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 최초로 주석을 달았던 이는 바로 분양선소(汾陽善昭) 선사로 <송고백칙(頌古百則)>이다. 이후 천동정각(天童正覺), 투자의청(投子義靑), 단하자순(丹霞子淳), 설두중현(雪竇重顯) 등의 네 선사가 모두 송고(頌古)를 내고 있어 이들을 '선종송고사가(禪宗頌古四家)'라고 부른다. 특히 대혜종고 선사의 스승인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는 <벽암록(碧岩錄)>과 <격절록(擊節錄)> 2권에서 <벽암록>에는 <송고백칙>에 '평창(評唱; 구체적인 설명)'을 더했다. <격절록>은 바로 <염고백칙(拈古百則)>에 '격절(擊節)'을 붙인 것이다. 두 가지는 모두 설두의 '송고(評頌을 더하는 것)'와 '염고(古則을 골라내는 것)'에 대한 주석이다. <벽암록>은 앞에 '수시(垂示; 總綱)'를 더하고, 송(頌) 가운데 '착어(着語; 夾註)'를 붙이는 동시에 다시 '평창'을 가하여 공안을 더욱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했다. 선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시작한 이러한 작업은 그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점차 사대부들의 '문자'에 의한 희롱거리로 전락되는 폐해가 출현하게 됐다. 또한 이를 통하여 '불립문자'로 출발한 선종은 점차로 '불리문자(不離文字)'의 이른바 '문자선(文字禪)'으로 흐르는 경향을 띠게 됐다. 여기에 장상영(張商英) 거사의 <호법론>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 불교계는 사원경제의 비대로 인한 상당한 문제를 노정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 선종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성적 자정(自淨)의 노력이 나타났다. 바로 대혜종고 선사의 간화선(看話禪)과 굉지정각(宏智正覺) 선사의 묵조선(默照禪)이다. 흔히 중국학계에서는 묵조선을 초기의 달마선의 전통을 회복하자는 입장으로, 간화선은 바로 육조 혜능 선사의 조사선을 회복하자는 입장으로 파악한다. 마치 석존의 경전에 주석을 행한 부파불교의 폐해를 석존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세운 대승불교 운동과 유사한 측면으로 파악한 것과 같다. 실제적으로 간화선과 묵조선의 사상적인 측면을 세밀히 고찰한다면 상당한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대혜 선사와 굉지 선사는 개인적으로 절친했고, 또한 굉지 선사가 임종 전에 대혜 선사에게 후사를 부탁할 정도였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대혜 선사는 묵조선에 대해서 "근래 몇 년 동안, 하나의 삿된 스승이 있어 묵조선을 설하고 사람을 가르치기를, 12시(時) 가운데 모든 일에 상관하지 말고 쉬고 비우라고 하며, 소리도 짓지 말라고 한다…, 가끔 사대부가 총명함과 지혜 있음에 이끌려 말이 번다한 것을 싫어해, 잠시 삿된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라 고요히 앉아 도리어 힘이 덜 드는 것을 보고, 바로 옳다고 하여 다시 미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다만 묵묵함을 궁극의 법칙으로 삼는다"(<대혜보각선사어록> 권26), "달마의 9년 공이 말에 떨어지니, 당시에 그 허물을 살피지 않음이 애석하도다. 지금에 이르러 묵조의 무리는 귀신굴에서 오랜 세월 헛되이 앉았구나"(<오등회원> 권19) 등으로 철저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혜 선사는 문자선의 폐해로 인해 스승인 극근 선사의 <벽암록>을 불사른 일화로 유명하다. 송대의 정선(淨善)이 다시 편집한 <선림보훈(禪林寶訓)> 권4에는 "천희(天禧) 년간에 설두 선사가 변설과 박학의 재주로써 뜻을 미화시켜 달라지게 하고, 새로운 기교를 구하여 학인들을 농락하니, 학풍이 이로 말미암아 일변됐다. 체선(逮宣) 년간에 원오 선사가 자기의 뜻을 붙여 그와 달리해 <벽암록>이라 했다…. 소흥(紹興) 초에 대혜 선사가 민강에 가서 학인들이 그에 끄달려 돌이키지 않고 나날이 심하게 빠져들어 폐단을 이루는 것을 보고, 곧 <벽암록>을 불사르고 그 설을 금지시켰다"고 그 일을 기록했다.

대혜 선사는 기본적으로 "물을 긷고, 땔감을 하는 것도 모두 신통묘용(神通妙用)"이라는 조사선의 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쁠 때나 화날 때, 고요한 곳이나 더러운 곳, 처자가 함께 있는 곳과 주객이 서로 술 마시는 곳, 사무보고 가사 돌보는 곳, 혼인하는 곳 모두 제일 좋은 공부하는 곳이며 살펴 점검하는 시절"(<지월록>권31)이라고 해 세속사를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설정했다. 또한 선사는 "크게 한번 깨달으면 유학이 곧 불교요, 불교가 곧 유학이고, 승(僧)이 곧 속(俗)이요, 속이 곧 승이며, 범(凡)이 곧 성(聖)이요, 성이 곧 범이다"(<대혜보각선사어록> 권28)라며 불교와 유학의 차별이 없음을 제창했다. 심지어 "양문공(楊文公; 楊億), 이문화(李文和; 李遵勖), 장무진(張無盡; 張商英) 세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니, 그 힘이 출가인의 이십 배나 수승함이다. 무슨 까닭인가? 우리 출가인은 바깥 형상으로부터 공부하여 들어가고, 사대부는 속마음으로부터 공부하여 나온다. 바깥으로부터 공부하여 들어가는 것은 그 힘이 약하고, 속마음으로부터 공부하여 나옴은 그 힘이 강하다"(<대혜보각선사어록> 권21)고 해 오히려 재가수행이 출가수행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혜 선사의 사상 때문에 선사의 문하에는 헤아릴 수 이 많은 거사들이 집단을 이뤘다. 선사의 <대혜보각선사어록> 30권은 대체적으로 사대부들을 위한 참선의 평론과 지도를 내용으로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의 9권은 선사가 여러 사찰에서의 설법을 담았고, 10~12권은 선사의 시와 게송이며, 13~18권은 '보설(普說)'로서 대부분 사대부들의 청을 받아 설한 것이고, 19~24권은 '법어'로서 모두 사대부를 위해 '기연어구(機緣語句)'를 개시(開示)한 것이며, 25~30권은 '서신(書信)'으로 역시 대부분 사대부를 위해 쓴 것들이다. 이로부터 선사가 사대부 거사들을 얼마나 중시했고, 또한 얼마만큼이나 열성적으로 지도했는가가 엿보인다.

<대혜보각선사연보(大慧寶覺禪師年譜)>에 따르면, 선사의 사법제자 가운데 승려는 84인이고, 선사를 따라 참선한 승려와 거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언급하며, 친히 계증(契證)한 사대부로 이병, 증개, 장구성 등 수십 명의 사대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관직은 재상(宰相)으로부터 참정(參政), 추밀(樞密) 등 최상층의 관료와 조정대신으로부터 지방관료 및 일반 사대부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로부터 본다면, 대혜 선사의 간화선 건립은 선승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대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도융의 <총림성사>에서는 대혜 선사 문하에 셀 수 없는 사대부 거사들이 존재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구성, 이병, 여본중등 세 거사라고 말했다. 이어 <총림성사>는 "세 거사는 모두 입실(入室)을 허락한 방외(方外)의 도우(道友)였다"라고 표현했다. 이 가운데 선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는 바로 장구성(1092-1159) 거사이다. 선사가 소흥(紹興) 7년(1137) 경산(徑山) 능인사(能仁寺)에 머물 때, 장구성 거사가 참알해 인연이 됐다. 당시 여진족의 금(金)나라가 침공해오자 장구성 거사는 항전을 주장했지만, 당시 대권을 장악한 진회(秦檜)에 의해 함께 모함을 받아 소흥 11년(1141) 선사는 도첩을 빼앗기고 형주(衡州)로 귀양을 갔으며, 다시 소흥 20년에 매주(梅州)로 옮겨졌다. 장구성 거사 역시 남안(南安)으로 귀양 가 스스로 '횡포(橫浦)거사'라는 자호를 지었다. 소흥 26년(1156) 진회가 죽자 선사와 거사는 모두 복권되어 선사는 다시 도첩을 받아 경산에 머물고, 장구성 거사는 지온주(知溫州)의 관직을 받았다. 대혜 선사 문하의 방대한 거사집단은 선사의 승속을 초탈한 사상과 뛰어난 현실감각 등에 기인한다. 특히 선사는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 의심과 늘 극명하게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간화선을 제창해 당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있는 불교가 되도록 애쓴 점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뛰어난 선사의 지도 아래 거사들의 집단이 형성돼 활동함도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면모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정보 737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 모서면 소재지
● 대지 240 평, 밭 540평
● 특징: 석조약사여래좌상
● 가액 : 9,000만원
010-8959-082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 2층 약 40평
● 모든 시설 완비
● 삼존불 인등, 소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1-551-171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우문면
● 부지(새필지) : 700평
● 몽땅 5천만원
●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8-507-2752

촌 집 안 내
(쉼터로쓰실분)
● 위치 : 경남 창녕
● 총 74평
● 부엌1, 방3, 거실, 마당, 창고
● 요사채 30평(슬라브 건물)
● 가액 : 3000만원 절충가능
010-3885-388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 2층 23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6-557-20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6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 권리금 2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사 찰 안 내
고급단독주택 · 비구니스님 · 법사님 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가족에게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입구
● 단독주택, 땅 건물 반듯한 남향,
● 대지 50평
● 특징: 마당에 나무 꽃, 주위 아파트 빌라 조용하고 ,교통 편리한 집 앞 4M 도로
● 가액 : 2억 5천만원
010-9203-1165

고급단독주택2동
사찰(급)안내
● 위치 : 청구 상당구
● 1층 단독2동, 요사채 35평, 방3개 큰방, 사무실, 선방, 주방, 큰거실, 화장실 및 욕실
● 법당 지은 지 5년 법당 22평, 선방1개, 화장실 및 욕실, 마당넓음
● 법당삼존불, 지장탱화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1자관세음보살원불 100불
● 심야전기 최신 ● 대지 62평
● 가액: 3억1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5883-2255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 사용(등기 192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단층 슬라브 60평 원목 실내시설(2층 증축가능)태양열 설치
● 법당: 16평 독립채(삼존불)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678-95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 65평, 완벽한 시설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3천 3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평수 : 임야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완료
● 가액 : 2억
● 세계최대 와불산이 있고 소원바위가 있는 곳
010-2554-0347
011-822-0347 주인직접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웃음보살 불등거사 <50>

구성 : 김흥인



오지 병을 구경하다가 보물을 놓친 사람 〈백유경(百喩經)〉



두 사람이 옹기 공장에 가서 바퀴를 밟아 오지 병을 만드는 것을 구경했다. 병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으나 한 사람은 그곳을 떠나 큰 모임에 가서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보물까지 얻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오지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구경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머뭇거리며 해가 지도록 구경하다가 옷과 밥을 놓치고 말았다.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살림살이를 돌보느라고 죽음이 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오늘은 이 일을 경영하고 내일은 저 업을 짓는다.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서 우레 같은 소리가 세상에 가득 차고 바른 가르침이 걸림 없이 내리건만 세상 일에 얽히어 듣지 않으며 죽음이 갑자기 닥치는 것도 모른다. 부처님의 법회를 놓치고 법의 보배를 얻지 못하여 언제나 곤궁한 나쁜 길에 살면서 바른 법을 배반해 버리는구나. 그는 오지 병만 바라보며 섬겼기 때문에 마침내 구경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그는 법의 이익을 잃고 영원히 해탈할 기약이 없다.

옛 판화의 세계

하늘의 군사가 나라를 지키다 천병호국(天兵護國)



판화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천병호국(天兵護國)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 불공(不空)이 황제의 명으로 밀교법회를 열자 외적을 물리칠 하늘의 군사들이 나타나는 신통력을 판각한 작품이다. 불공 스님(705~774)은 본래 북 천축 바라문족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숙부를 따라 남양을 유람했다. 15세 때 금강지 삼장(金剛智三藏)의 제자가 돼, 720년 스승을 따라 중국에 왔다. 724년 광복사 계단에서 유부율(有部律)을 받고, 그 뒤부터 금강지 삼장을 모시고 역경에 조력하고, 밀학을 닦아 양부(兩部)의 대법과 밀교의 깊은 뜻을 계승해 진언종의 6조가 됐다. 스승이 죽은 뒤에 스승의 뜻을 이어 〈금강정경〉을 구하기 위해 인도의 하릉국을 거쳐 사자국의 불아사에 있으면서 보현 아사리에게 밀교의 대법을 전해 받았다. 본문을 살펴보면 "천보원년 서쪽 국경지대의 대월지국 · 석륵 · 강거 등 세 나라 군병들이 사령부를 포위하자 황제는 조서를 내려 불공 스님을 내전에 들게 하고 황제가 도량에 임어했다. 이때 불공 스님은 향로위에 올라타고 〈인왕반야경〉의 밀어를 열네 번 외웠다. 황제가 보니 500명 가량의 신병이 궁전의 뜰에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에 황제가 놀라서 그 사유를 물으니 불공 스님이 말했다. '비사문천왕의 아들이 군병을 거느리고 가서 안서지방을 구하러 온 것이니 급히 음식을 마련해 이들을 출발시켜 그곳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그 후 4월 20일에 이르러 안서에서 상주했다. '2월 11일에 성의 동북쪽 30리 가량 되는 곳에 구름과 안개사이에 신병들이 나타나 길게 진을 치고 북과 나팔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니 산과 땅이 무너지고 진동해 국경지대의 오랑캐 부족들이 놀라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그들 병영의 전루 안에서는 금빛쥐들이 나타나 그들의 활과 석노의 줄을 물어뜯어 활줄이 모두 끊어졌으며, 성의 북문의 다락 위에는 천왕이 나타나 성난 얼굴로 오랑캐 군사들을 노려보니 군사들이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황제는 상소문을 보고 불공 스님에게 사례하고, 곧바로 모든 도에 칙명을 내려 성루 위에 천왕상을 안치하게 했는데, 성루에 천왕상을 안치하는 관습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밀교 조사들이 신통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호국 호법하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화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포교의 방안이 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묵란

우아하고 기품 있는 고고한 자태
만리향(萬里香) 무지개로 뿜어내는
만인의 연인

예리함과 부드러움으로
온전히 모든 사람 마음의 심지되어
핵을 이루나니
문자향(文字香) 서권기를 가슴에 안고
서러운 바람 불어와도 하늘가
보조개 미소 띄운다

고해(苦海) 설움 이슬 맺히는 사람들
온기로 덮어 덕으로 보듬어 주는
마음의 등대
오 그대!
억겁의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히 피어나는
한 점의 묵란이여!

–김양님 作

윤달 든 해에 소장하시면 좋습니다.

액운을 소멸시켜주는 금동반야심경

금동반야심경을 소장하시면…

황금색은 재앙을 막아주고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정에 금송아지나 금두꺼비를 소장하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금동 반야심경은 사람의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물론 모든 액운을 소멸시켜 주며, 특히 대반야경의 정수만을 가려 낸 경전으로 대학입시 자녀를 둔 가정, 사업번창을 기원하시는 가정, 집안에 삼재가 있으신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소장품입니다.

- 크기 : 27.5cm×11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170,000원
- 사찰단위 단체주문 환영
- 공로패, 감사패 대용으로 좋습니다.



금동반야심경 팔만대장경판 (국보 제32호) 축소판 ▲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무량삼매와 변재(辨才:이치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분별하는 재주)를 얻으며, 모든 구하는 바를 얻게 되고, 여자가 남자로 나기를 원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일체 중죄와 삼보를 훼손한 죄도 소멸된다.

- 크기 : 지름 10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90,000원

생전예수재의 공덕 (법공양판)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요약해서 수록하여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부 이상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사륙배판, 80페이지
- 정가 2,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내용물 :
함합소 · 금강경 · 만관 · 금강경찬
칠마 · 천수다라니 · 돈다라니
소다라니 · 탑다라니 · 개팔천
수생경 · 지전



예수재 행사 장엄등

※ 일반 행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핸드백에 쏘~옥 들어가는!

법공양으로 좋은 한장본 불서



•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3,000원	•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3,500원
• 예불독송경	89페이지	3,000원	•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3,500원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3,000원	• 무상법문집(영가전에)	110페이지	3,500원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3,000원	• 천수 · 금강경	166페이지	4,000원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3,000원	• 금강 · 아미타경	162페이지	4,000원
•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3,000원	•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4,000원
• 금강반야바라밀경	144페이지	3,500원	•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4,000원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3,500원	• 지장참회예문	186페이지	4,000원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3,500원	• 관음참회예문	190페이지	4,000원

전권(18권)을 구입하시면 20% 할인해 드립니다.(~~63,000원~~→50,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내 부모 내가 생각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생각해줍니까

이게 다 우리 부모의 잘못일까요?

문 저는 맞벌이를 하며 중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잘해 준다고 하는데 녀석은 뭐가 부족한지 공부도 안 하고 바깥으로 돌기만 합니다. 정말 속이 상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도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이 그러는 게 다 우리 부모의 잘못일까요?

답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려면 부부가 잘 생각하셔야 하고, 또 자식한테 효도는 받지 못할지언정 잘 살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자기 부모를 위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는 거는 은소반에 받들고 금소반에 받들고 뭐 돈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잘해 드린다고 해서 행복하게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 자식들이 요만큼만 말을 부드럽게 해 줘도 좋아하십니다. 또 돈이 얼마 안 들어도 요만한 걸 하나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잡숴 보세요" 한다면 그게 별 돈이 안 들어갔어도, 그리고 자기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요즘은 보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침에 일나갔다가 저녁에 올 때에 떡집에서 떡 하나만 사면 돼요. 케익 사듯이 그렇게 떡을 사고 꽃 한 송이만 사면 되고요. 물 한 그릇만 떠 놓으시면 되고 향, 초 그것만 켜 놓으면, 그리고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 위패를 써서 놓고요. 위패를 써 놓지 않는다면 영혼이 접할 데가 없습니다. 꽃도 그래서 해 놓는 겁니다. 어디다가 응접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접을 하고 '야, 너희들이 그래도 나 죽은 날을 그래도 생각해서 이렇게 식구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착하구나 착해' 하고선 그저 어떡하든지 잘되게 하느라고 긍긍 매는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일을 다니니까 못한다, 뭐 음식을 많이 차려 놓아야 하니까 못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애들을 교육시키는 데도 그게 한몫 하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부모를 갖다가 지게에다 져다가 버리려고 지고 가는데 아들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따라가요. 그런데 왜 할머니를 그렇게 내버리고 가느냐고 하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쳐 놓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갖다 버리라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막다가 막지를 못하니까 어머니 갖다 버린 지게를 다시 지고 내려와요. "그 지게는 뭘 하느냐, 이제 다 썼는데" 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져다 버려야 될 거 아니냐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선 지게를 달라고 그래선 자기 어머니를 도로 모시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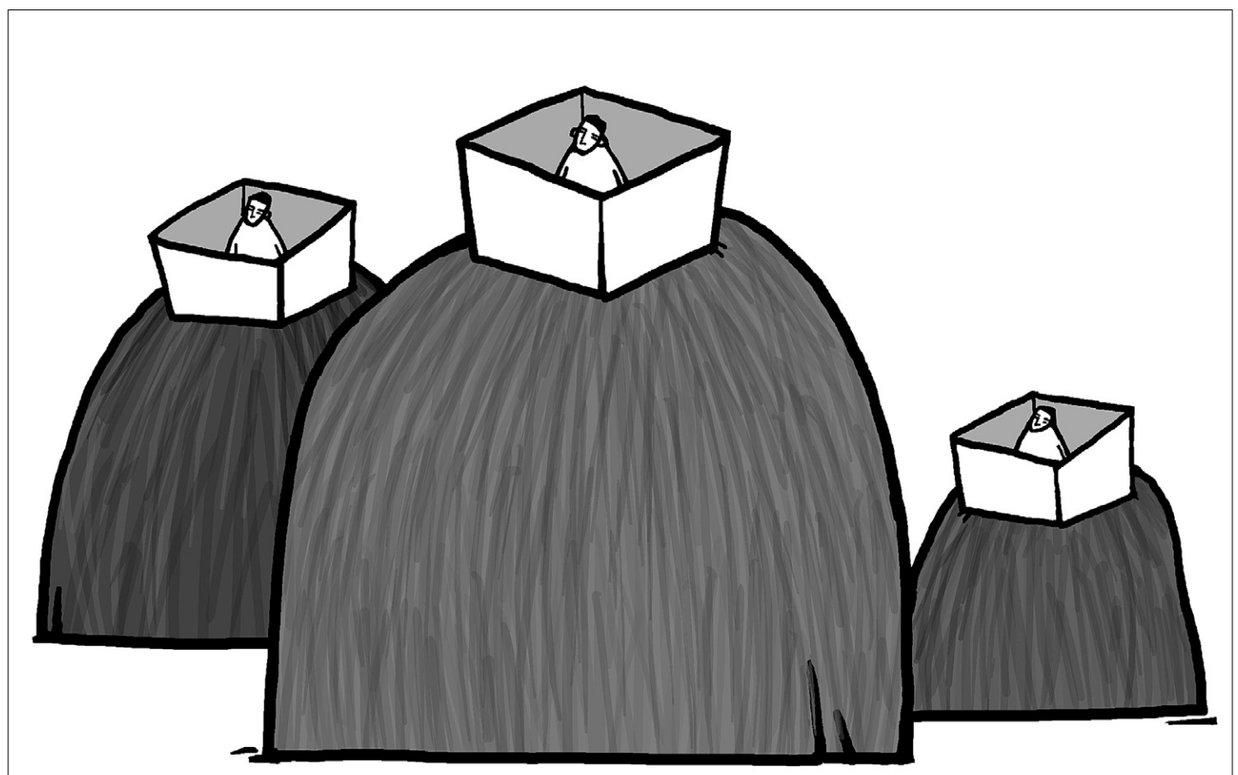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와 같이 내 부모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각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내 부모가 생각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복을 받고 마음에 따라서 흥겹고 또 고가 없어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마음은 항상 공심으로서 공생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 진리를 따라서 사시게 된다면 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는 끝에 한 번 더 말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모두가 살아나가는 데에 어찌 고가 없겠습니까. 괴로움도 있을 거고, 지금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스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계가 물질계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신계가 이 물질을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게 오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의 영원한 근본 자체가, 자기가 없어지면 육신은 그냥 송장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송장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등 동물인 사람이 돼 가지고도 진짜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성이라는 이 주인공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자식이 영 안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죠. 왜 자식이 나가서 돌아다니고 나가서 자고 공부도 안 하는지 그렇게 하는 이치가 여러 가지 각색이죠. 그런 건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하고 아무리 때리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외려 더 달아나가죠. 그러나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추운 데 나갔다 왔으면 "얘, 너 얼마나 춥니? 밥은 먹고 다니니? 난 무척 걱정했다" 그러고 나가서 일할 때면 하다못해 냉장고 바깥에라도 그렇게 써서 딱 붙여 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요량이에요. 그리고 또 관하세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나의 주인공과 너와 둘이 아닌데 너만이 모두 잘 이끌어줄 수 있잖아.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너만이 아들의 길이 캄캄하다면 헤쳐 줄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간절히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자식은 좋은 자식으로 잘 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죄가 있다면 바로 과거로부터 어떻게 부모가 살아왔으며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아온 영이 자기한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금은 금대로 금방에 있을 거고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방에 있을 거고 이렇게요. 끼리끼리, 배는 배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잘못도 있고 자식의 잘못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가 잘못 안되게 둥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점에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좀더 능동적인 지혜로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나 말 자세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내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신은 내 거니까 내가 꼭 필요한 존재고, 내가 꼭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면서 놀러 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마음으로다가 그냥 딱 묶어서 요렇게 해서 항아리 속에다가 딱 넣어 놓고는 이렇게 한다면 넣어 놓은 사람도 그걸 지키느라고 꼼짝 못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이거는 산 지옥이지 그게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넓게, 그렇다고 해서 다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고, 가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 안에서 어디로 가질 못해요. 전부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안에서나마 좀 활력성 있게, 마음이 좁지 않게 지혜롭게 나가게끔 개선해 주는 게 어머니나 부인이나 또는 아버지나 남편이 서로서로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팔자 운명일까요?

문 저는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부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애들 생각해서 참고 살았습니다. 셋방살이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중풍에 걸려 애를 먹입니다. 이 모든 게 제 팔자 운명일까요?

답 팔자 운명이라는 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두 내 몸 속에 다 있어요. 팔자 운명,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이게 이 몸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들어 있는지 볼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로 인해 몸뚱이는 받지만,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영혼들이 전부 자기한테 인과로 뭉쳐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지금 몸뚱이 속에서 우글우글 우글우글 하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저지르려면 남을 시켜 가지고, 남한테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한테 부딪히게 만들고, 또 자식한테 들어가서 자식으로 인해

☞26면으로 계속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과정 1년

내 용
범 패 : 거불 / 복청계 / 가영 / 향수나열 / 도량계 / 다계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 사다라니 / 법고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시 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교육장소 해동 성취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강사진
교수_ 보암 스님
전문강사_ 우암 스님, 동암 스님, 송암 스님

문 의 전화 051) 727-0859
팩스 051) 727-0809
휴대전화 010-3004-0859
010-2847-3500

범음범패 학인모집

■ 자 격 :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 교 육 기 간 : 1년
■ 교 육 내 용
범 패 : 거불/복청계/가영/향수나열/도량계/다계작법/39위/화청
작 법 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법고/북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개 강 일 : 양력 7월 14일 (화) 오후2시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4시간)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도동 44번지 / 불광사 팔공IC에서 3분거리

문의 및 상담전화
불 광 사 053)986-1080
011-9361-556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buddhanews.com

근본에다 믿고 놓는 데는 아무 이유도 붙지 않아야

☞25면에서 계속

서 부딪혀서 그냥 싸우게 만들고, 부부지간도 역시 그렇고. 재난이 드는 것도 그렇고, 병고가 생기는 것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깐 지금 의학술로는 35%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아, 요것 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요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요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그저 모조리 모조리 거기서 나온 거라고 거기 맡겨 놓고선 돌아갈 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고달픈 거를 평화스럽게 해주는 것도 너, 모든 게 거기니까 그 한군데 모두 맡겨 놓는 작업만 열심히 하면 그뿐이지, 내가 잘되겠다 못되겠다 왜 참견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거기 갖다 맡겨 놓으면, 거기서 다 이 몸속의 영혼들도 전부 한데 합쳐져서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뭉쳐지니까 살고 흩어지니깐 죽는다는 얘기죠. 이 마음들도, 의식들도 뭉쳐져야, 이 다스리는 한마음을 따라 줘야, 전부 몸도 건강하죠.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하지, 몸이 건강하니까 돌아가면서 가정도 건강해진다 이겁니다.

첫째, 속을 안 썩으니 건강하지, 또 파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고칠 수밖에 없다' 하고 믿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묘법을 그렇게 두고도 항상 믿지 못해서 아등바등하고 있어요, 모두. 이 세상에 팔자 운명 그런 것들을 전부 한데 합쳐서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것 주머니 속에서 되넣는다면 앞서 거는 없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끌려 다니면서 살지 말고 앞서 입력된 걸 죄 없애라 이겁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거기다,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너만이 할 수 있어. 안되는 것도 너만이 되게 할 수 있어. 안되게 하는 것도 너, 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러고 오로지 거기다가 다 일임할 때 바로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입력이 새로이 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 좋게 살 수밖에 없죠. 입력이 좋게 들어갔으니까. 전에는 입력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어지럽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절대로 나쁜 입력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현실로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주인공에다 무조건 맡기면 입력이 좋은 입력으로 되고, 절대로 자기 자부처가 자기를 못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그냥 턱 맡겨 버리고, 그렇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그만하면 족하다는 셈으로 아, 그렇게 좀 살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복작거리고 그렇게 해서야 어디 사람 살맛이 나겠어요? 내일 아침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요새 같은 세상에, 먹게 하는 것도 너, 굶기는 것도 너, 그렇다면 입히는 것도 너, 못 입히는 것도 너, 집을 내쫓기게 하는 것도 너, 집에 살게 하는 것도 너, 모두 너라면 뭐 그렇게 아등바등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머슴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머슴을 사는데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주인이 시장 봐다 주면 그저 그대로 반찬 해서 먹고, 또 안 사다 주면 안 사다 주는 대로 하고, 또 가서 해 오너라 그러면 해 오고, 저거 가서 보고 오너라 하면 보고,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럴 것이지, 뭐가 그리 말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나온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앞서 입력된 걸 죄 없애라 어떻게 없애느냐?

이 한 철 지내다가 한 철 나게 되면 갈 것인데, 내 몸뚱이 속에서 인연에 따라 모두 한데 합쳐진 그 영혼을 다스리는 내 마음과 더불어 구제받고, 세세생생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주인공의 능력을 못 믿나 봐요

문 절에 다니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공에 맡기기보다 기복적으로 그 상황이 잘 해결되기만을 빌게 됩니다. 말로는 주인공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주인공의 능력을 완전히 못 믿는가 봅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주인공을 부르고 급한 일이 생기면 기복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 바보 같은 못난이에게 야단 좀 쳐 주세요.

답 그렇게 묘하게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는 자기 주인공의 그 원소, 실상을 그렇게 못 믿어요? 그건 이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뿌리가 썩어지면 그 싹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믿질 못합니까? 어떤 형상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어떤 그림자를 보고 믿어야 됩니까? 어떤 이름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허공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당신 그 주인공의 실상, 잠재해 있는, 그 하루하루 움죽거리는 게 체크되는 그 주인공의 실상을 당신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만큼 뿌리가 썩어요.

주인공의 능력은 자가발전소의 에너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공의 이 모든 일체 생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한데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있는 그게 수도꼭지라면, 거기에서 자기가 틀어서 쓸 때는 쓰고 잠글 때는 잠그는 형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는 수도꼭지가 잠긴 거고, 한생각을 내고 보면 이 몸뚱이가 움죽거려지고 말도 하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꼭지를 트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째 그렇게 못 믿습니까? 당신을 형성시키고 그 생리적인 작용을 시키는 그 주인공을 왜 그렇게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바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안으로 돼야죠, 안으로. 가설이 된 데다가 코드를 꽂아야지, 가설이 안된 데다, 허공에다 아무리 꽂아 봐도 전기 나오나요? 내 마음의 공부를 지금 시키는데 기복으로 흐르면 그거는 영원히 못 배워요. 자기 주인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융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의식과 잠재해 있는 자기 주인공을 결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로 빠지지 말라 이런 겁니다. 떡이나 해 놓고 밥이나 해 놓고 비는 게 그게 종교인 줄 아세요?

당신 주인공, 그것은 대공이 있기 때문에, 대공의 이치가 다 한데 돌아가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도 거기 그 안에 들었어요. 또한 개미 새끼 하나 거기 안 끼어든 게 없어요. 나도 거기 들어 있고 당신도 거기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당신 혼자 오줌을 눠 보세요. 그러면 땅 끝에 그냥 묻히고 말지만 우리 일체 생명체가 다 오줌을 눴다고 보세요, 바다를 이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무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앞에 가면 부처님이 내 몸과 같고 부처님의 형상이 내 몸과 같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 주인공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자기 아님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고. 당신이 밥 먹는 것도 당신 혼자 벌어서 먹는 건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의 인력이 포함됐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주인공에 감사를 드리면 전체 다 들어가요.

아니, 바람은 생명이 없는 줄 아세요? 물은 생명이 없는 줄 아세요? 태양은 생명이 없는 줄 아세요? 불과 이 흙은 생명이 없는 줄 아세요? 모두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공기와 산소가 없으면 생명이 살지도 못하고 호흡도 못해요. 참들 고마운 줄을 모르고 이걸 모두 못 믿으니 어떡합니까. 그 위대한, 그 귀한 주인공의 대공을,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 대공을 어떻게 못 믿습니까? 그 대공이, 바로 그건 여러분의 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말을 해도 이 근본적인 이치를 모르면 여러 말 해 줘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거,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되어 있다. 이 세상 이치는 전부 가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고정됨이 없다.

그러니깐 공했다. 그러니깐 찰나찰나 바뀌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바뀌지면서 돌아가는 생활을 누가 하는가? 바로 자기 안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 주인이, 바로 마음내는 주인이 끌고 다니며 보고 듣고 생활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 몸뚱이 심부름꾼은 그대로 그 심부름을 할 뿐이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일임할 때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됩니다

문 마음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한 가지 잘 안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의 남편이 몇 년 전부터 노름에 정신이 팔려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관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스님, 저에게 용기를 좀 주십시오.

답 그럴 때에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돼.' 하는 그런 생각은 왜 드느냐? 벌써 믿는 게 미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여기다 맡겨 놓는 그런 믿음보다는 '이게 얼른 됐으면…' 하는 욕구가 더 앞을 가리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으로 맞아들어 갈 수가 없죠. 그 맞아 들어가는 자체는 바로 지혜 물바퀴도 되지마는, 법바퀴와 불바퀴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놓기만 하면, 녹아 없어지는가 하면 타 버리고 타 버리는가 하면 저 녹즙기에서 찌꺼기가 나가고 물이 나오듯이, 생수가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법인데, 내가 여기에 맡겨 놓고 믿는 힘보다 욕구가 더 많고, 그게 더 구체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 닿지를 못하는 거죠. 닿지를 못하니깐 녹즙기에 갈려서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인공에 놨느니 뭐 어쩌느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미거한 점이 여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다거나, 가정에 일이 벌어졌다거나, 뭐 부도가 났다거나, 재난이 들었다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러한 문제 등등을 놓고 볼 때에 그것이 우선 급한 생각이 먼저 들지, 여기에다가 이판사판으로 믿고 확 그냥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 믿고 놓는 데는 아무 것도 붙지 않아요.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 여기다가 맡겨 놓기 전에 그 생각부터 벌써 나는 겁니다. 이거 다가오는 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그 욕구가 딱 가리는 거죠. 딱 가려져서 거기에 닿지 못하니까 갈려 나오지 못하고 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과가, 과거의 인과가 타 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그냥 거기에 더 매달리고 욕구가 더 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아, 당신 맘대로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 줍니까?" 이러는데 그게 냉정한 것 같지만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대답해 주는 그 마음도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생각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내가 이리로 가겠다 이러는 것도, 자기 안이 구체적으로 완벽해야 그게 스스로서 자기가 택하는 일이지, 완벽지 못한 일에 대해서 누가 이러란다 저러란다 해도 그것은 거기에 닿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참 이상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한 것은요, 모든 여러분은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 관리에, 자손이 있다면 자손 관리에, 모든 가정의 관리인으로서 내 몸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런데 관리인이 왜 그렇게 그 주인을 비켜 놓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주인이 잘되게 할 거고 주인이 다 할 건데, 왜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괜히 나서서 아둥바둥하면서 온통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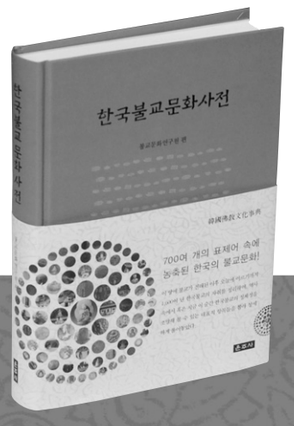
우리가 지금 생에 몸뚱이 있을 때 이 도리를 모른다면, 세세생생에 또 끄달립니다. 그 마음나기 이전과 마음은 결국은 이 세상에 거추장스럽게 또 나올 거냐. 금이 돼서 나올 거냐, 깡통이 돼서 나올 거냐. 이런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아신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더러 그러죠. 아무리 이 하늘이 무너지고 당신네들 식구가 다 깔려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말고 웃어라. 힘이 있으면, 진짜로 믿으면 웃어지고 믿지 못하면 아등바등해진다. 믿는다면 정말이지 탁 닿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아등바등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지 어떡합니까.

알쏭달쏭 불교문화가 한 손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700여 개의 표제어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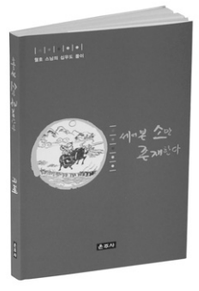
한국불교문화사전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편집 (02) 926-8361, 영업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본마음 참나의 불성 자리를 찾아서

월호 스님의 십우도 풀이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참선의 단계를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이한 참선과 행불수행의 길잡이!

나는 지금 수행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등, 마음공부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수행에 더욱 정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십우도는 참선수행의 드넓은 바다에서 현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국판/컬러/208쪽/9,000원

다양한 수행법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풀이

수행문답



현장에서 수행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기본 개념, 수행의 방식, 각 수행법의 요체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법보신문사 엮음/신국판/424쪽/17,000원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전통을 기반으로 문화도시 만들어야

이제는 문화의 시대이다. 실제로 문화가 사회 제 분야의 변혁을 이루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글로벌시대 삶의 방식과 경쟁력도 모두 문화에서 나온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게 인위적으로 흉내 내고 만들어서야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우리의 문화가 사회 각 분야의 저변에 번지게 하려면 이벤트나 일회성 행사에 취해있을 것이 아니라 전통 속에서 소재를 발견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사고의 틀을 바꾸는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조금 다른 예지만 과거 명절이면 흔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잡다한 서커스나 마술 따위의 기예들 역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 사장되어버린 아쉬운 추억들이 있다. 이들도 근자에 들어와서 예술가들의 손에서 창의적인 그 무엇으로 탈바꿈하여 대중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음을 여러 장르에서 조금씩 발견되어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즈음 문화정책 입안자나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만큼 진정으로 문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식민지시대나 유신시대의 참담한 문화 퇴행시기와는 또 다른 것으로 마치 깨어진 유리파편의 조각에 비친 잔영의 얼룩과도 같은 환경을 보고 있는듯하다.

너나 할 것 없이 과거 것들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한껀주의의 가시적 전시효과를 문화 경쟁력으로 포장하여 소란스럽게 내놓고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현실성에 의문이 가는 관념적인 아이디어만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다. 그 하나하나는 국민의 혈세임을 알고나 있는지. 또한 중?장기 정책이 입안되어 있다기보다 경제논리를 토대로 성과주의라는 미명하에 행해진다.

어떻든 서울은 한국의 얼굴이고 가치이다. 지금처럼 깊이 없이 가볍고 현란한 아이디어만 있는 정책으로는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 관에서 이끌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필요한 곳에 따라 찾아 지원해 주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중심인 요란스럽지 않은 낮은 자세의 문화행정이 요구된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의 사회 환경에서 삶의 즐거움을 채득할 수 있는 것이 문화말고 무엇이 또 있을까.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상투적인 단어조차도 세월의 이끼가 낀 거리에서 우리의 혼과 얼이 담긴 멋진 음악과 춤에 담아 보여 질 때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희망을 꿈꾸게 된다.

그럼에도 갈수록 도시축제가 자기 과시적이고, 자극적이며, 외형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화는 없고 쇼만 있다. 진정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는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온 터전을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 하여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 재건축과 도쿄 모리 미술관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 리처드 글룩먼은 한국을 방문해 옛 건물을 무조건 부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다시 만들 수 없는 '시간'을 지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나마도 서울 강북은 그자체로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 배어있는 지역이다.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이 100여점도 남지 않은 서울을 과연 이대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밀어버려야만 옳은 일인가.

삭막한 도시의 거리를 걷노라면 '보현시원가(普賢十願歌)'의 음률이 들려오는 듯하다. 삶의 기층에서 거대한 실존의 꿈과 현실을 보여주는 서정적인 노래가 아니던가.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이루어진 이 노래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데 쓰는 도구라는 함축된 교훈이 담겨 있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불교계도 인천 '도시축전' 대비를

미래도시를 보여주고 친환경 뉴에너지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민 축제의 장이자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인천의 3500여 교회가 힘을 모아서 280만 인천 시민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축전이 되도록 하겠다."

앞의 인용구절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진대제 위원장이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고 뒤의 인용구절은 '2009 인천국제성시축전'을 주최하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박삼열 목사가 기독교계의 한 신문 기사를 통해 밝힌 각오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 시민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축전이다. 8월 7일부터 80일 동안 진행되는 이 축전이 마무리되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이 주최하는 '성시축전'이 열린다. 누가 봐도 대형 축제 분위기를 활용하려는 선교계획이다. 벌써부터 불교계는 공적기능을 훼손하는 지나친 선교행위가 연출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불교계는 기독교계의 계획을 보면서 염려만하고 종교편향 감시기구를 꾸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것일까? 보다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전개할 에너지는 없는가? 인천불교계 뿐 아니라 한국불교계의 눈과 귀가 미리부터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쏠리지 않으면 '남의 잔치'에 남이 '떡 먹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찰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자

템플스테이가 21세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템플스테이의 확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챙기려는 노력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현대사회에서의 사찰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사찰은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종교적 의미에서 사찰은 수행과 신행의 공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찰은 종교적 기능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문화가 동반될 때 신행과 수행도 활발해진다. 일부 사찰의 성공적인 템플스테이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사찰은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우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산되었고 그에 동조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는가.

사찰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개는 다양하다. 숲길 하나에서도 수많은 명상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고 시원한 누각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 사찰의 입지조건을 활용하고 역사적 전통을 응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변의 자연 환경은 더 없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진지하게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응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찰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 시키는 노력은 현대사회에서의 사찰의 기능을 다양화 시켜주고 사람들의 귀의를 발동시키는 원천이 될 것이다. 전통방식의 사찰기능은 이미 한계를 보였다. 세상 사람들의 변하는 생각을 따라잡거나 끌고 갈 수 있을 때 '깨침의 메아리'도 전해줄 수 있다.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6월의 테마-보은

법의 바퀴를 굴리신 은혜

1980년 겨울, 나는 무작정 동국대학교를 찾아갔다. 불교를 접하게 된 두어 달 후였다. 불교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여러 교수님들의 연구실을 노크하며, "불교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청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당돌한 부탁을 했다. 교수님들께서는 다른 학교 출신의 학생이 찾아와서 하는 당돌한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청강을 허락하셨다. 청강의 절차나 수강신청의 절차도 없이 개강하던 날부터 <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사> 등의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께서는 불교학과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과 다름없이 지도해주셨다. 불교 교양대학도 흔치 않던 시절에 나는 그렇게 불교를 알고픈 갈증에 목을 축였다. 1년을 청강하며 불교 공부를 한 후에 내가 다니던 숙명여대로 돌아와 대학원에 진학했고, 인도의 역사를 전공하게 되었다.

<불본행집경>의 「범천권청품」에는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생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며 법을 펴기를 망설였지만, 범천의 간청을 듣고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녹야원)로 향하셨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사르나트는 부다가야에서 18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다. 부지런히 걸어도 1주일은 족히 걸릴 거리이다. 이 거리를 걸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셨다. 이 초전법륜이 오늘날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된 인연이다.

돌이켜 보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중생이 이 심오한 경지를 이해할까'하며 망설이셨듯이, 당돌하기 짝이 없는 나를 보고, 교수님들도 '무엇을 제대로 배울 수 있으랴'라는 생각을 하셨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청강을 허락하시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따듯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다.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지 않았다면 2500여 년이 지난 지금 불법(佛法)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무작정 연구실을 찾아갔던 그날의 교수님들이 나에게 불교 공부를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날 내가 인도사를 연구하는 불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법의 바퀴를 굴리셨고, 내가 만난 교수님들은 나를 위해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부처님과 교수님들의 큰 은혜를 제대로 갚지는 못하더라도 갚는 흉내라도 내며 살고 싶다. 아마도 내가 유마경의 한 구절 '중인불청 우이안지(衆人不請 友而安之: 사람들이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 편안케 한다)'를 좌우명으로 삼게 된 것도 부처님과 교수님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직 턱없이 부족한 중생살이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찾아와 불교를 접하고 싶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는 없으나 손은 내밀어 주고 싶다. 그것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의 은혜를 갚는 일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박금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연꽃의소리 대표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패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수호천사
대한민국 대표 삼베수의
www.suho-1004.co.kr

MBC BTN 불교 TV YTN 광고방영중
ISO 9001:2000 국제품질인증 획득 〈등록번호 : A2570〉
보성삼베섬유(주)는 27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올해 기축년(윤년)에는 100% 삼베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십시요!
본사에 수의를 보관해 놓은 회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보관된 수의를 보내드립니다.

기축년

68만원에 국내 직조 수의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윤년맞이 특별할인 판매

올해 윤년을 맞이해서 보성삼베섬유(주)는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수의를 특별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수의를 장만해두시면 무병장수하고 가내두루 평안하며 자손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명품 특1호]

2009년 보성삼베섬유(주) 수의품목 및 판매 가격

	정상가격	할인판매가격	할인율	원 사	원 단	제 조
수호천사 2호	~~97만원~~	→ 6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수호천사 5호	~~142만원~~	→ 99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명 품 특	~~218만원~~	→ 148만원	32%	중국	중국	한국
명품 특1호	~~398만원~~	→ 250만원	37%	중국	중국	한국
수호천사특삼베	~~398만원~~	→ 27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 수호천사 삼베수의를 구입하시면 시중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매장베(멧베)를 추가로 드립니다.

수의 구매고객께 드리는 확정금액 장례서비스 (고객선택) (사후지불 확정금액)

150만원	수시복, 수시포, 베개, 혼백, 수시용품 일체, 향, 양초, 위패, 칠성판, 사진리본, 받침대, 양복(4세트),여상복(5벌), 도우미(2명), 꽃바구니(2개)	기본형
24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4명), 제단장식(1단), 꽃바구니(2개), 양복(4벌), 여상복(7벌), 유골함, 리무진 전국무료	고급형
35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6명), 제단장식(3단), 꽃바구니(2개), 양복(6벌), 여상복(10벌), 유골함, 리무진, 버스 전국무료	최고급형

✻ 보성삼베섬유(주) 수의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수호천사 회원자동가입이 되며 확정된 금액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치러드립니다.
✻ 장례서비스는 기존의 선불제 상조가 아닌 10년 후에도 위 금액으로 장례비 후불제 서비스 입니다.

수호천사는 삼베 재배에서 제조,
장례서비스까지 새로운 개념의
장례토털서비스의 이름 입니다.
27년간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호천사로 여러분의 효(孝)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성삼베섬유(주)
전속모델 방송인 강 부 자

1 투명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원단쯤이야' 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제철에 한몫 크게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Q마크 품질보증지정업체)

2 품질이 우수합니다!
전통 기법의 가진 수의를 분리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원단을 아끼지 않아 수의 옷에 여유와 기풍이 느껴 집니다. 100% 면실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하고, 일체의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수의 고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ISO9001국제품질인증)

3 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구입 후 천재지변은 물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이라도 50%까지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고객부담 50%)
보상 교환 서비스는 보성삼베섬유가 공장직영이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4 한번 구입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까지!
보성삼베섬유(주)의 제품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철저한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호천사 장례서비스를 20년이 지나도 확정된 금액의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명품 특]

구입상담문의 전국 판매점 모집 문의전화 02-477-8060
1544-6609

보성삼베섬유는 선각종과 함께 합니다

보성삼베섬유(주)
BOSUNGSAMBE.Co., Ltd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6-1
TEL: 02-477-8060 FAX: 02-477-8061
장례서비스문의 1544-6607